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6년(서기 2002년) 9월 18일 수요일 (주간) 제 387 호

한지로 말아서 만든
한지로 말아서 만든
전통 사찰식으로 만든
주문전화 : 02)720-8829 / 요판물 : www.sanchon.com

법석 조대 **고우 스님** 각화사 선원장



"자기를 비우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자기를 비워 부처님이 말씀한 법에 일치시키는 것이 불교입니다."

"무조건 나쁜 것은 안 만나고 좋은 것만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기복불교예요. 그 마음이 있는 한은 부처님 앞에 가서도 욕망만 커지고 탐진치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 자세한 내용은 12 · 13면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사회복지사들의 경전공부

12일 오후 5시 서울 개운사 법당. 복지법인 승가원 산하 10개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직원과 사회복지사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었다. 매월 둘째 주 목요일은 법인 이사장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의 〈법화경〉 강의가 있는 날. 바쁜 업무를 잠시 접고 달려온 80여명의 복지사들이 경전공부에 빠져든다.

승가원이 마련한 이 강의는 단순히 불교를 가르치고 배우는 경전 강의가 아니다. 현장에서 뛰고 있는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복지마인드를 부처님의 자비사상에서 찾아보자는 취지로 5월부터 시작됐다. 강의가 처음 시작됐을 때만 해도 일부 복지사들의 불만이 여기저기서 나왔지만 지금은 오히려 강의시간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생겨났다. 우리나라 최고의 강백중 한 분인 종범스님에게서 〈법화경〉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인 경전공부시간이 사회복지종사자로서 사명감과 소양을 기르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특히 승가원 전체 직원의 50%가 넘는 무종교 복지사가 강의에 적극적으로 동참, 불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 기회도 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지난 6월부터 매주 화요일 한 차례씩 법인 사무국 직원 12명이 자체적으로 소그룹 형태의 〈법화경〉 공부모임을 구성, 경전 독송과 열띤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불교계 복지단체가 이렇게 불교공부 모임을 갖는 일은 드문 경우로, 불교사회복지계에서 받아들일만한 모범적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현재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인가 · 비인가 복지시설은 대략 500여 곳. 하지만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불교강좌 개설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기껏해야 일년에 한두 번 사찰을 찾아가는 '맛보기식' 수련회가 전부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복지사들에게 불교적 심성과 마인드를 기대하기는 무리다.

불교복지가 발전하려면 먼저 종사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다른 복지시설들도 승가원의 '경전모임'을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철우(취재 1부 기자)

불자의 생각

금주의 주제: 출가연령

1. 조계종이 출가자 연령 제한 법조항을 15세부터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40세 이상의 늦은 발심자에게 출가 기회를 줄 수 있는 별도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필요하다 ②필요 없다

2. 필요하다면 그 방향은?
①엄격한 특별 심사를 통한 예외적 출가의 허용
②종무행정 등을 관장하는 전문 계층으로 수용 ③기타

설문 참여: 9월 18일까지 buddhanews.com에서 참가하세요. 푸짐한 경품이 기다립니다. 설문결과는 현대불교 388호 9면에 실습니다.

비슷한 종단명칭에 신도들 혼란

조계종 법률 자문, 민 · 형사 대응 … 종단협, 종단난립방지책 강구

천태 · 관음종 명칭 특허등록, 사전예방
"CIP작업 등 종단 고유 정체성 확립 시급"

'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종단이 16개, 법화종 5개, 관음종 3개등 유사명칭 사용종단이 대폭 늘면서 신도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교계에서는 조계종 등 기성 종단들이 CIP작업 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본지가 종명에 '조계종'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신생종단을 조사한 결과 전국에 15개 종단(표 참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은, 최근 창종한 '조계종 ○○불교' 쪽에서 승려증 수백장을 발급하면서 승려증 소지자들이 조계종단 소속여부를 파악키 위해 조계종 총무원에 승적조회를 의뢰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진상조사에 나섰다. 이외에도 조계종은, 명칭이 비슷한 종단들 때문에 피해를 보았다는 민원이 총무원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조계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사명칭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구하는 등 민 형사상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조계종 호법부 고완수 과장은 "'대한불교 조계종'은 법원 판례에 따라 법인격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함부로 '조계종' 명칭을 사용하는 문제가 법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 종단에 민 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천태종과 관음종도 상호등록을 하는 등 유사 종단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있다.

천태종은, 지난해 탈종한 모 스님이 유관명칭을 사용하자 곧바로 '천태종' 이름과 관련 명칭, 상월대조사 사진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관음종도 지난해 8월 '사)○○불교 관음종'이 연말정산 가짜 영수증을 발급하자 피해자들이 대한불교 관음종으로 오인, 민원이 들어옴에 따라 종단 명칭 보호와 함께 유사명칭을 쓰지 못하도록 '관음종' 상표등록을 신청, 지난 8월 허가를 받았다.

유사명칭 사용종단의 증가에 따라 문제가 발생하자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9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종단난립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종단협은 8월 29일 충남도청에서 종교단체 설립허가 검토를 공식 요청해옴에 따라 내부 검토와 실질심사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키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 명칭이 들어간 신생종단

대한불교 조계종 삼화불교
대한불교 조계선교종
대한불교 호국조계종
한국불교 조계종
해동불교 조계종
세계불교 조계종
연합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조계종
여래불교 조계종
대선불교 조계종
현대불교 조계종
한국근본불교 조계종
한국전통불교 조계종
미주(彌宙)불교 조계종
아주(亞洲)불교 조계종



"함께하는 수해복구" 태풍 '루사'가 휩쓸고 간 비구니 승가대학 김천 청암사는 다리와 진입도로가 유실되고 식수탱크가 손실되는 등의 피해를 봤다. 동국대 경주 석림회 스님 50여 명이 청암사 스님들과 함께 13일 쓰러져 뒤엉킨 100여 그루의 나무를 치우는 등 수해복구에 나섰다.(관련기사 23명) 박원구 기자

원로회의 의원에 진제스님 추천

'출가자 연령 40세이하' 개정안 통과

조계종 154회 종회

새 원로회의 의원에 진제스님(동화사 조실)이 추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10일 재적의원 80명중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 154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행자교육원 수학자격 40세이하를 골자로 하는 교육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8월 25기 행자교육원 입소 행자부터 40세 이후 출가자는 입방이 불허된다. ☞관련기사 3면

종회는 또 제2기 고시위원에 법산, 향적, 지오, 지안, 현묵, 종석, 지현, 지욱, 지형스님을 선출하고, 종무원(봉도사 주지) 해임건의 및 중징계 촉구건은 집행부에 위임하여 호법부에 조사를 의뢰했다.

한편 종회는 총무원 집행부에 분담금 감면 등 특별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원우 기자

제주불교성지순례
성지순례전문
(주)다도투어
www.dadoTour.co.kr
TEL 064)724-1185~6

"북한산 관통도로노선 재검토"

서울시의회 임시회의서 결의안 채택

북한산 관통도로 공사가 연말까지 잠정 중단된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노선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의회(의장 이성구)는 9일 제135회 임시회에서 "시민 · 종교단체가 제시한 우회노선을 포함해 국립공원으로서의 위치를 살릴 수 있는 바람직한 노선을 위해 현 노선을 재검토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서울시의회는 결의안에서 "현 노선은 수도권에 하나뿐인 북한산국립공원과 수락산, 불암산의 자연 경관을 파괴하고 생태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며 "특히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수십개 사찰들의 주변 환경이 악화됨은 물론, 스님과 신도들의 종교활동에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또 "대기환경이 좋지 않은 서울북부지역의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며, 인터체인지의 건설로 교통혼잡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현 노선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건설교통부, 서울시 등 관련 행정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구독신청 (02)737-0090

本紙 구독료 자동이체 바랍니다

신행의 등반자 현대불교를 보다 편리하게 구독하실 수 있도록 구독료 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불교로 전화하여 자동이체를 신청하시면 보다 편한 마음으로 현대불교를 보실 수 있습니다.

1.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좋은 점
-매월 은행을 찾는 번거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구독료 연체를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원 절약 효과도 있습니다.
-통장에 구독료 납부 내역이 자동 기록되기 때문에 납부확인이 명확합니다.
2. 자동이체 신청방법
① 계좌번호(성명, 주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주민등록번호, 이체 희망일)자를 전화로 알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② 자동이체 신청가능 은행: 모든 은행 및 수협단, 우체국은 제외
③ 이체 희망일: 매월 5, 15, 25일 중 택일

▶자동이체 문의 · 신청 전화 (02)737-0090(직통) (02)737-8881(대표)

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신문사

"스님·불자님"
부다피아 카드 만들어 드립니다.



부다피아 가입과 동시에 자동으로 보시금이 적립됩니다.
스님, 종무원, 불자 누구나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외환카드 회원도 추가, 교체가 가능합니다.

부다피아카드만의 특전
- 동국대의료원 산하 5개 양 · 한방 병원 진료비 5-20%감면
- 불교전문서점 "여시아문" 할인
- 불교전문쇼핑몰 "마하몰" 할인
- 전국 유명호텔, 콘도 최고 88%할인
- 유명백화점및 할인점 무이자 할부 2-3개월
- 외식업체할인서비스(까르네스테이션 등)
- 국.내외 항공권 3% 할인
- 현대정유 오일뱅크 리터당 30원 적립
- 물품구매 누적금액에 따라 1,000원당 3원에서 10원 적립

가입문의
현대불교신문사 불교 카드 사업단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직통)02-725-1132
대표)02-737-8881

사 설

교과서 불교 오류 시정해야

9일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가 고등학교 국어, 철학, 사회문화 과목의 불교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불교에 대한 편견과 오류가 심각한 상태라 밝히고 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불교에 대한 서술이 편견과 오해의 수준을 넘어 종교적 차별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나아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입증된다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정 종교의 핵심 사상이 창조론이며, 그것이 절대적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1세기 정보화 사회는 상대적 가치관이 존중되어야 하는 시대이다. 다양한 가치관과 문화를 인정하고 융합할 수 있는 교과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교과서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에 불과하다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오류와 편견이 발견되고 있다면 원천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청소년들의 인격형성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면 점잖은 양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점에서 불교계 전체의 각성과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연구소의 감시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길 바라며 교과서 편찬위원회의 산하에 불교자문기관을 설치하여 오류와 편견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종단협 산하에 상설연구기구가 구성되어 연구와 홍보, 자료발굴 등이 유기적으로 진행되는 것도 중요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 했다. 시기를 놓치면 백년 이후의 미래가 암울해진다는 점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몇 사람의 노선조사위 안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이 늦어지고 있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조사위원 수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시행청인 한국도로공사와 시행사인 서울고속도로(주) 측은 도로와 환경 전문가, 간사 각 1인, 서울시와 경기도 추천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하자는 주장이다. 불교계는 문화재, 지역주민의 참여를 포함 20명으로 구성하자는 의견이다.

다만 조사위원회에 거는 국민의 기대가 큰 만큼 몇몇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도로와 환경 전문가를 포함해 불교의 수형과 문화유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도로 개설에 따른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되도록 해야 한다. 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불교계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난을 통해 이미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적지 않다고 밝히고, 개발과 보전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귀중한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국립공원 구역을 4㎞에 이르는 장대터널로 관통하는 공사인 만큼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관련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금정산과 천성산을 관통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마찬가지다. 그래야 이후 노선조사위원회와 민관협의체의 합의 또는 결정 사항에 대해 또다시 이견이 나오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문가들 몇 사람이 모여 기존의 설계도를 다시 확인하는 요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김규석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lamun.com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올해 초 개편된 고등학교 국어 · 철학 · 사회문화 교과서의 대다수가 불교 관련 내용을 잘못 서술하거나 특정 종교에 비중을 두는 등 여전히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어 불교문학 3편 · 한용운詩 거의 삭제
철학 '창조론'을 사실처럼 · 종교편향 심각

고교교과서 불교내용 오류 여전

파라미타청소년協 7차교과과정 분석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부설 청소년문화연구소(소장 김형중)가 이들 3개 과목의 7차 교육과정 개편 내용을 분석해 9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국어교과서의 경우 상당수의 불교문학 작품이 제외됐는가 하면, 철학교과서에서는 기초적인 불교용어조차 잘못 표기하는 등의 오류사례 13항목이 지적됐다. 사회문화교과서는 지나치게 불교 관련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등학교 1학년 공통 국어 (국정)교과서의 경우 6차 교육과정에 실렸던 불교문학 작품 3편이 삭제됐다. 또 6차 교육과정 문학교과서 13종 대부분이 실었던 한용운의 시의 경우, 중앙교육진흥연구소 발행 교과서 2편, 한국교육미디어 발행 교과서 1편이 각각 실린 것을 제외한 나머지 9종 문학교과서에서는 삭제됐다.

1종에서 3종으로 늘어난 철학 교과서의 경우, 내용 대부분이 서양철학 중심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술상의 오류와 종교편향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서에 실린 동 · 서양 철학자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에 25명(24.5%)이었던 동양 철학자 수가 11명(12.6%), 15명(23.4%), 20명(20%)으로 줄어든 반면, 서양 철학자의 경우 여전히 7~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학사 발행 철학교과서의 경우, 원효나 이이에 대한 언급이 생략되고 있다.

불교 관련 기술상의 오류 및 교정 실수 등은 13항목이나 됐다. 석가모니의 6년 수행처인 설산수도상(雪山修道相)을 '눈 내리는 히말라야 산'으로 기술했는가 하면, 석굴암 본존불상을 '보존불상'으로 표기하는 등 교과서로서의 공신력까지 의심케 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존의 교과서에서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창조론을 삽입하고, 이를 마치 과학적 근거에 의해 입증된 사실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기존 1종에서 6종으로 늘어난 사회문화 교과서의 경우, 주로 불교의 탄생 과정, 대 · 소승 불교, 간다라 미술 등만 간단히 설명하는 데 그치고 있어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방해하고 있는 점도 지적됐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회당학원 이사장에 진당 대정사 선출



학교법인 회당학원은 12일 경주 위덕대학교 이사장실에서 제311회 이사회를 열고, 새 이사장에 진당 대정사(사진)를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77년 포항 위덕심인당에서 첫 교화를 시작한 진당 대정사는 진각종 통리원 홍교부장, 사감부장, 사감원장, 회당학원 이사,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대구 신익심인당 주교와 기로원장을 맡고 있다.

진당 대정사의 이사장 취임식은 10월 중순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10월12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위덕대 손제석 총장을 4년 연장, 유임하기로 결의했다.

김철우 기자

청소년 통일의식 고취
'한라에서 백두까지'
9월28일~10월2일

불교 원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7개 종교 연합단체인 '온겨레손잡기운동본부'는 청소년 통일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제3회 한라에서 백두까지' 행사를 28일부터 10월 2일까지 개최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출발, 심양 연길 북경 등을 경유하는 이번 행사는 특히 항일독립운동 유적지인 해란강, 두만강 국경지대와 백두산 순례로 진행된다. (02)720-9777

강유신 기자

문화재소유권 종단이전 추진

조계종 문화부, 소유주 · 관리자 변경계획

성보문화재의 체계적 관리와 유실을 막기 위해 현재 해당사찰 이름의 표기를 종단 명으로 하고, 소유자도 주지스님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사로 통일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정문화재 소유주 및 관리자 변경 계획을 10일 중앙종회에 보고했다.

문화부는 현재 2,600여건의 조계종 소유 문화재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사찰은 소유주 및 관리자가 ○○사로 돼 있으나 일부사찰의 경우 소유주 및 관리자 ○○사 주지, 사유 또는 지정 당시 주지스님 속명으로 표기된 것이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를 불교문화재를 지정별, 소유주별, 지역별, 문화재 유형별로 파악하여 9월중 450쪽 분량의 자료집을 발간한다.

김원우기자

'조계종史 고·중세편' 편찬위 발족

교육원, 제2기 고시위원회도 구성

조계종 교육원은 12일 교육원 회의실에서 〈조계종사 고 · 중세편〉 편찬위원회 발족식 및 제1차 회의를 가졌다.

이날 발족식에서 교육원은 무비(교육원장) 법산(동국대 교수) 스님, 김상현 교수(동국대)를 지도위원에, 인경(동국대 강사) 원철(해인사 강원 강사) 효탄(동국대 강사) 승원(중앙승가대 강사) 스님 등 8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1년 반 동안 목차 및 필진 확정과 편찬 방향을 수립하는 등의 연구활동을 벌이게 된다.

〈조계종사 고중세편〉은 조계종 성립 이전의 불교에서부터 삼국 · 고려 · 조선 시대 조계종의 역사와 스님들의 활동상을 담게 되며, 내년 말쯤 출간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원은 11일 제2기 고시위원회 구성했다. 2기 고시위원회 위원은 법산(동국대 교수) 향적(종회의원) 지오(해인사 강주) 지안(은해사 승가대학원장) 현묵(송광사 선원장) 종석(중앙승가대 교수) 지현(송광율원장) 지욱(종회의원) 지형(청암사 승가대학장) 스님 등이다.

한명우 기자

태고종 승려 합동연수
10월16~18일로 연기

태고종은 태풍 루사의 영향으로 지방교구 사찰에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3~5일 실시하기로 했던 2002 전국승려합동연수교육을 10월 16~18일 곤지암 증부수련원에서 갖기로 했다. 교임 연수교육도 10월 21~22일로 연기해 신촌 봉원사에서 실시한다.

태고종은 9월을 '수재민을 돕기 위한 대자비실천운동' 기간으로 정하고 종단행사를 10월 이후로 연기했다.

박봉영 기자

'현대' 만평 김 영 민



"이름 비슷해 헷갈려요"

제보받습니다

현대불교신문이 보다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제보창구를 상설하고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안(사건, 사고, 미담, 사진 등)에 대한 취재요청은 물론, 각종 행사나 모임에 관한 소식도 좋습니다. 기사화되는 제보 가운데 불교발전과 기사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또한 지면제작과 관련한 문의나 투고, 의견개진은 물론 출판과 관련한 각종 제안도 환영합니다.

제보자의 신원은 한국전문신문협회 윤리강령에 의거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제보전화 : 722-4162 FAX : 737-0698 인터넷 주소: buddhanews.com

봉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 법회 축

도심속의 포교전당
본 금하선원은 2001년 인도 가니스와르 고승으로 부터 부처님 사리 5과를 모셔왔습니다.
이제야 우리 불자님께옵서 2546년 전 부처님의 진신사리 친견 참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하선원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108참배와 금강경 사경 및 큰스님 초청 7일 정진 대 법회 1000일 기도 입제를 봉행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정 표
2002년 10월 14일(월) - 10월 20일(일)
오전(10:00) 사시기도 (11:00) 큰스님 법어(11:40) 백팔 참배 및 진신사리 친견 (12:30) 점심공양 (14:00) 금강경 사경 (15:00) 회향

금강경 사경 불탑 봉안

- 금강경 사경 완성 후 불탑에 봉안 됩니다.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본 사찰로 전화주시면, 금강경 사경을 댁으로 우송, 사경 완성 후 본 사찰로 보내 주시면 불탑에 봉안해 드립니다.
- 성지 순례차 오시는 주지 스님과 신도분들은 미리 전화주시면 점심공양을 준비해 드립니다.

법회 집행 위원회

◆ 회 주 : 일륜 ◆ 주 지 : 청암
◆ 집행 위원장 : 신도회장 ◆ 집행 부원장 : 거사림 회장, 신도 부회장
◆ 위 원 : 금하선원 신도회, 거사림회, 불교 교양대학 1기~17기생
◆ 사 무 장 : 덕광 ◆ 재 무 : 여래심
◆ 포 교 임 원 : 금하선원 신도 회장단, 거사림 회장단, 불교 교양대학 : 1기~17기 총무단

●일 시 : 2002년 10월 14일 오전(10:30) ●음 력 : 9월 9일.
●장 소 : 금하선원 법당 ●접수기간 : 2002년 9월 25일~ 10월 13일
●사경법회 동참비: 5만원(금강경 사경책 3권 포함)

대한불교 조계종 금하선원
전화 02)823-9135~6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4 · 5번 출구 1분거리

'고령자 수행·교화 무리' 반영

조계종, 왜 출가연령 제한했나

내달 10일부터 40세이상 행자 입교 불허

"능력있고 신심깊은 불자 구제장치 필요"

오는 10월10일 이후부터 40세 이상인 사람은 조계종으로 출가할 수 없게 됐다.

조계종은 10일 총무원 1층에서 열린 제15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출가 연령을 50세 이하에서 40세 이하로 낮추는 '교육법 개정안'을 출석의원 48명중 찬성 38표(반대 7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개정안 공포일인 10월 10일부터 적용되며, 따라서 이날 이후 출가자를 대상으로 한 25기 행자교육원(내년 8월 예정)부터는 40세 이후 출가자의 입교가 불허된다. 다만 현재 행자교육을 받고 있는 40세 이상은 이번 개정안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10월9일 이전까지의 40세 이후 출가자도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가 연령을 50세에서 40세로 낮추자는 교육법 개정안을 중앙종회에 상정했던 조계종 교육원은 고령 출가자에 대한 교육은 물론 이들이 수행과 교화에 상당한 무리가 따르고 있는 실정에 대한 스님들의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교육원은 그동안 고령 출가자들이 늘어나면서 행자교육 분위기가 흐려지는데다, 구족계를 받기 전 중도 탈락하는 비율이 높고, 또 구족계를 받더라도 수행과 교육, 교화 과정에서 위계는 물론 승가 화합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로 최근 교육원이 총무원의 승적부를 토대로 40대 출가자들의 구족계 수지비율을 조사한 결과 91~97년 7년 동안 40대 출가자 중 44%가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30대 출가자 가운데 비구(니)계를 받지 않은 비율이 10~15%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40대 출가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환속하거나 종단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등 부적응자가 속출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게다가 1995~97년 40세 이상 출가자가 8~9%였던 것이, 98년 10.2%, 2000년 14%, 2001년 18%, 2002년 23%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출가자 연령을 낮춘 것은 승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교육원은 밝히고 있다.

조계종 중앙종회 교육분과위원장 향적스님은 "출가자가 줄어들겠지만 40대의 비구(니)계 수계비율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뒤 "유능한 인재가 필요하다면 교구본사에서 1~2명씩 학비일체를 지원하는 등의 지중지원을 통해 양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교육원 교육부장 도현스님도 "능력있는 젊은층을 승가로 끌어들이는 방법을 연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연령을 문제 삼아 출가를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능력있고 신심깊은 40세 이후 출가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조계종 종회의원 현각스님은 "교육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이를 보완할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며 "40세 이상이더라도 총무원장이나 교구본사 주지가 추천하고 계단위원회 심사를 거친 사람에 한해서는 종단 주요 직책이나 주지를 맡지 않는다는 조건을 붙여 출가를 허락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조계종도 40세 이후 출가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를 위한 제도적 대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북한산 노선조사위' 왜 늦나

구성 조사위원수 싸고 양방 신경전

금정산 천성산 고속철 민관협도 표류

불교계와 정부, 건설회사가 북한산 관통도로 대안노선 검토 노선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한 지 14일로 한 달이 된다. 8월말까지 조사위를 구성키로 한 합의가 9월중순이 되도록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또 경부고속철도 금정산, 천성산 통과와 관련한 민관협의체 구성도 불교계와 건설업계의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차가 커 뾰족한 해법이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산 관통도로 대안노선 검토를 위한 노선조사위원회가 꾸려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선조사위원을 몇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계가 환경·건설 관련 전문가뿐만 아니라 불교계 대표, 환경운동가, 지역주민들을 옵서버로 참가시켜 최하 20여명 선에서 노선조사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와 건설회사는 환경·건설 관련 전문가만으로 10명 미만에서 노선조사위를 꾸리자는 것이다.

본 게임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이 신경전이 지속되는 이유는 상대방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감 때문. 불교계는 북한산 관통도로 설계 과정에서 정부와 건설회사가 최소의 전문가들을 동원해 형식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을 잊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만으로 노선조사위원회가 꾸려질 경우 대안노선 검토가 기존 환경영향평가의 재탕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크다.

막상 합의를 이끌어냈지만 불교계가 적극적으로 노선조사위 구성을 압박하지 못하는 데에는 불교계의 말못할 속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문제가 리더십 부재. 지난해 11월이래 북한산 관통도로 문제가 제기된 이후 불교계는 수경스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 이번 사안을 풀어갔다. 물리적인 공사 저지 운동이 매듭지어지고, 수경스님이 중심에서 물러난 지금, 문제를 풀어갈 주체가 없다는 것도 노선조사위 구성 지연에 한몫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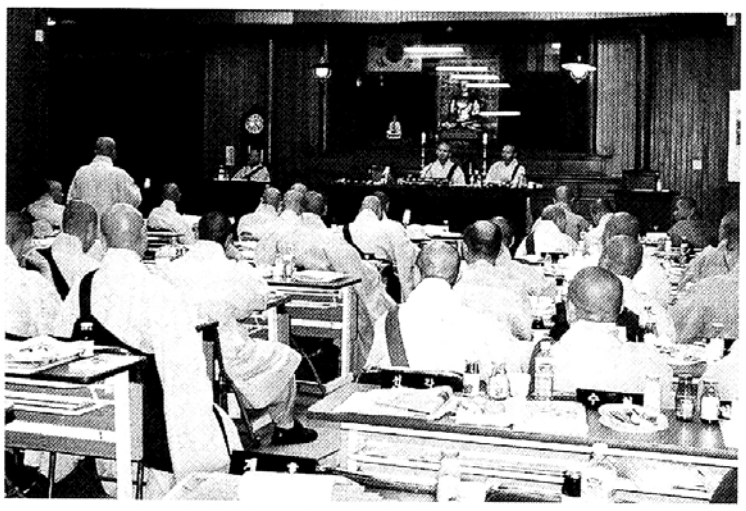
노선조사위의 위상도 큰 문제점이다. 조계종 공대위 김용구 간사는 "설령 노선조사위원회가 구성돼 노선을 검토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경부고속철도 금정산·천성산 통과문제를 놓고 추진 중인 민관단체협의체 구성도 불교계와 건설사측이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차로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민관협의체의 구성 방법. 불교계는 건교부가 민관협의체 시민단체위원을 부산, 경남 지역의 단체가 아닌, 서울지역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선정, 협의체 구성 의도를 흐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또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기로 한 천성산 구간에 대해 일방적으로 시추공사를 벌이는 등 밀어붙이기식 사업추진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대해 내원사 지율스님은 "관계전문가로 내세운 사람들이 공단간부나 하청업체 대표 등인데다 시민단체 위원은 서울지역의 시민단체 소속이어서 민관협의체 구성 의미를 무색케 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천미희·강유신 기자



◇조계종 12대 종회가 10일 열린 제154회 임시중앙종회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입법대의기구 역할 미흡
계파 이해관계에 더 민감

10일 막내린 조계종 제12대 중앙종회

서면 종책질의·세미나·자료집 발간 '긍정적'

상임분과위 활동 활성화·토론문화 정착돼야

조계종의 제 2기 개혁종단을 이끈다는 시대적 열망속에 출범한 제12대 중앙종회는 계파간 힘겨루기와 파행운영 등으로 종도들의 기대를 충족시켜 주지 못한 아쉬움을 남기며 10일 막을 내렸다. 종회가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사전 서면 종책질의가 이뤄지면서 안건토의가 종헌 종법 종령에 기초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의견개진이 활발했던 점은 일단 긍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또 종책 생산기구로 거듭나자는 취지에서 분과위별 종단현안 주제를 선정해 세미나를 열고 자료집을 발간하는 등 제자리를 잡은 모습도 보여주었다.

12개 종회는 전반적으로 종회종책모임의 활성화가 눈에 띈다. 하지만 종회종책모임은 종책을 내놓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계파가 함께 움직이는 양상으로 전락하며, 오히려 생산적인 종회기능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다 일여회와 육화회, 청림회와 무등회가 합종연행하며, 종단의 민감한 사안들이 거시적 차원에서 결정되기 보다는 문중이나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계파이익에 따라 다뤄지는 경향을 보여 계파중심의 종회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 이에 따라 계파위주의 운영을 극복하고 종회가 종단의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되찾는 과제를 차기종회가 떠안게 됐다.

4년간 운영된 12대 중앙종회를 분석해 보면 개회 회수는 제 135회부터 제 154회까지 모두 17회의 본회의가 열렸다. 총 개의일수는 종회법에 규정된 125일의 회기중 56일만 개의했다. 평균 개의일수는 2.8일이다. 안건처리는 총 457건 중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은 279건이며, 178건이 이월됐다.

개의일수가 적고 안건처리가 미흡하며, 이월안건이 많은 것은 탄우스님 제명, 총무원장 선거 휴유증 등 어떤 사안에 대한 계파간 의견 불일치로 인한 성원미달로 자동폐회가 거듭된 결과였다.

종회가 이렇게 파행운영 됨에 따라 종단의 업무추진에 지장이 초래됐다. 신도 및 법령정비, 각종 포교증책 수립이 늦어졌으며, 포교, 역경, 도제양성 등 종단의 여러 과제를 실천할 수 있는 종책 개발과 대안 수립에 있어 미진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종회의 모습때문에 일각에서는 종회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종단의 주요 종책을 입안하고 집행부의 각종 행정을 견제하는 종회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 교계에서는 종회의원들의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계는 11월 9일 출발하는 제13대 중앙종회는 보다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종회의원들이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전문위원의 활용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주장이다. 또 비상임 전문위원을 선임, 종단 현안에 긴급히 대처해야 생산적인 종회기능을 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사무처는 12대 종회 평가서에서 13대 종회의 과제로 △상임분과위 중심 운영 및 조사연구사업 지원 △종헌종법 정비 △종회의원들의 입법 및 종책기능강화 △대안중심 토론문화 정착위한 제도적 정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인생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아바타코스
당신 마음의 무게는_?
천근, 만근??
깃털처럼 가볍게 사십시요!
지금 당신을
진정한 행복/풍요/건강으로
초대합니다.
원지만 강력한 마음수련 여행 – 해산스님과 함께 하십시요
해산아바타 센터 011) 606-1976 www.haesanavatar.com
세이아바타 센터 02) 782-0022 www.sayavatar.com

봉 종단 합동 보살수계 대법회 축

민족의 통일과 세계평화를 염원하고 사회안정을 기원하며 사부대중이 불자로 입문하는 보살계를 대한불교 무량종 총본산인 지리산 **칠보정사 금강계단**에서 종단 대덕여러 큰 스님을 모시고 보살(거사, 학생)합동 수계 대법회를 다음과 같이 봉행하오니 인연닿는 여러 불자님들은 수계를 받아 법명을 갖어 불자란 사명감과 소속감으로 불자의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불기 2546(2002)년 9월 29(음 8. 23) 일요일 오전 10시 부터

◈ 장 소 : 대한불교 무량종 총본산 총무원 칠보정사 금강계단

봉 행 의 원

■ 증명법사 : 전정해 대종사, 양지은 대종사, 장혜운 대종사
■ 고 문 : 지산, 정현, 법전, 조지광, 정자운, 이정익, 최종선 하명기, 윤기순
■ 봉행 위원장 : 정 혜 안 대종사
■ 부 위 원 장 : 김보경, 허지웅, 편보성
■ 지 도 위 원 : 청운, 지암, 보혜, 정수, 보담, 보삼, 원각, 보원, 정진, 정원, 선심, 지향, 정선, 향심, 지선, 지현, 지인, 정연, 관음심, 문수행, 보련심, 김갑연
■ 집행 위원장 : 박보산
■ 부 위 원 장 : 김보인, 이보운, 한보각
■ 총무부장 : 장보일 ■ 경호부장 : 김법산 ■ 의전부장 : 박보덕
■ 시설부장 : 정보문 ■ 재무부장 : 강보연 ■ 조직부장 : 신지담
■ 문화부장 : 박보만 ■ 홍보부장 : 정호진 ■ 포교부장 : 한무심
■ 섭외부장 : 박정혜 ■ 관리부장 : 이성수 ■ 국제부장 : 김상철

(사) 대한불교 무량종 총무원 봉행위원장 정 혜 안 • 경남 하동군 적량면 서리 550 전화 055)883-7771, 7790 / 팩스 055)882-9916

일주문



'우리민족돕기' 6돌 행사

월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는 13일 서울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창립 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월산 큰스님 추모다례재

종상 경주 불국사 주지는 11일 불국사 무설전에서 월산 큰스님 열반 4주기 추모 다례재를 봉행했다.



파라미타 대구지부장 취임

지성 동화사 주지는 14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대구지부 제2대 지부장 취임식을 가졌다.



일주문 건립불사 착공

지홍 조계사 주지는 12일 조계사 입구에서 성토재(盛土齋)를 봉행하고 일주문 건립불사를 착공했다.



포교원으로 사무실 이전

성광 조계종 군불교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 포교원 4층으로 군불교위원회 사무실을 이전했다.



일본시찰 마치고 귀국

진옥 여수 석천사 주지는 오사카 사천왕사를 비롯 일본의 대표적 복지기관 6곳을 시찰하고 11일 귀국했다.



약사여래부처님 점안식

송정 한국불교 미륵종 총무원장은 11일 언양 작천정 미륵종 중앙연수원에서 약사여래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했다.



'무룡산 법음' 발간

정각 조계종 문화부장은 11일 법문집 〈이야기로 배우는 불교-무룡산 법음〉(성보문화재연구원 刊)을 발간했다.



수재민돕기 바자회 열어

김규대 2군 사령부 군종참모 대령은 11일 대구 무열대 중문 앞에서 수재민 돕기를 위한 바자회를 개최했다.



한국기계가공학회장에

하만경 부경대 기계공학부 교수는 7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한국기계가공학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선출됐다.

"12월 완공… 제2의 개국 발판"

무상사 건립 입재법회 연 불교TV 회장 성우 스님



"착공 후 1년여의 공사끝에 금년 12월에 완공되는 봉천동 사옥의 건립은 그동안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불교 TV가 다시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외형적인 불사와 함께 방송의 질적인 변화에도 치중해 '제2의 개국'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일 강남 봉은사에서 열린 '불교 TV 법당(무상사) 건립 입재법회'에서 불교 TV 회장 성우스님은 무상사 건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성우 스님(사진)은 "현재 대지 3백12평에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지어질 새사옥에는 방송 스튜디오와 법당, 편집실 사무실 등이 갖춰질 예정"이라며 "특히 5층에 마련되는 무상사 법당은 선지식들을 초청한 법회와 각종 불교계 행사를 치룰 수 있게 설계됐다"고 밝혔다. 또 사옥 각층마다에는 육바라밀을 지칭하는 보시·지계·인욕·정진·선정·지혜의 이름을 붙이고, 건물 정면의 옥상에는 팔정도를 한문으로 새겨 놓아 얼핏 보아도 불교식 건물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게 해 놓을 계획이다.

부채도 반이상 줄어 경영상태도 많이 호전 돼 좋은 프로그램 공급에 전력을 다할 계획이라는 성우 스님은 "불교 TV는 지난 5월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6시간 동안 생방송 할 정도로 8년동안 불교영상 포교를 위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해 놨다"며 "내년 3월에는 새사옥에 들어가 불자들에게 질 높은 콘텐츠를 보여줄 수 있도록 대대적인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대구경북지역 곳곳에 법음을"

대구불교방송 신임 총괄국장 종수 스님



"포항, 안동 등지에 지역 중계소를 세우는 등 난청지역의 가청권을 넓혀 대구경북지역 어디서나 부처님의 법음이 울려퍼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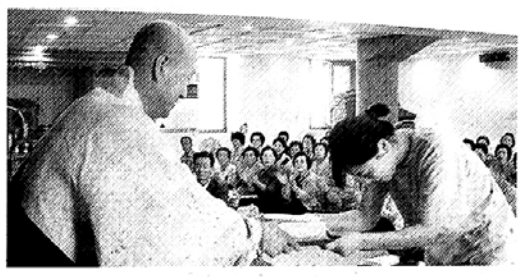
8월 26일 대구불교방송 총괄국장에 임명된 종수스님(前 경주 분황사 주지·사진)은 "대구불교방송이 지역 민영방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지역불교계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라고 말했다.

종수스님은 또 방송내용 중 불교계소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앞으로 BBS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하고 홈페이지 보완을 통해 방송으로 다루지 못한 내용은 인터넷에 게시해 교계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높일 계획도 밝혔다.

아직 방송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려면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스님은 방송 일에만 전념하기 위해 경주 분황사 주지직도 그만두었다.

"불교의 종교적 특수성과 공중파 방송이라는 대중성이 서로 절묘한 조화를 이룰 때야만 대구불교방송이 지역불교정보의 중심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특히 "'좋은인연 만들기 연중 캠페인'을 전개해 사부대중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무량심과 자비심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더불어 함께하는 보시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종수 스님은 총무원 감사국장과 기획실장을 역임했으며, 원효학연구원 총무이사와 부원장을 맡았다. 불교청주방송 운영위원과 감사로서 방송과의 인연을 맺었다. 박원구 기자



두산장학회 법운스님 등 장학금

두산장학회(이사장 일면·봉선사 주지)는 7일 보현사에서 광동여자고등학교 1학년 서은해 양과 중앙승가대학 법운 스님을 비롯한 14명의 학생에게 각각 1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일면 스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더욱 열심히 공부해 사회발전과 불교발전에 기여해 달라"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참선전문도량 공생선원 개원

서울 도봉구에 위치한 공생선원(원장 무각)이 8일 개원식을 봉행했다. 1부 부처님점안식, 2부 개원법회로 진행된 이날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스님, 금강선원장 혜거스님, 조계사 주지 지홍스님 등 4백여명이 동참했다. 공생선원은 수요일 참선입문교육, 금요일 실수, 매월 둘째 참선철야정진 등을 개최한다. (02)900-2448

"조동선맥 복원·묵조선풍 선양"

5일 창종 '한국조동종 총본산' 학봉 총무원장



"현재 우리 불교계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들은 고행을 도외시하는 안일한 풍토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조동선맥을 복원하고 묵조선풍을 선양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일 서울 용산구 원효사 대웅전에서 열린 한국조동종 총본산 창종법회에서 초대 총무원장에 취임한 학봉스님(사진)은 종도들의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에 어깨가 무겁다며 이같이 취임소감을 밝혔다.

"한국조동종 총본산을 창종하게 된 것은 간화선 일색의 한국불교 토양아래 명맥이 끊겼던 조동선(묵조선)의 뿌리를 내리고, 생활선풍을 일으키기 위허서입니다. 화두를 드는 간화선과는 달리 조동선은 본래 청정한 자신의 진면목을 지키는 수행법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고 생활에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조동종 총본산 산하 사찰은 20여 곳. 창종을 준비하면서 함께 하겠다는 스님들이 많았지만 엄격한 심사를 거쳐 종단 소속 사찰을 지정했다. 창종을 계기로 조동종의 종지종풍을 선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단 스님들의 의지와 청정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종단 소속 절마다 선방을 만들어 불자들에게 조동선을 가르치고, 조동선에 해박한 지도법사도 양성할 것입니다. 또 '조동선학원'을 설립해 종단 차원에서 조동선 보급에도 적극 나설 것입니다."

학봉스님은 현재 한국조동종 총본산의 사단법인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한국불교 세계에 알릴 터"

참여불교재가연대 김창영 국제협력위장



"그동안 세계불교의 흐름 속에서 한국불교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면이 많았습니다. 해외 참여불교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자비와 관용의 불교적 이념을 국제사회의 평화 인권운동속에서 실현시키고 제3세계의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보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국불교를 알리고 세계불교의 움직임을 한국에 소개하는 일도 꾸준히 진행시킬 계획입니다."

11일 공식 발족한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 국제협력위원회 김창영(47·코리아타임즈 논설위원·사진) 위원장.

김 위원장은 80년대와 90년대를 거치면서 축적된 불교계의 저력, 특히 개인의 수행과 사회의 개혁을 동시에 추구하는 참여불교 운동의 저력을 이번 기회에 세계 불교계와 이웃종교들에게 널리 알릴 생각이다.

이를 위해 참여불교 이념에 동참하는 국제불교 단체들과의 정보교환 및 연대도 모색해 참여불교 네트워크의 구성도 적극 추진하고 9월말 경에는 국내 거주 외국인과 대학생을 중심으로 국제협력 활동 자원 봉사단도 구성할 계획.

참여불교네트워크 구성 외에 국제협력위원회의 쟁점 사업은 인도불교 등 해외불교의 지원. 국제협력위는 10월 20일 경 인도 우다프라데시 주 상카시아에서 열리는 수계식 등 인도인 불교 개종운동 등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김창영 위원장은 18일~2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2002 아셈민간포럼 종교·영성분과 회의에도 한국과 불교계를 대표해 참석한다.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청주불교련 영규대사 추모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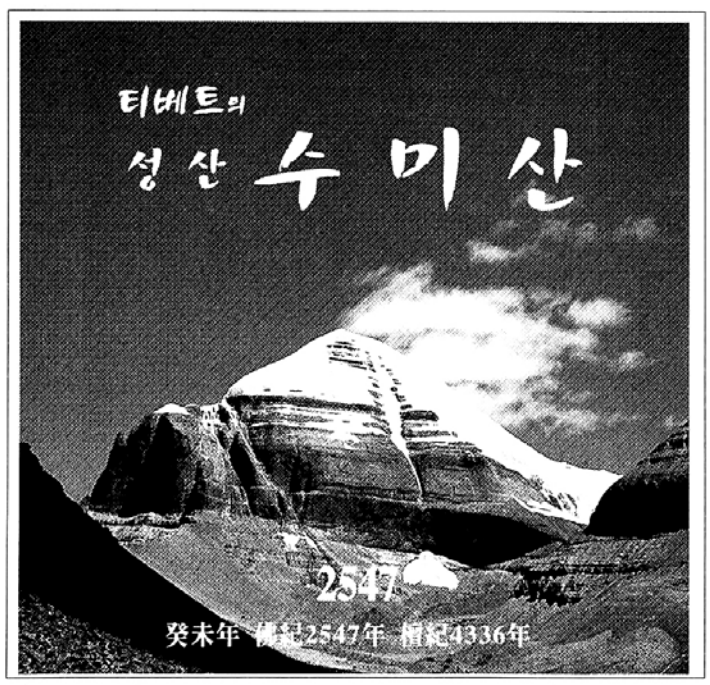
청주시 청주성탈환기념사업회와 청주청원불교연합회는 6일 청주 중앙공원에서 임진왜란시 청주성 탈환 제410주년 추모대재를 봉행했다. 영규 대사를 추모하기 위한 이날 행사는 풍주사 주지 범추 스님과 청주불교방송 사장 현중 스님, 광덕사 주지 일봉 스님, 한대수 청주시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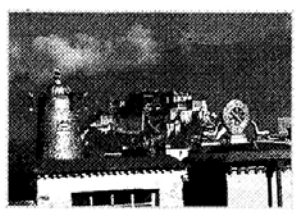
장수 죽림정사 승방 상량식

장수 죽림정사(조실 도문)는 11일 죽림정사 내 위치한 용성스님 생가터에 승방 상량식을 거행했다. 천룡사 주지 환희스님, 아도모례원 주지 보승스님, 용성스님 기념사업회 유종협 이사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문스님은 "33인 민족대표 중 한 분인 용성스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 생가복원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2003년은 수미산 달력으로 선택하십시오








2003년 수미산 달력을 주문받습니다.
이번 달력은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우는 수미산을 실었습니다.

경전상의 수미산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솟아 있는 산으로 우주의 중심이다.
그 둘레에는 일곱 겹의 황금산들과 일곱 겹의 바다가 에워싸고 있으며
그 바깥에 우리의 우주가 놓여 있다.
이와같은 수미산설의 모델이 되는 산이 티베트의 성산인 수미산이다.
해발 6714미터의 수미산은 범상치 않은 모양새와 그곳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한 기운 때문에 이 산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한다고 한다.
수미산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만나야 하는 그런 산이다.
티베트인에게 수미산은 성산으로 부처님의 세계로 불리운다.

티베트 문화대제전 등 몇차례 출품한 작품들을 모아 달력으로 만들었습니다.
달력으로 신비로운 수미산을 만나보십시오.

■성지 순례 안내■
- 인도 성지 순례 9일
  - 출발 : 11월 7일, 21일
- 스리랑카 순례 6일
- 미얀마 순례 6일
- 캄보디아 베트남 6일
- 인도네시아 순례 6일
- 중국 구화산 황산 5일
- 보타산 항주 5일
- 아미산 대족석굴 5일
- 오대산 북경 6일
- 티베트 성지 순례 8일

◆달력주문처 : 실크로드기획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1443-1 (대구) 053-633-3611

SILKROAD (주)실크로드 여행사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 앞)
TEL:(02)720-9600 FAX:(02)734-9937

특별한 여행! 티베트 수미산 순례 : 신비로운 기운과 영적인 세계를 탐구하는 일정 - 21일간 (수미산 순례단 출발은 2003년 6월 1일, 8월29일 년2회 모집)

호남재소자 포교에 역점

전국불자교정인연합회(회장 오희창)는 7~8일 장성 백양사에서 제6회 간부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200여 교정인불자들은 신행사례 발표, 지회 소개 등을 통해 지역 또는 지회간 교류를 확대하고 호남지역 재소자포교를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조계종 포교원장 도영스님은 "굳은 신심을 바탕으로 재소자를 교화하겠다는 일념으로 정진하는 지장보살이 되라"고 당부했다.



금강경 강독법회 봉행

서울 은평구청 불심회(회장 이길영)는 9일 진관외동 삼천사에서 은평구사암연합회장 성운스님을 지도법사로 금강경 강독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는 50여명의 회원들이 동참해 능엄업장분을 공부했다. 성운스님은 "구민(區民)에 대한 공경심을 자신을 닦는 수행으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이날 봉사부 간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명자 씨가 회원들에게 금강경 100권을 보시했다.



홍성 상하리 미륵불 친견

한국석불선양회(회장 이귀인)는 8일 홍성 용봉산 상하리미륵불을 찾아 친견법회를 열었다. 이날 60여명의 참가자들은 수재민들이 아픔을 딛고 빨리 극복하기를 발원하고, 현장에서 수재의연금 35만원을 모금해 수재민들에게 전달했다. 이어 신경리마애불과 용봉사를 참배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4시)
☎ 02)596-7231
■방문상담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4시)
☎ 02)722-4162

"만생명은 나의몸" 자연살리기 서원

철불협 불자 등, 북한산 올라 환경수호법회



◇철불협, 서울지하철공사법우회 등 직장불자등은 8일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를 열고 가정과 직장에서 환경보존운동을 실천하기로 결의했다. 사진은 참가자들이 '만생명을 위한 서원'을 낭독하는 모습.

'만생명은 나와 한마음 한 몸입니다. 우리는 이웃과 자연을 살리는 일꾼이 되어 물질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 보다는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수행정진에 힘쓰겠습니다. 나만의 편리함을 버리고 적고, 작고, 느리고 단순한 것을 진정한 삶의 가치로 받아들여 절제의 마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와 편리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을 살리려는 '만생명을 위한 직장불자들의 서원'이 서울의 심장인 북한산에 울려 퍼졌다.

철도청불교단체협의회(이하 철불협)와 서울지하철공사 법우회, 도시철도공사 법우회 등 직장직능 단체들은 8일 북한산 일대에서 '환경살리기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도봉산 매표소에 집결, 등산객들에게 전단과 기념품을 나눠주는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으로 천축사까지 도보로 이동해 환경수호법회를 봉행하는 순으로 진행된 이날 대회에서 150여 참가자들은 환경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환경수호 108 신장단'을 결성하는 한편 환경법회 개최, 걷기대회 정례화, 기존의 성지순례를 생태기행을 겸한 순례로 전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수호 108 신장단'은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일부터 환경 보전을 실천하는 수행운동을 전개하는 주체로 활동하게 된다. 또한 직장내에서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원력보살의 역할을 담당한다.

'108신장단' 구성·타단체 운동확산 추진

한편 전국금융단불교회와 전국교사불자연합회 소속 임원 및 회원 20여명도 이날 행사에 동참해 철도불자들과 함께 환경보호 활동을 모든 직장직능 단체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찬연 철불협 사무국장은 "이번 대회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후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한다는 직장불자들의 환경보존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환경보전 활동을 펼쳐가도록 철도불자와 직장불자들의 힘을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행단체 담당=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山行에 불교신행요소 접목 쉼없이 나 돌아보는 계기로"

부산청년불자산악회 이욱태 신임회장



"산행에 불교 신행 요소를 잘 접목시켜 산행이 곧 쉼없이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8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3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욱태(41·사진) 회장은 산행을 통한 정진을 강조했다. 사찰 건축, 불화 등의 테마 산행을 통해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고 있는 기존 기획 산행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가족들이 다함께 동참하는 가족산행을 더욱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명산에는 명찰이 있으니 산행은 자연스런 포교"라는 이 회장은 "산사에서 받아들인 자연스런 불법의 향기가 생활속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가족산행의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하루찻집을 통한 수익금등으로 소외된 이웃에도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거리 포교 프로그램인 연등 인연만들기, 군법당 후원, 수련회, 계간 회보 '청산에 드는 사람들' 발간 등은 계속 추진한다.

한편 98년 창립 이후 산행과 불교 둔화를 접목시켜 젊은층 포교의 핵심적 역할을 해온 부산청년불자산악회는 박대관 사무국장, 김홍팔 등반대장 등 산행 참석율이 높고, 신심이 돈독한 회원들을 주요 임원으로 대폭 발탁했다. 이번 임원개편을 계기로 기획 산행과 사회봉사활동 강화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이 회장은 "청산에 드는 사람들이라는 산악회 카페(www.freechal.com/borisan)에 들러 청산의 품에 안긴 청년불자들의 싱그러운 마음을 만나보라"고 적극 권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청소년·교사대상 적극 포교

경인교사불자회 창립5돌, 일반연수 상설화

서울경인교사불자회(회장 이호영)는 28일 오후 3시 조계사 설법전에서 창립 5주년 기념법회를 열고 청소년과 교사들에 대한 포교에 적극 나선다.

97년 9월 120명의 교사불자들로 창립한 이래 회원확대와 안정적인 조직운영에 주력해 온 경인교사불자회는 정기법회, 성지순례, 청소년수련회 개최 등의 활동을 펼쳐 회원이 450명으로 증가했다.

경인교사불자회는 이번 5주년을 계기로 더욱 내실있는 신행·포교단체를 만들겠다는 다짐을 하고있다. 이를 위해 올해 8월 일반교사들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해 교육청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교사 일반연수를 상설화하고, 대구 경북 울산지역 교사불자회, 광주 전남 전북지역 교사불자회와의 교류를 추진한다. 또 청소년 불자 양성을 위해 청소년 통신반과정을 개설, 수련회와 수계법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호영 회장은 "교육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불자들은 청소년 포교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올바른 불교관을 갖고 신행과 포교활동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직장직능 전담포교사팀 구성

전남공무원·경찰 7명, 직장불자회 설립 지원

광주 전남 지역에 직장직능 포교를 전담할 직장직능 포교사팀이 새롭게 결성돼 29일 김정연(무안군청 사회복지과) 팀장을 비롯해 직장직능팀 포교사들의 임명식을 갖는다.

무안, 강진, 해남지역의 공무원과 농협 직원, 경찰 등 7명으로 구성된 직장직능팀은 직장단위로 활동하면서 법회 운영과 직장불자들의 신행활동을 지원하며 불자회가 결성되지 않은 직장부터 우선적으로 결성을 추진한다. 또한 팀원간 상호 정보공유 및 법회 지원 등 긴밀한 협조관계를 형성할 계획이다.

김정연 팀장은 "직장포교를 발원한 포교사들이 힘을 합쳐 포교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모임에선

불교산악인련 27일 임시총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총재 정인악)는 27일 오후 3시 서울 타워호텔 프린스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새 총재를 선출한다. 이는 정인악 현 총재가 "10월중 열리는 창립기념법회에 앞서 새 총재를 선출해 행사 준비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사임의사를 밝힌 데 따른 것이다.

대전 유성구청불자회 성지순례

대전 유성구청불자회(회장 김종목)는 10월 5일 인제 백담사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가족동반으로 이뤄지는 이번 순례에는 40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유성구청불자회는 지난 5월 창립한 이후 매 분기마다 불교성지를 순례, 회원들의 결속과 신심을 다지고 있다.

우리은행 부산불자회 집전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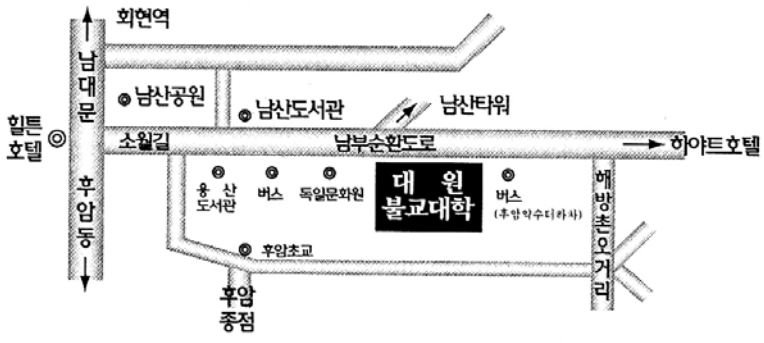
우리은행부산불자회(회장 하명찬)는 14일 부산 영주암에서 정기법회를 갖고 의식집전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달 법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돼 모든 회원이 목탁을 지참, 함께 배우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명찬 회장은 "회원들이 아직 미숙하지만 직접 예불과 정근을 집전하면서 자신의 신행을 채찍질 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최봉수 교수의 범본 금강경 특강


최봉수 교수

한국불교의 소의 경전으로 불교 대중들이 널리 애독해 왔던 금강경!
지금 우리 불교는 그 금강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구마라즙과 현장 법사의 금강경 번역에 차이가 있고 산스크리트어 금강경과도 미묘한 입장 차이가 있다는데 ……
이제 최봉수 교수의 명쾌한 원전비평과 해석을 토대로 21세기의 사상적 대안인 금강경의 새로운 자리매김을 시도합니다.
불기 2546년 10월 7일 대원불교대학에서 떨쳐지는 사자의 외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개 강 : 불기 2546년 10월 7일 오후 2시 매주 월요일
◈ 장 소 : 대원불교대학
◈ 수강문의 : 02)754-1613(통신 수강도 가능함 : 직장인 및 출방이 불가피하신 분)
※ 본 특강은 산스크리트어 금강경을 중심으로 구마라즙과 현장의 한역본, 현대의 영역본 등을 비교하며 진행됩니다.



•지하철 - 서울역(1,4호선), 회현역 하차(4호선)
•버 스 - 83, 83-1, 79-1(후암 약수터 앞 하차), 32, 45(후암동 버스 종점 하차 도보 5분거리)

대원불교대학 홈페이지 www.idaewon.or.kr로 오세요
최고의 불교학자들의 명강의를 생생하게 무료 로 들을 수 있습니다.

과 목	담 당 교 수	교 수 약 력
중국불교사	장 휘 옥	부산대 화학과 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사 졸업 일본 동경대학교 대학원 석 박사 졸업, 현 금강대학 교수
원시불교	최 봉 수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 박사 졸업 현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 교수
유마경 강독	허 경 구	서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인도 베나레스 힌두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과 목	담 당 교 수	교 수 약 력
여래장 사상	김 사 업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및 대학원 석 박사 졸업 일본 국립경도대학교에서 인도철학연구, 현 금강대학 교수
현대불교윤리	김 종 욱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철학과 석박사 졸업 불교TV 불교와 철학의 만남에서 특강
전통불교의식	마 일 운	스님, 불교 전통의식 범패 전수 교육자

homepage : www.idaewon.or.kr

⊙ 大圓佛敎大學
140-190 · 서울특별시 용산구 후암동 358-17
TEL : (02) 754-1613, 773-9171, 776-7156 FAX : (02)756-7258

신행 365일 이젠 실천이다

선물은 불서로

9월-불서 읽기의 달

- 매일 시간정해 책을
- 경전부터 읽자.
- 선물은 불서로
- 절마다 도서관 만들자

9일 불교책 전문매장 여시아문에서 만난 홍미리(50)씨는 이번 추석에 혼자사는 친구들을 위해 책 선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딸린 식구들이 없어 명절 때 차례만 지내면 비교적 시간이 많이 남는 독신 친구들에게 불서는 좀 특별하고(?) 안성마춤인 선물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홍씨는 "명절 연휴로 자칫 마음이 들뜨거나 흥청망청 보내기 쉬운 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바로 독서"라며 "친구들에게 선물도 하고 직접 읽기 위해 불서를 몇 권 구입했다"고 말했다.

불서는 아니지만 사회의 저명인사가 최근 직원들에게 책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한다. 정건용 산업은행 총재는 국내외 점포장 등 직원 1천여명에게 데브라 벤튼의 〈CEO처럼 행동하라〉는 책을 선물했다.

이처럼 요즘에는 기념일이나 특정한 날이 아니더라도 책을 선물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이제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책 선물이 아끼는 이의 인생에 새로운 취미를 하나 더 보태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보나 영풍문고 등 서울 시내의 대형 서점들은 96년부터 해마다 연말이면 선물이나 연하장을 정성스런 마음이 담긴 책으로 대신하자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불자들에게 불서 선물은 불교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높일 수 있어 권장할 만한 사항이다. 많이 알면 알수록 자신의 신행활동은 물론 전법 또한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서를 권하고 보시하는 것 또한 법문을 통해 포교하는 것 만큼 중요한 포교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일선 포교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불서 읽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불자들만큼이라도 부모형제, 아들 딸, 친지, 도반들의 생일이나 기념일, 불교명절때 상대방에 어울리는 불서를 선물로 주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길상사 회주인 법정 스님이 몇 개월전 자신이 아끼는 한 아나운서의 주례를 맡은 자리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당부했다.

"부부가 매일 한답에 한 번씩 책을 선물하고 그 책을 서로 돌려가며 읽고 그 책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책 선물이 부부간의 사랑을 연결해 주는 메신저로서도 한 몫 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준 것이다.

김주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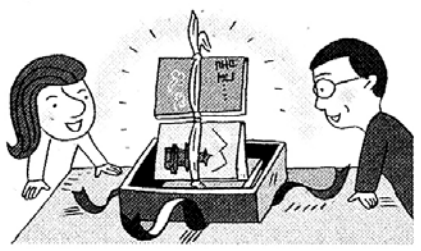


그림 · 김영민

불서권장·보시도 중요 포교수단

불교명절때 근기맞게 주고 받기를

신행 캘린더

9월 18일 (수)

■이천 '도자기 축제'=한국 최대의 도자기 축제인 '이천 도자기 축제'. 백자, 청자, 청화백자 등 다양한 한국 전통자기들을 만나는 자리가 29일까지 경기도 이천 설봉공원 일대에서 계속된다.

직접 석고틀에 앉아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워보는 코너를 비롯, 이은구, 김세용, 임남일 씨 등 도자기 명인들의 작품을 직접 관람할 수 있는 다양한 마당이 마련된다.(031)635-7376

■경주 장애인복지관 '문화공연'=동국대 등 경주지역 대학 동아리 회원들과 포항 벽계국악원생들은 오전 11시 30분 복지관 강당에서 태권도 시범, 풍물, 국악 등을 공연하는 한가위 문화 행사를 마련했다. 지역주민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하는 장기자랑, 퀴즈대회, 송편 빚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계속될 예정.(054)776-7522

9월 22일 (일)

■두레생태기행 '한가위 특별답사'=두레생태기행은 추석에도 고향으로 갈 수 없는 실향민들과 함께 떠나는 한가위 특별 휴전선 답사를 마련했다.

임진강, 태풍전망대, 신탄리 다리 등 한국전쟁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장소를 최근 개통된 통일열차로 돌아본다.

출발은 오전 8시 서초구청 정문 앞. 참가비는 3만 5천원(02)712-5812

9월 23일 (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가을철 산사의 별식'=국화전, 국화송편, 산마지짐, 들깨짐…

전통사찰음식연구소가 가을을 맞아 산사의 스님들이 먹던 별식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전통사찰 음식문화를 직접 배워보고 현대인들에게 적합한 건강음식 조리법을 익히는 기회. 강의는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연구소 강당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25만원(재료비, 교재 포함).(02)355-5961

9월 24일 (화)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명상교실'=바쁜 현대사회에서 나를 돌아보고 마음의 평안을 찾아보자.

강북장애인복지관은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명상교실을 12월 3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개최한다. 오전 10시 30분에 열리는 이번 명상교실은 한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상임이사의 지도로 진행된다.(02)989-4215

■통도사 성보박물관 '특별전'=부산 아시안 게임 개막을 맞아 통도사가 아시아인들에게 선보이는 불교문화의 정수.

통도사 성보박물관은 24일부터 10월 21일까지 '양산의 역사와 문화' 주제의 특별전시회를 개최한다.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가져온 부처님이 직접 입었다는 석가여래친착가사를 비롯한 불교문화재 등과 양산의 대표적 고분인 금고총 출토문화재 등 350여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055)382-1001

■용진신행회 '성지순례'=설악산 백담사, 봉정암, 오세암, 영시암 참배.

용진신행회는 만해 한용운 스님이 '님의 침묵'과 '불교유신론'을 탈고한 백담사와, 봉정암 등 불교성지를 찾아가 철야기도 및 참배를 올린다. 출발은 오전 6시 30분 을지로 5가. 참가비는 1박2일 동안 4만 5천원.(02)2279-1191

9월 25일 (수)

■서울 법장사 '아함경 강좌'=법장사는 중앙승가대 교육원 교수인 퇴휘스님과 함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마다 초기불교 경전인 아함경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마련했다. 참가비는 4만원(교재비 포함).(02)971-0303

임종앞둔 노인들 보살피기 30년

우리 절 우리 신도

대구 관암사 지장회 김용순 총무



◇김용순 보살(맨 오른쪽)이 지장회 회원들과 얘기를 나누며 활짝 웃고 있다.

72년에 지장회 설립, 자원봉사 앞장

경전공부 열심…사찰일에도 헌신

"누구든지 반드시 한 번은 가야하는데, 그 길을 마음 편히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보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구 팔공산 관암사 지장회 총무 김용순 보살(대자행 · 62)은 나이든 노보살들을 내 몸처럼 아끼며 보살펴 주고, 심지어는 임종까지 지켜주는 자비행을 펼쳐오고 있다. 30년째 이런 활동을 해왔으니, 관암사에서 김 보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관암사의 대표적 신행조직인 지장회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72년. 당시 태고종 13대 종정이었던 관암사 창건주 백암스님이 "신도들이 모여 일심으로 기도하면 성취하는 것이 있을 것"이라는 말에 따라 김 보살을 비롯한 22명의 신도가 노보살들을 보살피자고 뜻을 모았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보살들에게 생활방편을 세워주는 것은 물론, 그렇지 않은 노보살들이라 하더라도 사찰을 오가거나 성지순례를 다니는 등의 신행활동에서 겪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자원봉사자'가 돼 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종을 앞둔 노보살들의 곁을 지키며 말벗이 돼주고, 극락왕생을 발원해주기도 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뜻을 모았던 지장회 회원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22명이었던 회원이 13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회원들의 활동은 오히려 활발해졌다. 지장회 회원들은, 총무보살의 지극한 정성이 있었기에 지장회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지장회는, 회원수는 많지 않지만 관암사 모임 중에서 가장 신심깊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단체로 정평이 나 있다. 김 보살을 비롯한 지장회원들은 30년을 한결같이 관암사 초하루 법회에 참석하고, 매월 음력 10일에는 김 보살의 집에서 모임을 갖고 법화경 사경과 독경을 해오고 있다.

"내게 닥친 모든일을 수행이라고 생각하며 해 왔어요. 오랜 시간 동안 회원들과 같이 생활하다보니 이제는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런 가족들을 보살피고, 세상을 떠날 때 편안하게 가시도록 해드리는 것은 당연한 도리죠"

김 보살이 처음 절에 다니게 된 것은 몸이 좋지 않아 요양이나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관암사를 찾으면서부터다. 하지만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며 마음을 편히 가지고 지성으로 기도하면 병은 자연히 낫게 된다"는 스님의 법문을 들고는 발심하여 '불자'가 됐다.

이후 김 보살은 기력이 없어 법당에 나오지 못하는 노보살들을 살펴 직접 집을 찾아가 그날 있었던 법문 내용을 알려주고, 말벗도 되어주는 등의 지장회 활동은 물론, 매월 초하루마다 열리는 법회에도 아침 일찍 절에 나와 법당청소를 하고 공양간 일까지도 거드는 열성 신도가 됐다.

얼마 전에는 나이를 속이고(?) 해인사 수련대회도 다녀왔다. 지금이라도 하지 않으면 다시는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김 보살은 "30년간 경전공부를 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며 "회원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지장회 모임과 경전공부는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바른 삶을 살기위해서는 어떤 종교든 믿음과 자기반성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말하는 김 보살은 자식들에게도 종교갖기를 권한다. 물론 부처님법을 가까이 한다면 더 좋겠지만 굳이 불교를 강요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언젠가는 '엄마'가 왜 부처님 법을 따르게 됐는지를 이해하게 될 테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처님 아들딸이 되지 않겠느냐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김 보살은 "절에 다니면서 여러 법명을 받았지만 백암스님이 내려주신 '대자행'이라는 법명에 애착이 간다"며 "제 법명처럼 자비로써 남을 돕는 보살행을 계속 하고싶다"고 말했다.

대구=박원구 기자

추천의 말

혜공스님 관암사 주지



김용순 보살과 같은 사람은 다른 어느 사찰에서도 찾기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김 보살은 30년 동안이나 지장회 총무를 맡으면서 임종을 앞둔 노보살을 찾아가 위로를 해주고 경전도 읽어주며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등 가족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시봉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른 신도들은 나이든 노인들과 지내는 것을 꺼리는데, 김 보살은 오히려 노보살들을 극진히 모시기를 자청해 주변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또한 관암사 내에서도 매월 초하루 정기법회는 물론 행사준비, 신도들 상담에서부터 법당 청소, 공양간 허드렛일에 이르기까지 온갖 궂은 일도 마다않고 스스로의 정진에도 빈틈이 없는 보살입니다.

30년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행실수의 자비심을 발휘하며 절에 다니고 있는 김 보살이야말로 이 시대의 참불자라 할 수 있습니다.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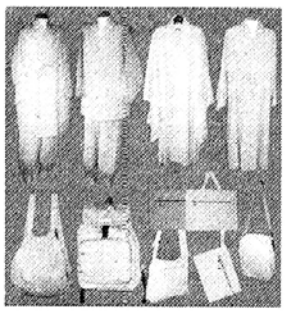
B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 0246178호)

승복 · 법복 · 잠옷 · 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 원 섬 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00
지역 판매점 모집

자랑스러운 우리 태극전사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주)수신오가피 대표 / 성 광 수氏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최근 중국산오가피를 북한산이나 국내산으로 표기하여 적발된 업체들이 물의를 일으킨바 있습니다.
수신토종오가피는 중국산도 북한산도 아닙니다. 오직 국내에서 재배한 국산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서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국내최대재배자 성광수씨가 매주 수요일 오후2시에 직접 농장견학회를 열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놀란 우리 선수들의 지칠줄 모르는 체력!

선진축구의 파워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수신토종오가피가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작은 정성이 우리 선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선수들이 먹는다며 선전하는 오가피제품들이 있습니다.
우리 축구국가대표팀이 먹은 오가피는 '수신토종오가피' 입니다.

사진 확인하셨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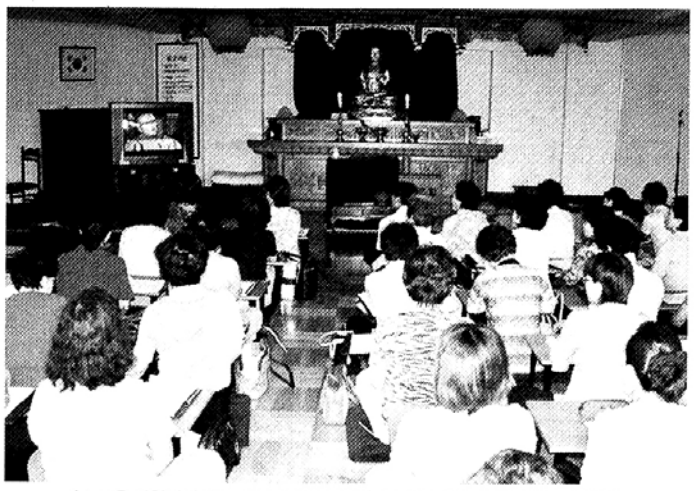
수신토종오가피는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가 재배한 100% 토종오가피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입니다. 품질에 대한 자부심으로 한봉지 한봉지마다 국내최대오가피재배자 성광수씨의 사진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이 없다면 축구국가대표선수들이 먹은 수신토종오가피가 아닙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문의전화 (02)446-4422



불교대학을 찾아서

⑬ 불광불교대학



◇VTR을 시청하면서 동국대 김영재 교수의 불교미술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

佛光운동 모태…79년 임원교리강좌가 효시
교양·기본교육·대학·대학원 4개 교육과정
순수불교 추구…佛法 내면화·체계화 역점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위치한 불광사 불광불교대학(학장 지성)은 1999년에 열반한 광덕 스님이 생전에 주창했던 '불광(佛光)' 운동을 모태로 하고 있다. 즉 부처님의 반야-대지혜 광명으로 우리 자신과 이 사회를 비추어 광명화(光明化)하는 운동인 불광 운동이, 대학이라는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불광불교대학은 지난 3월 개교했다. 그러나 신도교육은 1979년 임원을 대상으로 한 기초교리강좌가 효시다. 이후 신도교육은 1986년 포교원을 건축(법당증축)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준공 기념으로 바라밀 교학강좌가 개설된 신도교육은 '어떠한 차별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배울 수 있도록' 무차법회(無遮法會) 형식으로 진행됐다. 불교대학의 전신인 '명교사 교육'은 1987년에 시작, 1,700여명(10기)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불교대학의 교육과정은 4단계로 나눠져 있다. 즉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양강좌(2~3주, 3개월 마다 실시)와 불자로서의 신심확립을 위한 불자기본교육(3개월, 6개월마다 실시), 전법인재양성을 위한 불교대학(1년, 봄 · 가을), 지도자 양성을 위한 불교대학원(2년, 매년)으로 구분되어 있다.

불교대학에서는 불교교리, 불교역사, 포교방법론, 불교사회복지 등을 배우며 이수자는 일반포교사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교육생은 출석률 70% 이상, 리포트 제출, 의식실기, 논술 각 70%이상 득점을 해야만 수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일 동안 30분 일찍 출석하여 부처님 전에 촛불을 밝히고, 헌향과 다기물을 올리고, 방석을 정리한다. 이는 교육의 일환으로 강제조항이 아닌 내부약속으로 시행된다.

특히 올 9월에 설립된 불교대학원 과정은 '실천수행의 바른 길', '현대사회와 불교 역할', '불교지도자 리더십'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바른 실천을 겸비하기 위해, 유교경, 금강경 육조 · 야보 · 종경 삼가선해, 유식삼십송, 육조단경 등 불전강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불광불교대학의 특징은 그 이념적 지향성에 있다. 즉 어떤 사상성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강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광덕 스님의 가르침인 '순수불교'를 추구하며 '반야바라밀 사상'으로 부처님 당시의 깨달음 자체를 중요시한다. 내가 곧 부처라는 가르침을 신도들에게 내면화시키고 체화시키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다.

불광불교대학은 향후 2년제로 학제를 바꿀 예정이다. 또한 불광의 선배 불자들로 구성된 '교육자원봉사단'과 '교육자문교수단'을 강화해 임원교육과 봉사교육을 위한 교육적 뒷받침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심 포교의 1번지이자 신도교육의 선두주자 불광회. 학장 지성 스님은 "이제는 하드웨어적인 부분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 충실할 때"라고 지적하고 "지난날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학원 과정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02)413-6062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부부가 신행활동
전법포교사 서원

대학원 1기 배광식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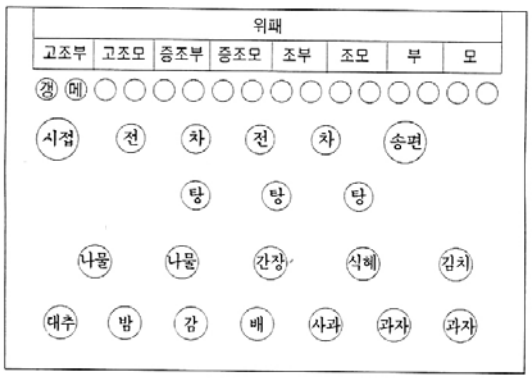


"부부가 같이 신행활동을 하니까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불교대학 대학원 1기 배광식(75 · 종본, 사진) 씨는 10년 전 명교사(현 불교대학) 과정을 이수하고, 현재 불교대학 입문과정에서 교학을 담당하고 있다.

부인 함명희(74 · 자광수) 씨 또한 명교사 교육과정을 마치고 서예사경으로 작품포교 활동을 하는, 부부 신행의 모범을 보여주는 독실한 불자들이다.

배 씨 부부는 "전법포교사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식 제례상 이렇게 차리세요
술·고기류 대신
차·떡·과일로 마련

유교식 제례는 영혼을 위로하는 데 그치지만 불교의 제례는 조상들의 영혼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하여 모든 장애가 소멸될 것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일반적으로 불교제례의식은 차례상에 생명을 존중하는 불교정신에 따라 술과 고기류대신 차와 과일, 떡, 나물 등으로 검소하게 마련한다. 그리고 조상님이 맛있는 것부터 잡숫기 좋도록 진설하면 된다. 차를 올릴 것인가 술을 올릴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 본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의견을 집약해서 차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고 술을 올리던 전통을 지키려는 이들이 많을 경우 숭늉 올리는 때에 숭늉 대신 차를 올려도 좋다. 이는 유교 제사에 '철갱봉차(撤羹奉茶)' 즉 국을 내리고 차를 올린다는 표현이 있는 홀기(笏記)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서도 맞는 일이다.

상차림은 첫줄에 과일과 과자를, 둘째 줄은 나물류와 식혜, 셋째 줄은 채소, 탕류, 넷째 줄은 전과 송편 차(茶), 다섯째 줄은 밥(메), 갱(국)등의 순으로 진설하면 된다. 그리고 차례상 좌우에 국화 등 현란하지 않는 꽃으로 장엄하고, 잔을 올릴 때는 녹차로 한다. 위패, 제물 등 모든 준비가 갖추어지면 향을 사르며 무릎을 꿇고 앉아 제례를 시작한다. 불교식 제례의식의 순서를 간략히 하면 다음과 같다. (각 과정에는 게나 염불이 들어간다)

△입정(조상을 추모하는 한결같은 마음을 지닌다) △십념(十念 : 부처님 명호를 열번 염한다) △봉향찬(奉香讚 : 향을 사르며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다) △정례(頂禮 : 조상에게 절을 한다) △독경(반야심경을 염송한다) △헌다(獻茶 : 영반의 뚜껑을 열고 숟가락을 꽂고 젓 가락을 진수에 올려놓고 난 뒤 제주가 먼저 잔을 올리고 재배하면 차례대로 잔을 올리고 재배한다) △권공(勸供 : 조상에게 진지를 올린다) △가지(加持 : 국을 물리고 숭늉을 올린 다음 숭늉에 밥을 세 번 떠서 정성껏 권하여 올리고 진수에 놓여있던 젓가락의 끝을 가지런히 맞추어 다른 진수에 옮겨 놓은 뒤 제주 혼자 다시 분향하고 잔을 올리면 모두 재배한다) △축원 △염불(수저를 거두고 영반 뚜껑을 닫은 다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삼배한다) △봉송(奉送 : 신위에 하직인사를 올린 다음 위패를 태운다) 등이다.

김주일 기자

〈도움말 법현 동방불교대 교학처장 스님, 이덕진 한국불교장례문화연구회장〉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운동

'후원합시다'

연립주택 지하단칸방 독거 김용례할머니

아들 생이별…평생 응어리

IMF때 운영하던 아동복공장 도산 · 압류
고령에 질병…어머니영정 의존 어려운 나날

젊은이들로 부쩍 대는 서울 돈암동 번화가. 즐비하게 늘어선 옷가게 거리를 등지고 나 있는 뒷골목. 고만고만한 연립주택이 어깨를 마주한다. 그 틈 사이에 자리 잡은 지하단칸방, 일찌감치 쾌청한 가을하늘과는 비껴서 있었다.

'서울살이' 60년. 흔한 말로 산전수전 다 겪고, 3년 전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서울은 13세에 올라왔다. 삼선교 큰 언니네 집에서 얹혀살다 6.25전쟁 통에 잠시 고향 조치원에 내려갔었다. 그리곤 23살, 집안의 중매로 결혼해 이듬해 아들을 낳고, 이혼했다.

김용례(72) 할머니. 여태껏 맘 편하게 하늘을 못 쳐다 본다고 한다. 갓 돌 지난 아들을 빼앗기고 지금까지 한으로 살아온 인생. '어미의 죄책감'은 평생 풀지 못할 응어리가 되었다.

"대학원을 다녔던 남편은 독선적이었어, 올케도 마찬가지였고. 집안에서는 이혼을 반대했지만…, 결국 갈라서기로 했지. 하지만, 남편이 아들의 양육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제대로 저항도 못하고 내주고 말았어."

김 할머니의 전부였던 아들. 보고 싶은 마음에 아들이 다니던 청계초등학교를 매일같이 찾아갔었다. 먼발치에서라도 아들을 보고 와야만 하루를 살 수 있었다. 그러다 몇 년 후 남편의 재혼, 그나마 아들을 볼 수 있는 기회도 없어져 버렸다. 하루하루 지옥 같은 생활. 이제는 살길이 막막해졌다. 미용 일부터 보험회사까지 안 해도 본 것이 없이 다 했다. 오직 아들을 다시 보겠다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살았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건 그 아이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야. 그리움에 사무쳐 평생을 살아왔거든, 한스러울 뿐이야…, 참회하고 살았어, 재혼할 기회도 있었지만, 다시 만나게 될 아들 놈 생각에 차마 그럴 수는 없었어."

1997년 IMF. 김 할머니의 인생을 한번 더 헤집어 놓았다. 그럭저럭 운영하던 김 할머니의 아동복공장이 하청업체의 연쇄부도로 문을 닫게 되자, 가재도구며 모든 재산이 압류돼 길거리에 나앉기도 했다. 그 때 받은 극도의 스트레스는 김 할머니에게 급성당뇨병과 가난만을 안겨다 주었다. 급기야 2년 전에는 합병증으로 오른쪽 눈에 백내장이 와 큰 수술까지 받았던 데다가 요즘은 왼쪽 눈까지 시력이 현저히 떨어져, 재수술을 해야 할 상황이다. 하지만 김 할머니는 보증금 200백만원에 사글세 8만 원짜리 지하방에서 버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처지에 수술은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카네이션과 어머니의 영정사진', 김용례 할머니가 액자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있다.

끝내 울음을 터트린 김 할머니. 어머니 영정 사진으로 시선이 옮겨진다. 카네이션이 달려 있다. 올 5월 어버이날 인근 복지관 재가복지사에게 받았던 꽃이었다. 정작 아들에게 받고 싶었던 그 꽃을 김 할머니는 어머니에게 드렸다. 아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할 때마다 큰 기둥이 되어줬던 어머니, 92년 아흔 한 살에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남은 불쌍한 딸 걱정에 차마 눈을 감지 못했던 어머니였다.

이제는 하얗게 백발이 된 두 모녀, 하염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동선동4가 181번지

전화번호 : (02)923-2267

후원계좌 : 한빛은행 144-07-096739(예금주 김용례)

김철우 기자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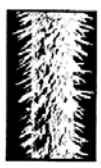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가시오가피


일반오가피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KNS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종교단체 납골당 운영사업을 사업자와 함께
그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할 수 있는 스님을 찾습니다.

1. 장묘 문화의 새바람으로 납골당 건립을 위한 추모공원 조성에 대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8백억원을 들여 경기도에 40만평을 조성하고 있고, LG는 서울에 15만평을 조성 계획중입니다.

2. 종교단체 반야암 납골당은 육.공로의 교통이 편리한 김해 "가야랜드 유원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미 200만평의 전국적인 추모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유원지 내에는 골프장 어린이 놀이터 호수 삼림욕장 운동장등 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3. 납골당 규모는 부지 4,440㎡ 지상에 현재 건축된 건물건평은 99.60㎡에 불과하나 앞으로 허용된 건폐율에 의하면 건평1.322㎡를 건축할 수 있고 여기에 유골 1만 위를 봉안할 수 있어 1위당 300만원씩 계산하면 약 300억원의 소득이 된다할 것입니다.

4. 반야암 부지 4,440㎡는 도지시가만 30억원이나 되는 전국적으로 교통이 편리하고 자연환경이 수려한 곳입니다.

5. 그리고 납골당 건물이 사찰 경내지 동편에 별 동으로 건립 되어 있기 때문에 타종교 단체 신도의 납골시설 이용도 무방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카토릭 광주교구가 1만 4천위 규모의 납골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 위 종교단체 반야암 납골당 운영사업을 사업자와 함께 그일부 또는 전부를 인수 하고저 하는 스님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김해시 삼방동 825-2번지
전화 055)337-0677 / 011-575-6998
반야암운영회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⑭



그림 · 문병성

바람직한 노령화사회

첨단과학의 발달로 의학분야도 첨단의료장비를 갖추게 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점차 연장, 지구촌은 점점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전체 인구의 7.3%로서 지난 5년 사이에 27.7% 늘어난 반면, 생산연령(15~64세)인 청장년층의 증가율은 13%에서 4.1%로 줄어들며 급속하게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직에서 물러난 노년층의 전문적인 노동력을 대사회봉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나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복지 제도는 전무한 상태이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노령수당 등과 같은 노후생활 안정대책이나, 노인건강 관리대책, 그리고 노인을 위한 무료시설, 자원봉사 및 사회참여 기회 확대 등과 같은 사업과 노인을 공경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노령화 사회에 발맞추어 두 가지 노력을 경주할 시기라 생각된다. 첫 번째는 불교계 내부의 문제로 불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층의 노령화 문제이다. 태고보우(1301~1382) 선사는 19세에 만법귀일(萬法歸一) 화두를 타파했으며 몇 차례의 오도(悟道) 후, 46세에 석옥청공 선사의 법을 이었다. 그리고 근세사를 살펴보면 경허성우(1846~1912) 선사는 31세에 오도 후 37세부터 59세까지 전법을 하다 59세 때 강계 지방으로 은거하였으며, 곧바로 그 뒤를 이어 34세의 만공월면(1871~1946) 선사가 선풍(禪風)을 휘날렸다. 그밖에 23세에 오도하신 용성진종(1864~1940) 선사를 포함해 대부분의 선사들이 30대와 40대에 대활약을 펼치며 한국 선종을 이끌어 왔으나, 오늘날 한국의 현실을 돌이켜 보면 총림의 방장 스님들과 선원의 조실 스님들이 대부분 연로하셔서 옛날과 같은 활기를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필자의 견해로는 지금이, 만공 스님의 기량이 무르익던 34세에 모든 것을 넘기시고 은거하셨던 경허 스님의 이 점을 깊이 살펴 다시 활로를 모색해야할 중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사실 불교계의 흐름을 주도하고 계신 총림이나 선원의 어른들이 기

역량있는 젊은 후학들에 일 넘겨야
자비심바탕 복지 질적개선 서둘때

력이 다하기 전에 자연스럽게 역량 있는 후학에게 자리를 넘기면 공석이 되는 일없이 총림이나 선원이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잘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방장'에 해당하는 '관장(해당 종파의 최고 어른)'이란 직제가 있는게 종신직이 아니고 임기제이기 때문에 역량 있는 후학에게 자연스럽게 자리를 넘기도록 되어 있다. 사실 선의 세계에서 입실 지도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인데, 아무리 첨단과학이 발달한다하더라도 입실지도는 조실 스님이 강건한 체력과 선체험을 바탕으로 직접 해야만 한다. 몇 해 전 어느 문중의 젊은 수좌 스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 문중의 조실 스님께 입실 지도는 받고 계신지 물었더니 일년에 한 번 정도 부축 받고 대중에 모습을 보이시기 때문에 입실 지도를 받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있다. 물론 이 어른들이 공식적으로 은퇴한다고 해도, 아직도 활발한 활동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한국 가톨릭의 전 수장이셨던 김수환 추기경처럼, 하셔야할 일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불교계 외부의 문제로 무기력한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노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에 보다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할 때이다. 어떻게 보면 타종교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리고 있는 분야이다. 솔직히 가톨릭과 개신교는 이 분야에서 특히 불교보다 많이 앞서 가고 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는 없다.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타종교계의 좋은 점은 배우면서 불교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면, 양적인 실적 위주보다 깊이 있는 질적인 개선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젊어진 불교계의 어른들이 관심을 가지고 직접 발 벗고 나서신다면 더욱 가속도를 가지고 일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필자가 35세(1990년)부터 지도법사로 있는 선도회(禪道會)의 장래 핵심 계획을 하나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바람직한 청소년 육성과 노인 복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작은 계획이다. 현재 선도회의 대부분 법사들이 정년퇴임할 시기는 15~20년 후이다. 이때를 맞추어 수도권 근처에 다목적 선도회 선원을 건립하는 것이다. 첫 번째는 선도회 법사들이 교대로 상주하며 365일 입실지도가 가능한 선원의 건립이다. 두 번째는 방학을 이용해 정기적인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여 바람직한 청소년 문화 정착에 일조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다양한 전문직에 종사하다 퇴직한 선도회 회원들이 단지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죽음만을 평온하게 맞이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도반들과 함께 머물며, 지속적인 참선 수행과 전문직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이다.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j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육바라밀 실천 더욱 절실

富의 불평등 심화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부의 재분배를 맡아야 할 조세 정책마저 뒷걸음 치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98년 외환위기 이후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이 내려지자 자산소득 부부합산제를 폐지하고 개인별 과세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고액 재산가들이 더 적게 세금을 낼 뿐 아니라 탈세의 길도 더욱 넓어지게 됐다.

또한 아파트 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매기는 과세기준도 현실적인 아파트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격이 낮은 아파트에 대해 오히려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되고 있다. 서민들은 이러다가 우리 사회가 정말 90대 10 사회로 바뀌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게 됐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의 축적을 막을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부자는 영원히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영원히 가난하게 되는 사회 구조이다.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재물을 나누는 것은 단지 물건을 공유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곳간에 인심이 난다는 말이 있다. 보다 살만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불교의 가르침인 육바라밀 실천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재물을 모으되 법답게 하고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이 모은 재물일지라도 사치하지 말고 남들에게 베풀되 법도를 잃지 않으면 살아서 행복하고 죽어서도 천상에 태어나게 된다. <잡아함경>

▨장사를 하고 재물을 모으되 계량기를 속여서 팔거나 그것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다면 죄가 된다. <우바새계경>

▨무리하게 구하지 않고, 분수를 알아 만족할 줄 알며, 남을 속이는 삿된 직업으로 생활하지 않고 다만 법답게 재물을 구하여 법답지 않은 것은 따르지 않는 것을 바른 생활(正命)이라 한다. <사제경>

禪과 21세기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㉖

있는자리 그대로 진실하다

다가오는것 있으면 비추어보라

그대들이 법에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면, 모름지기 대장부여야 가능하지 힘 없이 따라 다녀서는 불가능하다. 예컨대 깨어진 그릇에는 맛있는 우유를 담을 수 없는 것과 같다. 큰 그릇이라야 남에게 속지 않고, 이르는 곳마다 주인공이 되고 선 자리가 모두 진실하게 된다. 다만 다가오는 것은 모두 받아들이지 말아야 하니, 그대들이 한 생각이라도 의심한다면, 곧 마구니가 마음으로 들어온다.

예컨대 보살이라 하더라도 의심할 때에는 생사의 마구니가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다. 단지 생각을 쉴 수 있다면 그 뿐, 다시는 밖으로 구하지 말고 다가오는 것이 있으면 비추어 보라. 그대들이 다만 지금 작용하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아무 일도 없다. 그대들의 한 생각 마음이 삼계를 낳고, 인연따라 나누어져 육진경계(六塵境界)가 된다. 그대들이 지금 작용하는 곳에 무슨 모자람이 있는가?

우리에게 가장 큰 병은 경계를 따라가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경계는 자신에게서 비롯되고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데도,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고 경계만을 쫓아다닌다. 중생이 거꾸로 뒤집어져 있다는 말이 여기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한 폭의 그림을 보고 한 소절의 음악을 듣는다고 하자. 그림과 음악의 존재와 의미가 어디에서 생겨나 어디에 살아 있는가? 우리는 그림이 액자 안에 붙여져 있는 화폭에 있고 그림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여긴다. 또한 우리는 음악이 악기에서 나오고 음악의 화음 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여긴다. 이것이 보통사람들의 의심 없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조금만 살펴보면 이런 생각은 그야말로 근본과 말단을 뒤집은 잘못된 생각임을 알 수가 있다. 어떤 그림이건 보는 눈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며, 어떤 음악이든 듣는 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하지만 보이는 색깔이 곧 '나' 자신인 것은 아니고 들리는 소리가 곧 '나' 자신인 것은 아니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볼 줄 아는 것이 바로 '나'요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나'이다. 볼 줄 아는 여기에서 '나'가 살아 있고 들을 줄 아는 여기에서 '나'가 살아 있다. 이처럼 '나'의 존재는 바로 지금 여기에 살아 작용하는 것이다. 육체가 '나'가 아니라 육체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요, 느낌이 '나'가 아니라 느낌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요, 생각이 '나'가 아니라 생각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요, 욕망이 '나'가 아니라 욕망을 발동시키는 것이 바로 '나'요, 의식이 '나'가 아니라 의식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참된 '나'이다.

'나' 아닌 육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욕망이나 의식은 모두 생겨나고 사라지는 변화를 무상하게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참된 '나'는 그러한 생멸변화와 늘 함께 하면서도 생멸변화 없이 항상 그대로 바로 여기에 지금 '나'에게서 분리되지 않고 있다. 그럼 육체와 의식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는 깊은 잠 속에서 '나'는 어디에 있느냐고? 육체와 의식에는 활동이 있고 정지가 있지만, '나'에게는 활동과 정지가 구분되어 따로 있지 않다. 어떻게 그런가? 잘 살펴보라.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선어록 강좌 안내
부산무심선원·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불교문화원·매달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영어로 배우는 불교용어

불교의 명절 Buddhist Ceremonies

There are special ceremonies for other occasions. The five main Buddhist holidays are richly celebrated each year, according to the lunar calender: the Buddha's Birthday(4th month 8th day), is the main event of the year, the Buddha's Leaving Home(2nd month 8th day), the Buddha's Passing(2nd month 15th day), Enlightenment Day(12th month 8th day), and 'All Spirit's Day' (7th month 15th day)

일반적인 예불 외에 특별한 의식이 치러지는 날이 있다. 음력으로 치러지는 불교의 오대 명절에는 매년 화려한 축제가 열린다. 음력 4월8일은 부처님오신날로, 일년 중 최대의 행사이다. 출가재일은 음력 2월 8일이고, 성도재일은 음력 12월 8일, 열반재일은 음력 2월 15일이다. 우란분절은 음력 7월 15일이다.

Every two weeks, in the day the monks shave their heads and wash and mend their clothes, there is a ceremony and teaching delivered by a senior monk.

격주마다 스님들은 자신의 머리를 깎고 옷을 세탁하고 수선한다. 이날 격주 예불과 큰스님의 법문이 있다.

만세력이 필요없는 책

육임래정비법혁신판

출생년월일시를 물을 필요 없는 책

찾아 온 시간, 전화 온 시간, 가서 만난 그 시간만으로 상대의 용건과 정황과 비밀한 사정을 미리 알아 먼저 말하고 그 방책을 판단해주는 비기서!

육임은 사람일을 밝히는데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그래서「五術之中帝王」이요,「神示」라고도 합니다. 오행(五行)을 몰라도, 이 책 그 날치 한장만 떼 놓고 그 시간만 보면 아래 내용을 미리 알고 먼저 말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차례대로 오거나 같은 시간에 여러사람이 한꺼번에 몰려 오더라도 각기 다르게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 전화 했는지
-. 그 일이 잘 될것인지 안될 것인지
-. 가정이 부유한지 빈한한지 지금 가정에서 무슨 고민, 어떤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 현재 사는 집이 길상(吉相)인지 흉상(凶相)인지 어디로 언제 이사해야 개운될 것인지, 이사하면 언제 발복하게 될 것인지
-. 상대가 이익 줄 사람인지 피해 줄 사람인지 무능인 인지
-. 선한 사람인지 악성인 인지
-. 이미 일이 벌어졌는지 벌어질 것인지 언제 벌어지게 될 것인지
-. 옛날 일인지 최근사 인지
-. 남녀불문하고, 어떤 색정사가 벌어져 있는지 아니면 언제 벌어질 것인지 一男二女 관계인지 二男一女 관계인지
-. 지금 무슨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뗄 수 있는 것인지
-. 현재 누구 산소의 탈을 받고 있는지 어떻게 해소시킬수 있을 것인지
-. 무슨 병인지 고칠수 있을지 없을지 언제 낫게 될 것인지
-. 귀신 병인지 아닌지
-. 수법(천도 시식 굿 부적)을 행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언제 다시 판단해야 효과가 있을지
-. 집(토지)이 팔릴지 안팔릴지 언제 팔리게 될지
-. 시험에 붙을지 떨어질지
-. 선거에 당선 될지 낙선 될지 -. 승진이 될지 말지
-. 돈이 구해질지 어려울지 언제 돈이 될지
-. 임신한 아이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몇날 몇시에 태어날지
-. 경기 승부에 이길지 질지
-. 결혼이 성사 될지 말지 언제 결혼하게 될 것인지
-. 집나간 사람이 올지 말지 언제 오게 될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 도둑이 잡힐지 못잡을지 잃은 물건을 찾을지 못찾을지
-. 이 사람을 채용해야 좋을지 안좋을지
-. 투자를 해서 이익 될지 손해 날지
-. 이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 언제 사고 팔아야 할지
-. 이 산소가 좋은지 나쁜지 후손은 어떻게 살아 갈것인지
-. 무엇을 심어 어떤 결실이 얻어 질 수 있을 것인지
-. 비가 올 것인지 개일지 눈 비 바람이 몇날 몇시부터 오고 불 것인지 등 등 인간사의 모든 길흉성부를 즉시 말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도둑을 잡아 주십시오

도둑놈들이 책을 대량 복사해서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본 책을 개인이 판매하러 다니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본사와 부산지사에서 전화주문으로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개인이 찾아와서 저와의 연고를 빙자하면서 이 책을 싸게 사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조직적으로 대량복사 했거나 도용인쇄하여 팔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본이 아닙니다.
이렇게 책을 구입하셨거나, 개인이 찾아오거나 전화해서 책을 사라고 하는 경우를 겪으실때는 바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 인적사항과 인상착의를 함께 알려 주시면 본책을 한질 드리거나 현금1백 50만원을 즉시 사례하겠습니다.
저는 이책을 쓰기까지 처자식을 헐벗게 놔두고 7년을 산속에서 신음 했습니다.
또, 막대한 제작비를 들여 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지난 2년여에 걸쳐 이 책이 신통하기로 검증이 되어 활인천역동역자 제위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로서 저는 가히 7년의 산생활이 헛되지 않았음을 보람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파렴치한 자들이 저의 책 설명 강의를 몇번듣고 저로부터 육임을 배웠다고 자칭하면서 마치 저와의 인연이 깊은양 말하고 다니며 제가 쓴 책들을 대량 복사하여 조직적으로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의 이 고충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이 사람들을 바로 살게 하는데 협력하여 주십시오.
저의 직통 전화는 02)996-3335입니다. 효사 배상

사주나, 기문이나, 주역이나, 하락이수나 어떤 명리법술도 인사의 구체적 길흉성부 판단에 있어서는 육임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주 10년을 해도 이 책 그날치 한장의 시간별 내용을 밝혀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도(道)를 말 하나, 구체적인 물음에 구체적으로 즉답하지 못하면 진정한 활인천역(活人天役)이 못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문제와 당장의 의문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육임은, 마주치는 그 시간, 전화 온 그 시간으로 상대방의 비밀한 사정과 정황을 즉시 알고 그 문제점과 고민을 바로 해소시켜 줄 수 있게 됩니다. 한두가지의 예를 들자면, 마주친 그 순간에 어떤 귀신의 침해를 받고 있는지, 누구의 산소에서 탈을 부리고 있는지, 무슨 귀신병인지, 고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알고 그것들을 해소시킬 방법을 제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 입시 선거 구재 취직 승진 매매 임신 가출 등등 인간사의 세부적인 것들까지 속시원하게 밝혀 줄 수 있어 진정한 활인천역을 수행 할 수 있게 됩니다. 육임은 딱딱 부러지는 묘미(妙味)가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내심(內心)의 갈등이 없습니다. 이책은 한마디로 염천행로(炎天行路)의 냉천수(冷泉水)같은 것입니다.

바인더차트 每一式
■ 활인전문천역자용
(부록 · 실명비디오 포함)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500,000(휴대용)
●육임래정비법 혁신판 ₩1,300,000(좌정용)
●효사 육임강의록 ₩300,000
●효사 육임비디오 강의수강(총 28개) ₩900,0000

●강의신청「육임학당효사숙」02-998-8683
■ 각종 카드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 주문전화 02-993-8680 ▶ 부산지사 051-851-2349 ▶ 서울강남지사 02-2203-4805 ▶ 입금계좌 : 우리은행 813-041583-13-101 김영란 도서출판 卜問

목어

방생



'일이 잘 풀려 나가지 않을 때 집안에서 발길질 할 수 있도록 자연이 만들어 준, 부드러우면서도 결코 부수어지지 않는 자동인형 같은 것'

A. 비어스의 냉소적이면서 삐딱하기 그지없는 '악마의 사전'에 나오는 고양이 항목의 설명이다. 이른바 애완 고양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구미 선진국에서는 개들 전용 교회, 애완동물 의료보험이 추진되는가하면 전 재산을 애완견에게 물려주는 이도 있고, 드디어는 지난 6월 독일에서 인권에 버금가는 '동물 권리'를 부여하는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그 정도는 아니나 한국에서도 이제 애완동물을 '샀다' 하지 않고 '입양했다'로 표현할 만큼 애완동물 붐이 거세다.

그런데 비어스는 왜 고양이를 집안에서 발길질이나 당하는 천덕꾸러기로 표현한 것일까. 사실 거북한 말씀들만이 아닌 삐딱한 표현에도 진실은 있는 법이다. 기르는 동물을 진정 가족보다 사랑하는 소수의 사람을 빼고, 대부분은 발길질 아니라 내다 버리는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애완동물 천국인 프랑스 파리에 바캉스 철만 되면 주인식구들이 몽땅 놀러 가면서 내다버리는 애완동물들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난다. 한국이라고 다를까. 병들거나 늙으면 버림받는 것은 당연해서 도심 공원이나 인근 녹지 야산에는 슬쩍 내다버려진 병든 애완동물의 모습이나 시체 보기가 어렵지 않다. 그런 동물들이 서울에 연 3천여마리가 넘는다는데, 인간에 의해 사육된 동물들이 자연에 적응하기는 심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애완동물가게 몇 곳만 들러보면 '애완' 아닌 '학대' 현장을 얼마든지 목격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제 '애완'이란 이름으로 동물에 저지르는 죄를 하나 더 추가하고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나온 '방생지침서'를 보면 '무분별한 방생과 생태계에 대한 인위적 간섭'을 경계하는 것으로, 방생에 대한 진입보한 면모를 보여 준다. 여기에 애완동물의 그 '애완'이란 말의 이중성과 실태를 파악하여 애완동물의 방생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 연구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김정자(언론인 · 본지 논설위원)

불자 세상보기

덕수궁터 보존, 美엔 대체 부지를



강임산
'한국의 재발견'
사무국장

미국 대사관측은 오는 2008년까지 아파트와 군인용 숙소, 미대사관 청사를 옛 덕수궁 터 위(현 중구 정동 1-8번지, 1-39번지)에 단계적으로 신축 이전할 계획이라고 한다. 연면적으로 따지면 과거 경복궁 위에 세워졌던 조선총독부의 1.8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 이는 한 마디로 과거 문화유산에 대해 무지했던 우리 정부와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가 한데 맞물려 이와같은 비극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덕수궁의 모습은 원래 규모에 비해 매우 축소된 형태다. 대한제국 시기의 면적에 비해 1/3가량 축소된 규모이며, 건물 칸수로 따지면 1/10 규모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왕조사회에서 궁궐이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국권을 상징했기 때문에 덕수궁을 포함한 대부분의 궁궐들이 일제시기를 통해 분할, 매각 처분되는 등 철저한 수난을 겪었다. 지금의 덕수궁 또한 그 수난의 결과로 남아 있는 모습인 것이다.

과거 일제가 물러간 뒤 미군정을 거치면서 일제에 의해 분할되었던 옛 덕수궁 터에 미국이 다시 들어왔다. 우리로서는 옛 덕수궁터를 회복했어야만 했고, 미국측의 부당한 요구에 단호히 반대입장을 표명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1986년 경기여고가 강남으로 이전하면서 나머지 옛 덕수궁 터 마저 미국측의 소유로 넘어갔다. 서울시와 미대사관 사이에 양해각서가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 양해각서가 뒤늦게 공개되어 시끌시끌하다. 내용을 살펴보니 그간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전형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미대사관 청사를 계획하면서 약 70미터 규모의 15층 건물을 무조건 짓도록 한다는 것과,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고도제한과 같은 규정도 무시되었다. 이는 미국 측의 외교적 편의만이 고려되었을 뿐, 덕수궁을 포함한 주변 역사경관 보호 등 주둔국의 문화주권은 철저히 짓밟힌 결과라 할 수 있다.

미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이와 같은 계획이 미국무성의 주도하에 수립되고 지난 50여년에 걸쳐 추진되어 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어떠한 입장도 떳떳이 내세우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학계, 언론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제기와 반대운동을 하고 나섰지만 미국 측의 입장도 단호하다. 그간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예정부지를 매입해 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궁궐터라도 지표조사와 발굴조사를 거친 뒤 예정대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은 다르다. 과거 문화유산에 대해 무지했던 정부의 잘못을 두 번 다시 반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제라도 그곳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장소이며, 더군다나 매장문화재가 현존해 있는 궁궐터라는 사실을 직시하고, 미국 측에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고 보존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초대형 대사관이 들어섬에 따라 덕수궁을 포함한 주변 정동일대 역사경관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신축이전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의 열쇠는 서울시가 쥐고 있다. 서울시는 더 이상 책임회피로 일관하지 말고, 경자해지 차원에서 책임있는 행정당국의 모습으로 미국측과 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적극적인 조정업무에 나서야 한다. 궁극적으로 덕수궁을 포함한 중구 정동일대의 근대유산 보호를 위해 문화지구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열린마당

문화재정비사업 지자체 발주

문화재청이 2003년부터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발주한다고 발표하자, 불교계가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재청은 국고보조금의 유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불교계는 사찰의 문화재 보수 직영공사를 금지하겠다는 내용으로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설명과 불교계의 반대 의견을 들어본다.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찬성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 중 보조사업자가 보수기술자 등 개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무자격 보수기술자를 고용해 하자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여 집행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지 않는 데서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재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에서 직접 발주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추진방침을 하달했다. 이 경우에도 문화재 수리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하자담보 이행방안을 확정한 후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담당관과 공사감독관, 사업시행자, 설계자 등으로 시 · 군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고보조금의 지급과 정산 등 공사진행 상황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관리토록 했다. 또 기술직공무원을 공사감독으로 임명하여 승인된 설계도대로 시공되었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지급시에는 감독관이 현장에서 자재(목재 등)의 재질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대금을 지불할 때에는 감독관의 현장 확인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침으로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후에도 노임대장, 자재구입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정산서를 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확인하도록 했다.

반대 원행스님 (무주 안국사 주지)



문화재청의 방침과 같이 문화재 보수 국고보조사업이 추진될 경우 사찰의 국고보조 문화재 보수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의 적요을 성, 시행업체에 대한 관리통제 불가능 등으로 현재의 사찰 직영공사로 스님들의 전통적 참여를 배제한 채 문화재 전문보수업자의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시공만 가능하도록 함으로서 기술자, 기능자로서 스님들의 참여를 차단하고, 스님들에 의한 기능개발과 전승을 가로 막는 것이다.

불교사상과 이념에서 우러나오는 정서적 감응이 있어야 예술적 가치가 있는 조형물이 창출되고, 이 가치는 역사적 과정을 통해 문화재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비용 투명한 회계처리위해 불가피

재청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을 직접 발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민간에서 직접 발주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하는 추진방침을 하달했다. 이 경우에도 문화재 수리업체와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서에는 하자담보 이행방안을 확정한 후 계약을 체결토록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자체 담당관과 공사감독관, 사업시행

사찰문화재 보수 창출주체가 해야

방식보다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문화재는 국민들의 여가와 정서함양에 있어 외부경제 효과가 매우 높은 공공자산이다. 이를 특정개인이나 단체의 자비에 의존해서 공공적 가치를 부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모든 사찰의 문화재는 스님과 불자들이 종교적 행위와 수행의 대상으로 손수 조성한 것이다. 문화재청의 직영공사 배제방침은 경제논리와 상업주의, 관료주의적 발상으로 영리적 접근에 의한 문화재의 가치 지속과 창출에는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 결과 현재 문화재의 보수는 곧 훼손이라는 등식과 인식의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높은 정신적 가치 실현 과정물인 사찰문화재는 반드시 사찰직영공사에 의해 사찰과 스님들의 참여로 자기책임성을 갖게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정책적으로 스님들이 사찰문화재 보수 유지의 기능과 기술자적 입장이 되도록 육성하고 배려하여야 한다.

독자투고

'9·11' 아직 끝나지 않았다



9 · 11 테러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다.

수많은 생명과 재산을 파괴하여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공포 분위기와 경제피해를 가져다 준 9 · 11 사태는 가해자의 목적이나 명분에 상관없이 비인간적이며, 폭력적 수단은 합리화 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대응도 일방적 · 폭력적으로 진행돼, 분열과 증오를 부추기고 있다. 갈등과 보복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는 것이다.

고통받는 이들의 입장에 서서 공감하고 함께 해결하려는 공동체정신이 요청되고 있으며, 참회와 용서, 화해와 사랑 없이는 지구 전체에 근본적이고 영구적인 평화와 복지는 이룩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9 · 11 사태의 처음 피해자는 미국인들이었지만, 그 이후의 피해자는 일부 가해자 그룹 뿐만 아니라 그 주위의 양민과 나아가 세계인 모두이다. 이제 피해자는 가해자로 변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강자의 논리를 고집하는 미국의 대응은 평화를 지향하는 인류사에 비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아와 질병 및 주거시설의 불편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천문학적 비용을 들여 전쟁을 수행한다면 우리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다.

관련 당사자들의 이성적 판단으로 더 이상의 희생을 줄이며, 기존의 인간과 지구의 상처를 치유하고, 평화와 정의 및 사랑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진월(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대표)

불자의 생각

불교달력 사용



불자들은 대부분 가정이나 직장에서 불교달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9명이 동참한 붓다뉴스네티즌 설문조사 결과 117명(90.7%)이 불교달력을 사용한다고 응답했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2명(9.3%)에 불과했다.

"가정 · 직장서 사용" 90.7%

불교달력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에 대해 49명(38.0%)이 불자라는 자부심을 느낄수 있어, 40명(31.0%)이 보면서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길수 있어서, 25명(19.4%)이 음력을 보려고, 15명(11.6%)이 사진(그림)이 좋아서 라고 답했다.

김두식 기자

송광사 가을 학술회의

원감국사 충지(沖止)의 생애와 사상

조계총림 송광사는 한국불교사상 가장 많은 고승들을 배출해온 승보종찰로, 지금도 여법한 출가수행들의 상주처이며 세상의 귀의처입니다.

송광사는 해마다 가을에 대덕 석학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열어 이 산문 출신의 고승들이 남기신 거룩한 자취를 조명하고 이를 통해 불교적 사회인식을 제고하고 현대인들의 삶에 좌표로 제시해 왔습니다.

올해는 송광사 16국사 가운데 제 6국사로 원감국사(圓鑑國師) 충지(沖止) 스님의 다선(茶禪)사상을 조명하는 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원감국사에 대해서는 이미 송광사가 지난 해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원감국사의 유물인 원대(元代) 티베트 문서를 규명하여 당시 동아시아 교류에 대해 새로운 학설을 제시해 학계의 주목을 끈바 있습니다.

13세기 고려시대의 송광사 선풍을 오늘에 재 조명하는 올 학술회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학술회의 일정 =

기조강연 :
고려 선종과 송광사 / 민영규(연세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
- 원감국사의 생애와 사상 / 김영태(동국대 명예교수)
- 원감록을 통해본 원감국사의 국가관 / 진성규(중앙대 사학과 교수)
- 원감국사의 유적유물에 관한 고찰 / 최인선(순천대 사학과 교수)
- 원감국사의 차시에 관한 연구 / 박완식(전주대 교수)

▶ 일 시 : 불기 2546년(서기2002) 9월 29일 9:00~16:00
▶ 장 소 : 승보종찰 조계산 송광사



◆ 원감국사 진영

대한불교 조계종 승보종찰 조계총림 송 광 사 주지 현봉 합장



◇노르웨이의 고문서 수집가인 마르틴 쉐이엔이 소장한 불교 고문서들. 대부분 종려나무 잎이나 자작나무 껍질에 쓰여졌다.

아프간 불교 고문서 1만점 서방 유출

노르웨이 수집가 1300억에 소장물 매물로 내놔

最古 불경 포함 AD 1~6세기 문서 주류

탈레반 피해 숨은 동굴서 발견 빼돌려

탈레반 정권 통치 시절 아프가니스탄에서 국외로 유출된 불교 관련 고문서가 1만여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저명한 고문서 컬럭터인 노르웨이의 마르틴 쉐이엔이 최근 자신의 소장품 모두를 매물로 내놓으면서 드러난 것.

그 중에는 '불교의 사해문서'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AD 1세기 경의 고문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는 대체로 1세기~6세기 쓰여진 문서들이 주류인데 그가 원하는 가격은 7천만파운드(약 1천3백억원)이며, 가급적 노르웨이 정부가 사들이기를 희망하고 있다. 쉐이엔은 이 돈을 기금으로 인권운동을 벌일 뜻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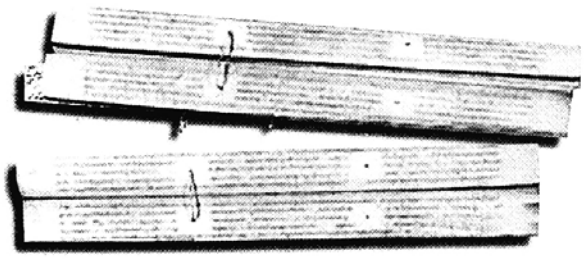
불법 유출된 문화재이기 때문에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지난해 탈레반 정권이 바미안 석불을 파괴하는 만행을 목격한 터라 비난의 목소리가 그다지 높지는 않다. 오히려 학자들 사이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정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노르웨이에서 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쉐이엔 라이브러리'의 경우 지금까지 학자들에게 소장품을 접할 기회를 주는 한편 귀중한 소장품들을 책으로 엮어왔는데, 그런 노력이 높이 평가받아 학계의 반발이 적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아직 정확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이 문서들도 몇 년 안에 모두 10권의 책으로 묶어진다.

쉐이엔 라이브러리는 성명을 통해 "불교관련 고문서들을 책으로 묶는 작업을 끝내고 아프가니스탄에 평화와 질서, 종교적 관용이 정착하는 대로 돌려줄 용의가 있으나 아프가니스탄의 역사를 분석해 볼 때 불행하게도 앞으로도 아프가니스탄은 이 문서들을 보관할 적절한 장소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고문서들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96년이었다. 탈레반 정권에 쫓겨 바미안 지역까지 밀려난 사람들이 낭떠러지 곳곳의 동굴로 숨어들었다가 거기서 고문서들을 우연히 발견해 파키스탄으로 빼돌렸다고 한다. 그것이 다시 영국의 전문가들을 거쳐 지난 7월까지 모두 열다섯 차례 쉐이엔 라이브러리로 들어갔다. 온전한 형태의 불경이 8권이며 그 중에는 세계 최고(最古)로 추정되는 불경이 들어 있는데, 대부분 종려나무 잎이나 자작나무 껍질에 쓰여졌다.

해외불교 담당=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미국 워싱턴대학이 해독하고 있는 1세기경 아비달마 필사본.

"간다라 지역 최고 경전 아비달마 필사본 해독중"

미국 워싱턴대학이 자작나무 껍질에 쓰여진 필사본 경전을 해독중이라고 'The Buddhist News Network'가 5일 보도했다.

이 필사본 경전은 간다라지방 고대어인 간다리(Gandhari, 산스크리트 파생어)어로 기록돼 있으며, 워싱턴대가 개인 소장가로부터 사들인 것. 워싱턴대는 아비달마(論藏) 주석서 중 가장 오래된 판본으로 알려진 이 필사본의 75%를 몇주내에 해독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25%는 상당기간 동안 해독이 어려울 것이란 판단이다.

브리티시 도서관과 공동으로 '초기 경전연구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워싱턴대는 1994년 브리티시 도서관이 간다라지방에서 발견한 또다른 판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아비달마의 변천과정과 초기 사원의 교육내용 등을 상세히 밝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달라이 라마 특사 中 고위인사와 회담

동방일보 보도

중국으로부터의 독립보다는 자치를 열망하는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특사 2명이 9일과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자치 허용, 달라이 라마 귀국 등을 의제로 하는 비밀 회담을 가져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었다고 홍콩의 동방일보(東方日報)가 10일 밝혔다.

동방일보는 로디 기알첸과 켈상 기알첸으로 알려진 워싱턴과 유럽 연합의 티베트 망명 정부 대표들이 9일 베이징에 도착, 중국 관계자들과 접촉을 가졌다면서 회담의 최종 결과에 따라서는 40여년만에 달라이 라마의 귀국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어 인도의 망명 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 본인이 지금까지의 회담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것 같다고 전하고 특사들이 베이징 회담을 마친후 티베트의 라사를 방문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만 자제인의회 회원 170여 의사들은 지난 7월 화련시에서 무료 질병 진단 및 치료봉사에 나섰다.

"병 · 사람 · 마음을 치료한다"

국제자제인의회, 세계 빈곤층 환자 치료캠페인

'병, 사람, 마음을 치료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10개 국 20여 진료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자제인의회(慈濟人醫會, TIMA)'가 지난 달부터 '미국 자제인의회'를 중심으로 전세계 자제인의회의 빈곤층 환자를 위한 자비 의료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각국 인의회는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정해 장기 의료진료를 확대하고 있다. 대만, 미국, 파라과이, 도미니카, 필리핀, 인도, 싱가폴, 말레이시아 등의 지역에서 동시에 1천명 이상의 의료진이 동원돼 2만여명 이상의 가난한 환자들에게 의료봉사를 실시할 전망이다. 국제자제인의회가 동원한 역량이외의 진료성과는 9월 하순 대만에서 열리는 국제자제인의회 정기회의 세미나에 발표될 예정이다.

1996년 창립된 국제자제인의회(Tzuchi International Medical Association)는 대만 자제공덕회 회주 증엄스님의 '의료 보편화' 이념에 따라 구성된 봉사단체다. 현재 2천여 회원들이 활동중이다.

고침 386호 10면 '한마음선원 뉴욕지원 호스피스 활동' 기사 중 '계약'을 '구두 계약'으로, 서비스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임종을 6개월여 앞둔 한인'으로 바로잡습니다.



http://www.sunjaeavatar.com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경험이 바뀐다

당신은 정그런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원하게 웃는 삶을 살 가를 원합니까?
아니면 폐달음을 원합니까? 울고 웃는 얼굴은 누가 만듭니까?
당신은 얼마든지 자기 뜻대로의 얼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치않는 신념은 지우고 원하는 신념을 정리하여 변화된 삶을 만드십시오.
당신의 신념이 바뀌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바타 코스는 당신을 뜻대로 사는 길로 안내합니다.

특히 병든한 삶을 원하는 분은 그림을 거꾸로 봐 주세요

선재아바타 센터
☎ 02-362-3647 ☎ 018-206-3647 E-mail : avatarsunjae@yahoo.co.kr
주소 :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동 114-1 북아현현선 2동 502호



이거룡교수의
스리랑카 불교 기행

글 싣는 순서
① 삶과 종교의 일치
② 야자수 잎에 새긴 불법, 패엽경(貝葉經)
③ 숲 속의 수행자들, 아란야(Atanya) 전통
④ 살아있는 부처님, 보리수

불교는 길의 종교다.

출가 유행(遊行)의 삶은 불교가 추구하는 '길'의 전형이다.

스리랑카 곳곳의 숲 속에는 지금도 초기불교의 유행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 아란야 사나세나(Arañña-senasena)라고 일컬어지는 이 전통은 '대중과 호흡하는 불교'와 함께 스리랑카 불교의 또 다른 한 축이다. 아란야의 수행자들은 숲 속에는 주로 천연동굴이 많은 지역에서 시작되었으나, 지금은 도시 근교에 자리잡기도 한다. 또한 이전과는 달리 반드시 동굴에 머무는 것도 아니며, 전통적인 양식의 암자를 조성하여 지내기도 한다.

숲 속의 수행자들은 탁발을 위하여 바깥 세상과 잠시 만날 뿐, 오직 수행에만 전념한다. 탁발을 하지만, 재가자들이 있는 마을까지 가지는 않는다. 정해진 시간에 장소로 내려오면, 재가자들이 준비해온 음식을 보시한다. 음식을 받은 수행자들은 곧장 수행처로 돌아간다. 탁발은 무소유를 실천하는 수행자의 상징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아란야의 수행자들은 이른 아

초기불교 아란야 전통 … BC 1세기 시작

탁발때 이외엔 대중과 접촉 일체 삼가

침부터 밤까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한다. 물론 외적으로 가해지는 특별한 규제는 없다. 간섭하는 사람도 없다. 주로 위빠사나 수행을 하며, 아란야 사나세나의 동굴 앞에는 으레 경행(經行)을 위한 장소가 마련되어 있다. 매 월 초하루와 보름 등 4번의 포살(布薩)이 있으며, 보름날은 재가불교도들이 수행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제 숲 속의 수행처도 예전 같지가 않다고 한다. 머잖아 아란야 사나세나도 그리운 것이 되어 산 뒤에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동국대 연구교수
(BK21 불교문화사상사교육연구단)



◇'콜롬보 부근에 있는 아란야 사나세나의 수행자들'

불교인들의 만남, 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연구원

안녕하세요
8월의 태풍으로 아픔이
우리들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고있습니다.
굳거니 희망과 용기를 갖고
일어서십시요.
내일은 행복한 시간들이 또한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은 가을을 향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인연의 사람과 현대에서...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원장 이영숙 합장

> 위 치 안 내 <
1호선 무천역 하차 북부역 광장
우측 서울 방향 첫번째 골목으로
150m정도 직진 희원오피스텔 202호

※ 방문전 전화 약속

■ 大卒, 초 · 재혼 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 바랍니다.

※ 인생문제 특별상담합니다!!

현 대 결 혼 연 구 원
원장 이영숙 (법명 : 無生子)
사무실 : 032)654-5411
휴대폰 : 011) 288-2944

불교의식(범음 · 범패), 기타
학 인 모 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 육 과 정
1. 의식과정(속성과정) : 기본과정, 중급과정
2. 작 법(속성과정)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게, 다게작법(나비춤)
※ 단 작법과정은 의식과정의 기본과정을 수료내지, 동등자격자
3. 사물(12개월) : 태평소(호적)

■ 모 집 인 원 : 각 반 20명(선착순)
■ 원 서 접 수 : 수시모집
■ 제 출 서 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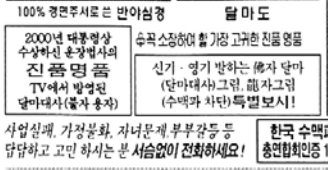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光彩'의 氣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반야심경 8폭 병풍 후면 단마그림 특별 할인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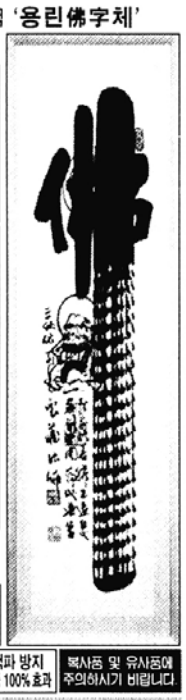


100% 경면주사로 쓴 반야심경 달마도

2000년 대통령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붓자 용자)

승목소장하여 함 가장 고귀한 진품영품

신기 · 영기 방하는 佛자 달마 (달마대사그림, 語자그림 (수맥과 차단)특별보시!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담담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인증 100% 효과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명의 전화 : (033) 766-0057 FAX (033)766-0058
www.korea-art-gallery.org E-mail unjang21@kornet 21. net
※오방의 기가 강하게 흐르는 덕회산 운장사 원만성취 영험기도도량

● 주문신청방법 우체국 201509-01-002545 운장사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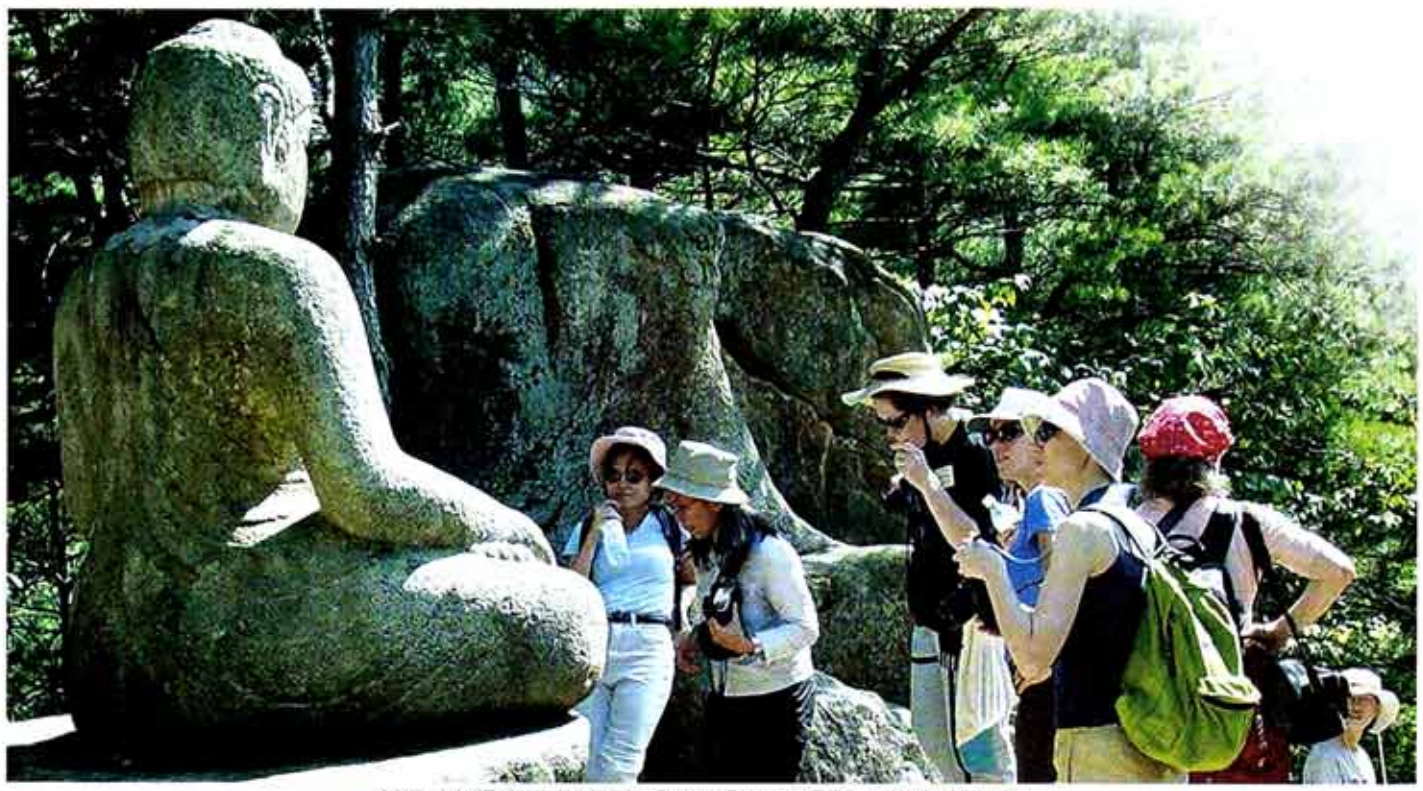
영험기도도량 雲藏寺 운장선원
韓國佛教藝術文化院



www.bbsradio.co.kr FM 89.9 MHz
BBS 부산불교방송

"한국불교미술 원더풀! 원더풀!" 외국 큐레이터 워크숍 현장

세계 7개국 23개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한국예술품을 담당하고 있는 23명의 외국 큐레이터(curator, 학예연구관·박물관 미술관의 유물보존 관리에서부터 전시 기획 홍보를 총괄하는 사람을 지칭)들이 한국 불교미술을 공부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아왔다. '제4회 해외 박물관 큐레이터 워크숍'이 '한국의 불교미술'을 주제로 3일~13일까지 경주 남산·불국사·통도사·송광사·부석사 등 우리 불교문화의 중심지에서 열렸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 박물관에서 한국실(또는 한국 코너) 운영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큐레이터들의 한국 미술·문화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이 행사는 1999년 '한국의 고미술'을 시작으로, 2000년 '한국의 회화', 2001년에는 '한국의 도자기'를 주제로 매년 진행돼 왔다.



◇경주 남산 냉골석조여래좌상 앞에 선 큐레이터들이 불상의 곳곳을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다.

"귀국하면 관람객들에게 한국불교미술 정확히 소개"

통도사 성보박물관

"와— 원더풀!" 6일 오전 통도사 성보박물관 문화센터 강의실. 찰칵 찰칵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마다 큐레이터들의 짧은 탄성이 이어졌다. 어둠 속에서 고려시대의 석가여래, 아미타여래, 수월관음보살의 신비한 미소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이날 강의 주제는 '고려시대의 불화'. 큐레이터들은 사용된 안료가 광물성인지 식물성인지, 고려시대 불화가 조선시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 한국실 담당 큐레이터답게 전문적인 질문을 연신 이어갔고, 강사로 나선 정우택(동국대)교수의 설명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빠른 손놀림으로 열심히 받아 적었다. 정교수는 "고려시대의 불화들은 공간을 가득 채우는 특징과 함께 무늬가 주가 된다"면서 "오늘 강의가 고려시대 불화를 가장한 가짜를 구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큐레이터들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하는 등 강의는 진지하면서도 유쾌하게 진행됐다.

'조선시대의 불화'를 주제로 한 오후 강의에서도 큐레이터들의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질문은 계속됐다. 특히 미국 디트로이트 미술관 아시아미술 큐레이터인 로리 반즈씨는 미술관에 소장된 불화 사진을 가져와 강사에게 직접 보여주며 작품의 연대와 국적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도 했다.

91년 문열 열었던 한국실을 내년 1월 확대 재개관할 예정인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의 린다 최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간 재미교포 2세. "재개관 준비에 바빠 수석 큐레이터에게 억지를 써 어렵게 참가했는데 너무 너무 많은 걸 배우고 간다"면서 "오늘 배운 고려불화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박물관에 소장돼 있는 시왕도를 다시 살펴 보고, 연구해 관람객들에게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와 조각에도 세심한 관심
"신라인들 신앙심에 큰 감명"

경주남산유적 순례

"여기 작은 구멍은 무엇인가요?"
"이 부처님의 수인은 어떤 의미지요?"
"불상 가운데 코가 없거나 머리가 없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득남을 위한 민간 신앙 때문입니까?"
"남산의 이렇게 많은 불상들을 누가 어떤 이유로 조성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습니까?"

8일 경주 남산. 산을 오르느라 벅찬 숨을 들이마시면서, 큐레이터들은 상기된 얼굴로 안내자인 김구석씨(경주 남산 전문가)에게 연신 질문을 쏟아냈다. 경주 남산의 문화재들은 이미 책이나 슬라이드를 통해 여러 번 보아온 것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오늘처럼 한국의 불상을 가까이서 살펴보기는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로 산을 오르기에도 힘이 들었지만 큐레이터들은 남산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작은 기와 조각하나에도 세심한 관심을 보였다.



◇경주 남산 전문가 김구석씨의 설명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외국 큐레이터들.



◇통도사 관람을 마친 큐레이터들은 통도사성보박물관 관장 범하스님과 잔디밭에 앉아 다담을 나누기도 했다.

미국 필라델피아 미술관 동양미술 큐레이터인 펠리스 피셔씨는 "이 험한 산 속에 이렇게 아름다운 조형물을 창조해 낸 신라인들의 신앙심에 경의를 표한다"면서 "남산 일정은 생각보다 힘들어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김구석 선생님의 재미있고 생생한 표현이 오래도록 남산을 기억하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워크숍의 준비와 진행을 총괄한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유승은 씨는 "불교미술을 빼놓고는 한국 미술을 이해했다고 말할수 없다는 해외 큐레이터들과 자문단의 요청으로 선택된 주제였던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참가자들의 열의가 뜨거웠고,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은자·천미희·박원구 기자

17개국 50개 박물관에 한국실·한국코너 개설

1980년 이전까지 15개에 불과하던 해외박물관의 한국실은, 90년대 들어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98년 6월 개관), 영국 대영박물관(2000년 11월 개관), 프랑스 기메박물관(2001년 1월 개관)등 세계 3대 주요 박물관을 비롯 현재 총 17개국 50개 박물관에 한국실 또는 한국코너가 설치되어 있다. 앞으로 미국의 피바디 에섹스 박물관과 샌프란시스코 동양박물관 등이 2003년 한국실을 개관할 예정이다.

"한국 불교미술·문화재 영문번역 서둘렀으면"

살롯 홀릭 英 박물관 큐레이터



"사진이나 책에서만 보던 불국사, 분황사, 통도사, 송광사, 부석사 등 한국의 사찰과 그 속에 담긴 한국 불교 미술을 직접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한 살롯 홀릭(영국 빅토리아 & 알버트 박물관 한국 미술 큐레이터)씨의 말이다.

살롯은 일본과 동양 예술로 석사학위를 받고, 최근에 '고려시대 동경(銅鏡)의 의미(The significance of bronze mirror in graves of the koryo period)'를 주제로 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영국의 한국 문화 전문가.

현재 런던대학에서 고대미술사를 강의하고 있는 살롯은 "이번 워크숍에서 배운 한국 불교미술에 대한 지식은 박물관의 한국관 운영에는 물론, 제 강의에도 반영되어 영국인 제자들에게 전해 질 것"이라면서 한국 불교 미술과 문화재 등에 대한 영어 번역 작업을 서둘러 해외 박물관에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서울 이화여대 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동아시아 불교미술' 세미나 현장.



◇통도사 성보박물관에서 괘불탱 그리기에 푹 빠진 신시아 보걸 워싱턴대 미술사학과 부교수.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야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일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데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협압, 암등 각종 장기의 염증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이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효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폴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



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⑬ 여래수량품 제16

두분의 석존

세 번째로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양약(良藥)을 병든 아들에게 남긴 채 여행길에 올라 객지에서 "죽었다"고 알리는 명의인 아버지라는 석존과, 아이들이 완쾌된 것을 알고 귀국하는 아버지라는 석존과는 '다른 차원의 석존'이라는 점이다. 참으로 이 비유는 육체를 가진 역사상에 존재하는 유한(有限)한 생명을 가진 인간 석존과 육체를 갖지 않고 역사를 초월하여 영원한 진리(法, 법) 상징으로서의 석존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구원(久遠) 실성(實成)의 석존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석존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생신(生身)의 석존에 대한 신앙에서 진리를 몸으로 하는 고차원적인 석존에 대한 신심(信心)으로 몸을 바꾸(轉身, 전신)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의사와 아들의 비유'에 가득 채워져 있다. 즉 인격적인 석존 신앙에서 법(진리)인 석존에 대한 신심을 권장하는 가르침이 이 비유에 설해져 있다. 〈법화경〉의 설정에 의하면 이때의 석존은 여든 살에 가깝고 입멸 직전의 시점으로 마가다국의 수도인 라자그리하(왕사성) 밖에 있는 영축산에서 이 '수량품'을 설하고 있다. 석존으로서는 유한한 자기에 대한 인격신앙에서 자기가 깨닫고 또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법신심(法信心: 진리를 믿는 마음)으로 차원을 높이는 가르침을 설하는 것이 마땅히 최후의 설법이어야 한다고 결심한 것이다. 이 심원(深遠)한 사상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선 '의사와 아들의 비유'를 설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죽지 않은 아버지를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문제가 남는다. 석존과 제자들은 이 점에 대한 다음과 같이 문답을 한다.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의사가 방편을 사용한 것을 거짓말 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겠는가?" "아닙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고 제자가 대답하자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나도 아득한 옛날에 성불하여 지금까지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하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 그대로 말한 것이어서 거짓말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한다. 이처럼 〈법화경〉에는 두 사람의 석존이 등장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한 사람은 말할 필요조차 없는 역사상의 석존이다. 대승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 육체를 갖춘 역사상의 석존을 '사(事實, 사실)의 석존'이라 하여 공경하고 이 사(事)의 석존이 깨달은 법을 '이(眞理, 진리)의 석존'이라 하여 신심의 대상으로 삼는다. 사의 석존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므로 우리들과 똑같이 멸하는 시간적인 존재이다. 지금 석존께서는 "나는 죽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진리 그대로를 말한 것이어서 거짓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그대로이다.

이(理)의 석존은 사(事)의 석존과는 달리 육체가 없으므로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생불멸의 구원(久遠)한 존재이다. '또 한 분의 석존'이란 이 불멸의 이(理)인 석존을 말한다. 이렇게 사의 석존과 이의 석존이 같은 '석존'이라는 이름으로 〈법화경〉을 설하고 있다. 이 사(事)와 이(理)라고 하는 두 사람의 석존에 대한 관계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예를 들면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은 1643년에 태어나 1727년에 사망했다. 그러나 인력은 뉴턴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뉴턴이 사망한 후에도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한다. 여기에 임시로 인간 뉴턴을 '사의 뉴턴'이라 하고 그 만유인력을 인격화하여 '이의 뉴턴'이라 부른다면 어떠할까. 두 사람의 석존에 대한 관계와 내용이 서로 다름도 이해될 것이다. 이(理)의 석존은 법의 인격체이므로 '법신불(法身佛)'이라 한다. 이 법신불은 모습이 없으므로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수량품〉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법신불인 석존이 눈에 비치는 인간인 석존의 모습(相, 상)으로 나타난(應, 응) 것으로 믿어 사(事)의 석존을 '응신불(應身佛)' 또는 '화신불(化身佛)'이라 부른다. 응신이란 몸을 나타내는 것, 화신은 법신이 육신으로 변화하는 것을 뜻한다.

중국의 천태는 이(理)의 석존, 즉 법신의 석존을 본지(本地: '근원'이라는 뜻)의 부처님으로서 '본문(本門)의 석존'이라 하며 '문(門)'이란 총합(總合)이라는 뜻으로 모든 진리나 가르침이 본문의 석존으로 통일·총합된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본문의 석존을 신심(信心)의 대상으로 삼는다. 또 천태는 사(事)의 석존, 즉 역사상의 석존을 '적문(迹門)의 석존'이라 하는데 '적(迹)'이란 인간으로 나타난 모습이라는 뜻이다. 법신의 석존·본문의 석존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인격 신앙이나 수상숭배를 초월한 '수량품'의 사상적인 깊고 오묘함이 여기 있다.

▩무설정사 조실

事의 석존 육체가진 유한생명 존재

理의 석존 불생불멸 구원의 법신불

도올 김용옥씨가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책에서 참선하는 스님들을, '아편쟁이들이 아편으로 도달하는 경지나 술꾼들이 술로써 도달하는 경지 등과 유사하다'고 표현했다. 또 오슬로대학의 박노자 교수는 스님들이 참선만을 중요시하고,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는 사회적 봉사에는 등한시한다며 '하화중생없는 한국선' 제목의 기고를 통해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불교계 밖에서 나오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대표적 선승의 한 사람으로서 어떠한 설명을 하실지 궁금했다.

"봉사는 남한테 도움을 주니까 장려해야 하고 참선하면 남한테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얘기는 불교에 대해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불자 아니라도 착하게 살고 남 도와주는 이들 많아요. 그렇다면 불자는 무어냐. 자기 비우는 공부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비워 부처님 법에 계합시키는 것이 불교입니다. 나를 비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다보면 어떤 일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그 하는 일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가치있고 의미있는 일을 하기에 그 일이 즐겁습니다. 그러니 남을 돕는 일이나 봉사도 의무가 아니라 신이 나고 보람찬 일이지요. 착한 일을 하더라도 자기를 비우는 데까지 나아가야 불자라고 할 수 있어요."

고우스님도 김용옥씨가, 산중에 가부좌 틀고 참선에 열중하는 스님들과 저 태릉선수촌에서 선수들이 땀을 흘리며 열중하는 것과 무어 다를 것이 있느냐고 말한 기사를 읽으셨다고 했다. 스님은 그사람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지적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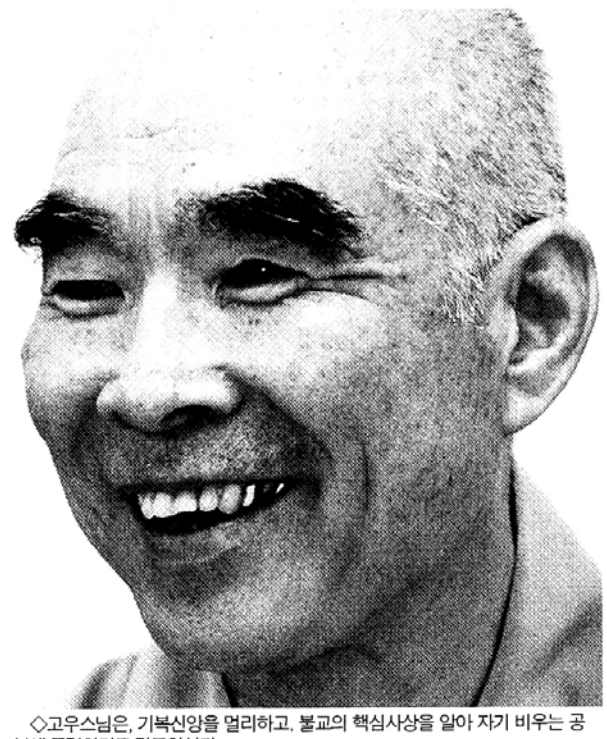
"불교는 자기 비우는 수행이 요점이예요. 자기를 계속 비워서 간단(間斷)없이 지속해 가는 수행을 삼매(三昧)라고 합니다. 삼매를 통하지 않고는 깨달음이 올 수가 없어요. 삼매란 '자기 비우는 의식이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부처님은 당신이 깨달은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형상이 있거나 형상이 없거나, 모든 존재는 연기로써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연기를 보는 사람은 법을 보고 법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부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도 모든 만물이 연기로써 존재했었고, 태어난 후에도 그렇게 존재해 있다. 여래가 멸한 후에도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 그것을 보는 사람은 여래를 본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깨달았다는 것은 연기를 깨달았다는 말이예요. 연기 원리를 몸으로 체험한 사람을 '도인(道人)'이라 그러지요. 스님들이 산속 도량에서 공부하는 것은 그 연기를 깨닫기 위해서 입니다."

수행의 결과가 어찌 수행자 자신에게만 이득이 될 수 있으랴. 달은 하나지만 천강(千江)에 비쳐 천개의 달이 빛나듯 한사람의 수행력이 수많은 대중들에게 회향되어 정신적인 혁명을 일으키게 할 수 있으니 말이다. 고우스님은 기복신앙을 멀리하고 자기비우는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강조하신다.

"우주만물의 존재 원리인 연기법을 알아 그 진리에 따라 생활하는 것을 도(道)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게될 때 이기심이 없어지고 저절로 공심(公心)으로 살게 되지요. 요즘처럼 이기심과 경쟁이 만연된 사회에서 불교야 말로 수행을 통해 불국토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대안입니다. 산속에 앉아있는 것보다 저자거리에 나가 선행(善行)을 하라는 얘기는 불교를 모르고 하는 이야기지요. 보통 사람들은 선행을 노력이나 의지로 하고자 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수행을 해 연기의 이치를 체험하게 되면 선행이나 봉사라 따로 얘기할 것도 없어요. 자동으로 행위 자체가, 나도 즐겁고 남에게도 좋은, 선행이 되고 봉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참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참선이 어렵다고들 야단이다. 오랜 기간

자기 비우는 공부



◇고우스님은, 기복신앙을 멀리하고, 불교의 핵심사상을 알아 자기 비우는 공부에 주력하라고 강조하셨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도 공부진척도 없고 망상만 피어오른다는 사람도 꽤 된다. 왜 어려울까.

"절에만 오래 다니면 뭘해요. 부처님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법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있는데. 부처님은 그 법을 깨닫기 위해 태자 자리도, 왕궁도 내버렸어요. 일체의 세속적인 모든 부귀영화를 버렸지요. 그만큼 이 법의 가치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속적 행복의 조건들을 버릴 수 있는 가치있는 것이 부처님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전제해야 합니다. 아직 그걸 모르고 있으니 잘 안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법인데 우리가 이 법을 체득하기 위해 무엇을 던져버렸습니까? 이해를 하고 그 가치를 인정한다면 왜 공부가 안되겠어요? 그만큼 이해도 못하고 모르니까, 모른 상태에서 공부하려니까 안되는 거예요" 공부 안된다는 사람들을 대해보면 실제로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세속적 가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한다. 말로는 부처님법을 추구하지만 실제로는 부처님이 헌신짝처럼 버렸던 부귀영화를 좇고 있다는 것이다. 세속적 가치를 추구하니 아무리 가부좌를 틀고 앉아도 될 턱이 없다.

고우스님은, 출가한 스님들조차 세속적 행복의 조건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조계종 스님이 1만명 가량 되는데 과연 이 법을 이해하고 법의 가치를 알고 승려노릇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부처님법에 대한 이해가 투철한 사람을 몇 명 보지 못했다고 하신다. 산사에 계신 스님마저 제대로 된 수행자를 만나지 못했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한국불교가 도닦는 일보다는 불질주의로, 세속화로 치닫고 있는 근본 이유는?

"기복불교 때문입니다. 기복적인 사고를 하면서 중노릇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신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기복불교가 뭔지 압니까?"

입시 합격, 건강, 재물, 승진 등등을 간절히 부처

고우스님은?

40여년 참선정진, "행자

고우스님은 1937년 성주 生으로 20세때 결핵을 앓게 되어 자신의 의지로 병을 고치기 위해 절에 왔다가 출가했다. 스님은 58년 청암사에서 서옹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63년 범어사에서 석암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출가후 40여년동안 봉암사 축서사 금영사 용주사 각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참선정진을

지난 99년부터 안거 해온 태백산 각화사가 다. 하루 4시간만 자 수행처로 이름높은 각 행정진을 하겠다는 것 새 가풍수립 결정 중 속한다면 이러한 일이 줄 것이다'는 선원장

동안거는 아직 두달 넘었다고 귀띔하는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특색을 살리고 싶다"

'적적성성 삼매' 성취 불교수행의 특징

연기 알면 모든일에서 가치·의미 발견

불가의 비법과 선인의 비전을 합방한 기적의 신물질!

"화림한방화장품"은 자연의 순수 한방약재를 주원료로 하여 고대 동양 미인들이 애용하던 주안술을 이용하여 당사 연구진이 개발한 특허출원 준비중인 제품이다.
생약성분에서 추출한 기적의 신물질 "전단물질"이 미백효과, 피부 노화방지, 기미 및 각질제거, 주름제거 등 각종 피부고민으로 부터 여성을 해방시켜주며 모든 여성들을 건강하고 탄력있는 피부, 부드럽고 보송보송한 피부, 항상 촉촉히 젖어 있고 윤기있는 피부로 가꾸어 준다.

출시 품목 (화장품)

◈ 한방에센스 크림 ◈ 한방베이스 크림 ◈ 한방미백크림
◈ 한방 아이크림 ◈ 한방 영양크림 ◈ 한방 밀크, 스킨 로션

출시 품목 (비누)

◈ 서시한방비누(여드름 제거용) ◈ 옥용한방비누(피지 제거용)
◈ 수다라한방비누(미백용/클린싱 크림효과)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화장품 및 비누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Cosmetics (주) 화림한방화장품
www.hrcos.com

전국지사◈대리점모집

"화림한방바이오"의 제품들은 불가 선사의 문중으로부터 전수받은 "법제와 구증구폭"의 비법을 현대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방법으로 생산하였다. 다이어트 식품은 식사를 즐기면서도 살을 줄일 수 있고 요요현상이 전혀없으며 다이어트 최대 난제인 복부비만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장을 청소하여 인체의 체지방을 제거함으로써 비만의 근본 원인을 해결한다. 또한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게 하며 몸의 가뿐함을 만끽할 수 있다. 선식은 성인을 위한 건강식, 청소년을 위한 영양식, 유아를 위한 이유식으로도 훌륭할 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효능도 있어 일석이조의 새로운 개념의 선식이다.
향은 천연향으로 제조되어 악취제거, 공기정화 기능이 탁월하여 제사용으로 뿐 만 아니라 가정, 사무실, 고시원 등 일상 생활에 널리 이용할 수 있다.

출시 품목 (식품 / 향)

◈ POINT24 – 최상의 다이어트 식품(식사를 즐기면서...)
◈ 달마선식 – 다이어트 식품 겸용 건강선식
◈ 화림비향 – 새로운 개념의 향, 먹을 수 있으면서 피우는 향

세계 각국 특허 출원 준비 중

불자로써 다이어트 및 건강식품 사업에 참여하실 분 (소자본 가능 / 재택 근무 가능)

HR herbal medicine Bio (주) 화림한방바이오
www.hrbio.com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254-16 Tel : 053)313-2711~15 Fax : 053)313-2716

는 사람이 참불자

서 뵌 큰스님

님 (각화사 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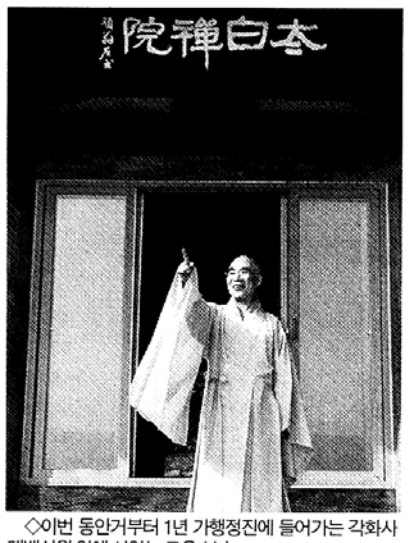
하루 15시간씩 가행정진(加行精進)을
가행정진' 이라는 새로운 가풍을 선언했
5시간이상씩 무섭게 정진하는 가행정진
이번 삼동결제부터는 아예 1년내내 가
가행정진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각화사의
가일충 공부를 하여 앞으로 10년만 계
대가 되어 한국불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愚)스님의 원력이 자리하고 있다.
있지만 방부들인 수좌가 이미 30명이
은 "서로서로 배우고 탁마하고 공심을
면서 정(定)을' 익혀가는 선방으로서의
다.

철저하게 시켰으면…"

온 스님은 대표적인 선승이지만 늘 책을 손
서 놓지 않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올 봄부터
화사 태백선원장을 맡고 있는 스님은 "3년
안 교육을 시킬 상설 행자학교를 종단에서
들어주면 교장을 맡아 부처님법에 대해 확
히 이해시킬수 있게 철저하게 교육하고 싶
" 는 원력을 내 보이셨다.

전에 기원하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떠오르는데…
"기복불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좋은 것
만나고 나쁜 것은 안 만나겠다는 게 기복불교예
좋은 일 만나고 나쁜 일 안 만나는 것이 불교가
긴 맞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욕해서 기분나
고, 칭찬해서 기분좋고, 손해보여서 기분나쁘고,
친다든지 그런 나쁜 일을 가급적 피했으면 합니
그런데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늙고 병
고 죽는 것은 나쁜 일인데 그것 안 만나나요? 만나
게 그것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빈다고
서 안만나지냐는 거지요. 만나고 싶지않은 것을
만나게 하고, 만나고 싶은 것을 만나게 하는 그것
부처님법에 의해 그것을 이해하고 자기가 해결
가는 것이 진짜 안 만나는 거예요.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
아요. 그러니 그것을 법에 입각해 바로 보고 해결해 가는 방법이 진짜 안만나는 거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를 〈금강경〉을 이해하는 눈으로 바로 보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것이 진짜 안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복신앙 하는 사람은 무조건 안 만나게 해 달라고 빌어. 무조건 나쁜 것은 안만나고 좋은 것만 만나게 해 달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한 부처님앞에 가서도 욕망만 커집니다. 욕망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음은 좁아지거든. 거기에선 탐진치가 일어날 수 밖에 없어요. 세속에서 찌든 마음, 탐진치를 제거하고 뭔가 잘 살아보자고 부처님앞에 온 사람들이 도리어 탐진치 키우는 일에 집착하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런 집착심이 강한 사람이 갑자기 사고를 당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하면 부처님만 원망해. 스님 원망하고 심지어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나쁜 일을 만나게 하다고' 개종도 하고…"

간화선에 대한 일부의 비판이 나오면서 소위 '제3수행법' 이라 불리는 수행에 대한 관심과 동참자들이 늘고 있다. 심지어 스님들도 많이 체험하고



◇이번 동안거부터 1년 가행정진에 들어가는 각화사 태백선원 앞에 서있는 고우스님.

있는 실정이다. 이 수행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불교수행은 첫째가 정진 단계, 그 다음에 삼매단계, 다음에 깨달음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정진단계도 그렇고 삼매단계도 그렇고 깨달음 단계도 그렇고 거기에 일관되게 공통된 점이 하나 있어요. 일관된 공통점이라는 것은 수행하다 보면 우리 의식이 그렇게 공통되어 간다는 뜻이지요. 정진단계에 들면 우리 의식이, 불교가 아닌 다른 수행의 삼매에서는 거의 적적(寂寂), 고요지요. 즉 그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행위가 정지해요. 의식도 정지하고 생리작용도 정지해요. 깊이 들어가면 먹지도 않고 배설도 않고 생리작용도 정지합니다. 그런데 불교수행은 다릅니다. 처음에 싣달타가 출가해 웃다라라를 찾아가 배운 수행이 그랬어요. 삼매에 들면 마음이 참 편하고 좋은데 삼매에서 깨고 나면 불안하고…. 깨어있을 때나 삼매 들어 있을 때나 마음의 평화를 얻어야 진짜지 이것은 아니다 해서 독자적으로 공부해 모든 삼라만상의 존재원리를 깨달으신 것이잖아요."

불교의 삼매 특징에 대한 설명을 이어가셨다.

"적적(寂寂)과 성성(惺惺)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겁니다. 불교공부 외에는 '적적성성' 의 경지에 들어갈 수 없어 적적성성하면 아무리 삼매에 깊이 들어가더라도 배가 고프면 정확하게 밥먹으러 식당으로 갑니다. 또 용변보고 싶으면 정확하게 변소에 가요. 적적만 있다면 삼매에 들었을 때, 용변보러 간다는데 식당으로 갈 수가 있고, 밥먹으러 간다며 변소로 갈 수가 있어요. 삼매에 들었을 때나 깨어있을때나 양쪽 다 삼매를 성취하는 것, 이것이 불교수행의 특색입니다.

수행자가 정진단계에서도 적적성성 삼매를 이루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그러나 지속되지 않고 간단(間斷)이 생기죠. 됐다 안됐다, 됐다 안됐다 하는데 이것을 정진단계라 해요. 그러다 수행이 깊어져 삼매단계에 이르면 적적성성이 오래 지속됩니다. 그 지속되는 단계를 뛰어 넘으면 깨달음으로 가는 것이고, 적적성성 삼매가 완성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대할 때 그것을 이기심으로 대하고 처리하는데, 적적성성삼매를 100% 성취하면, 탐진치를 세탁을 해가지고, 이기심이나 욕망 하나 없는 순수무구한 의식으로 사고(思考)하고 행위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행위는 나에게도 남에게도 도움이 되지요. 그것을 공심(公心)이라 해요."

'적적성성' 의 경지를 이룰수 있는 것은 불교수행뿐이지 다른 수행은 적적은 될지언정 깊이 들어갈 수 없으니 괜히 시간만 축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3수행법' 이란 것은 불교하고는 상관없는 수행이라고 봐도 될 거라고 하셨다.

고우스님은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주는 책이 있다. 바로 성철스님의 〈백일법문〉. 두 권 한질을 한첩에 100질씩 갖다놓고 스님이나 신도 누구에게나 보시하신다.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꼭 읽을 것을 약속받고 다음에 오면 집중적으로 물어보신다. 꼭 읽기를 바라는 스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불자라 하면서도 불교의 핵심인 연기, 중도에 대한 이해가 너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연기와 중도에 대해 체험은 못하더라도 이해만 해도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해 냅니다. 그러면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지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일에 충실하게 돼요. 자기의 존재 원리 하나 알면 삼라만상 원리를 아는 것이고 같은 원리로 존재하니까 그것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자기생활에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요. 연기법만 제대로 이해해도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맑아지고 안정될 겁니다. 남해치는 일은 일체 없을 테니까."

스님은 티베트불교보다 한국불교의 수준이 엄청 높지만 달라이라마 만큼 세계인들에 감복과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것은 실천의 유무 때문이라고 하셨다. 티베트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을 생활화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스님은 한국불교가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라고 보신다. 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언행일치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스님은 지금처럼 출가한 지 6개월만 되어도 사미(니)계를 주는 제도를 보완해 최소 3~4년을 한곳에서 교육받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신다. "철저하게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부처님이 말하는 법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중노릇이 제대로 됩니다. 그게 안 바뀐 사람이 수행한다는 것은 산에 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아요."

글= 이경숙 기자, 사진 = 고영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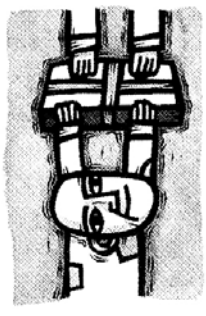


리선행 법사의 스님이야기

홍도스님 (4)

유난히 자비심이 많았던 홍도스님에게는 자연히 신도들이 많이 따랐다. 당시 보현정사 만큼 각계각층의 신도들을 보유하고 있는 사찰도 드물었을 것이다. 보현정사가 무허가 건물이라 집달리에 의해 부처님이 마당에 내동댕이 쳐진 일도 있고 셋방살이 신세를 지며 정진하던 때도 있었지만 스님의 부지런함과 차별없이 대하는 태도는 수많은 신도들을 보현정사로 이끌었다. 신도들 중에는 잘 사는 상류층도 있었지만 중류 이하 서민층 신도들이 주류를 이루었다.

홍도스님은 누구에게나 자상했고, 집착없는 무소유를 보여주었기에 신도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스님을 따랐다. 그들은 가정생활의 여러 문제점과 사회생활의 어려움도 스스럼없이 스님께 털어놓고 상의하였다. 스님은 그때마다 마치 부모가 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 상담에 응해 주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생활이 어려운 신도의 보증을 잘못 서서 애태운 일도 있었고 취직자리를 알선해 주느라 고생한 일도 여러번이었다.



당시 스님이 주석하던 보현정사가 후암동에 위치한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절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남대문 시장에 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된다. 크고 작은 가게를 수십 군데 들르며 안부를 물었고, 노점상을 하는 신도들은 가게의 발전을 축원해 주길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리 바빠도 스님은 어느 누구의 요청도 물리치거나 형식적으로 대하지 않았고 싫어하지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보현보살의 10종 대원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구도자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라 믿는다. 스님은 매사에 긍정적이고 누구에게도 짜증스런 얼굴을 보이지 않았다. 항상 적극적이고 부지런했으며 최선을 다했다.

어느날 스님이 과로로 쓰러진 적이 있었는데 병원비가 없는 스님을 어렵사리 사립병원에 입원을 시켰다. 그때 병문안 온 어느 신도가 스님 목욕하신 후에 입혀드리라고 내의 한 벌을 사왔다. 그런데 스님은 내의 포장을 뜯지 못하도록 했다. 나중에야 알게됐지만 스님은 혹시 산사에서 수행하는 도반이, 입원 소식을 듣고 찾아오면 그 내의를 줄 생각이었던 것이다. 서울에서야 언제나 사 입을 수 있지만 산골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이기에 수행하는 도반에게 주어야 겠다는 배려때문이었다. 스님은 승복도 꾀죄죄한 것 단 두벌 뿐이었다. 여름철에는 땀냄새를 지우기 위해 수시로 빨아서 채 마르기도 전에 입고 나서서는 시원해서 좋다고 하며 웃으시곤 했던 모습이 떠오른다.

하여튼 스님의 검소함은 유명했다. 그런 스님께서 내 학비에 보태 쓰라고 금반지 하나를 건네주신 적이 있다. 나중에 살펴보니 그 반지는 며칠전 스님의 생신때 신도들이 돈을 모아 기념선물로 마련해 드린 것이었다. 나는 그런 의미있는 선물은 받을 수 없다며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스님은 "내게 이 물건이 무슨 필요가 있으며 어울리지도 않는다"며 기어코 내 손에 쥐어주셨다.

한번은 홍도스님과 함께 어느 상가집에 갔다. 달동네에 사는 혈육 하나 없는 아주 외롭고 가난한 여인이 죽었던 것이다. 상주도 없는 무연고의 그 가난한 상가에서 3일동안 어찌나 정성스레 염불을 해 주시는지 옆에 있던 나는, 이 여인의 영혼이 스님의 지극한 정성으로 극락왕생 했으리라는 믿음이 들 정도였다. 홍도스님은 길을 가다가도 병원만 보이면 영안실에 들러 염불을 해주시곤 했다. 대불련 학생들도 스님을 따라 병원 영안실에 들러 영가를 위한 염불에 동참하곤 했다. 물론

길가다 영안실 들러 염불 '여러번'

군승단 창설 위해 밤낮없이 애써

대가를 바라지도 않았고 상주쪽에서 사례를 하려해도 극구 사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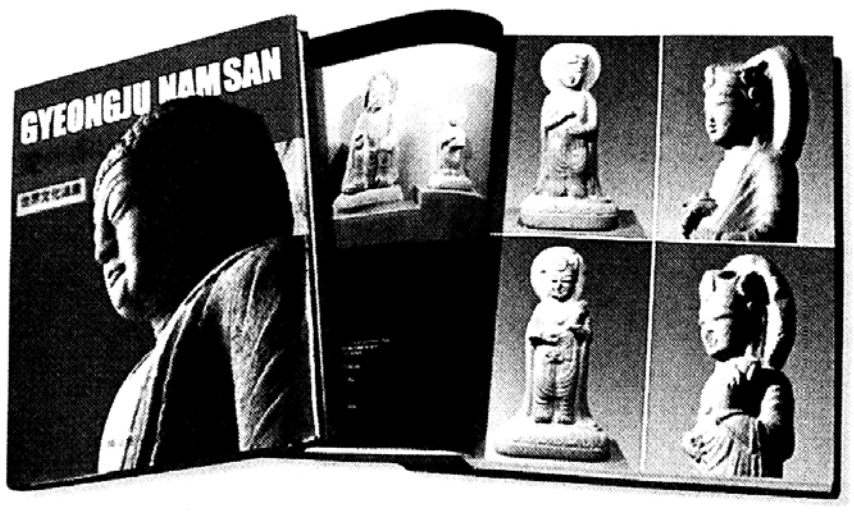
홍도스님은 어느 누구보다 군포교에 관심이 많았다. 당시 불교계가 염원하던 군승단의 창설을 위하여 밤낮으로 뛰었다. 새벽예불 때마다 발원하였고 혹독한 추위에도 아랑곳없이 국회의 국방전문위원들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군법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스님이 어찌나 간절하고 끈질겼던지 나중에는 그 사람들 전부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고야 말았던 것이다. 군부대 위문 가면 장교들을 일일이 만났고 그들의 생년월일을 다 적어두었다. 생일이 되면 역시 떡을 해 부처님전에 축원을 올리고 떡을 들고 전방에 찾아가 그들을 감복시킨 것이다. 오로지 불교포교를 회두로 삼은 스님은 어려운 시기에 보현정사를 건립하고는 절에 '군경학생교화회관' 이라 이름붙여 군법사들 숙소로 우선 배정했으며, 군부대의 크고 작은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다. 스님은 어떤 것보다도 '한국불교군경학생교화회관장' 이라는 호칭에 만족해 하셨다.

하루 3시간 이상 자는 것을 보지 못할 만큼 포교를 위해 밤낮으로 뛰고 또 뛰었던 홍도스님. 스님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과로끝에 44세라는 나이에 그렇게 빨리 입적하시지 않았나 해 지금도 안타깝기 그지없다. (끝)

횡성 '마음의 쉼터' 회주

慶州南山 - 세계문화 유산, 우리나라 불교문화의 원류

그 방대한 자료를 완전 올 컬러 특대판형 전 2권 으로 간행



2권 1세트 23만원

▣朝鮮日報
'신라 역사박물관' 경주 남산의 모든 것
이 책, '경주남산'은 말 그대로 경주 남산의 모든 것을 담은 야심차고 우직한 기획의 결과이다. 도판편과 해설편 등 2권의 책은 어린이들은 들지도 못할 만큼 무겁다. 그 무게는 그대로 신라 천년의 역사가 갖는 무게로 느껴진다. 140곳에 이르는 절터, 80여 구의 불상, 90여 기의 석탑, 13기의 왕릉, 4개의 산성, 중요문화재 사진과 탁본 실측자료등 무려 800여 점이 실렸다.

▣중앙일보
'골마다 불상 · 석탑 온 산이 절이로다'
4년여 현장조사 『경주 남산』 완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www.gcp.go.kr)가 지난 4년간 조사를 맡았으며, 그 결과가 『경주 남산』(23만원)이란 책으로 최종 정리돼 최근 출간됐다.
4년간 2백여 차례 현장을 조사한 결과 확인된 문화재는 모두 6백 72건. 절터는 1백47개소. 일제시대 조사 결과의 두 배나 되며, 골짜기마다 2곳 이상의 절이 들어서 있었던 셈이다. 돌로 만든 부처와 보살상은 1백 7구, 석탑은 모두 96기. 그간 확인되지 않았던 왕릉과 비석 등을 찾아냈다.

▣동아일보
남산의 불교유적을 비롯해 선사유적, 신라왕릉, 고려 · 조선시대 유적과 유물, 그리고 현재까지도 남산지역에서 행해지는 민속의례, 남산의 수려한 자연유산 등을 모두 담았다. 도판편 · 해설편 2권으로, 특대판형에 총 700여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이다. 5년간 200차례에 걸친 현장조사물의 결과이다.

▣釜山日報
- 세계 문화유산 '남산' 의 모든 것 2권에 오롯이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관계자는"이번 종합 도록은 관련 학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일반인들에게도 보다 쉽고 진지하게 남산을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하는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보신문
"한국불교 원류 한 권으로 응축"
이번에 발간한 종합도록은 지난 98년 경주 지역에 대한 5개년 정비 사업의 첫 번째 사업으로 실시된 남산 정비사업의 결과물이다. 사진만을 모은 도판편은 지난 2000년도 호주 케이즈에서 열린 유네스코 전체 회의에 자료로 제공돼 남산을 포함한 경주 일대가 경주역사유적지구로 묶여 세계문화유산으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佛敎新聞
- 경주 남산이 책갈피에 '쏙' -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신라의 영산이며, 우리 민족의 성소인 경주 남산이 책속으로 그대로 옮겨져 있으며 골짜기마다 간직한 신라인의 불심(佛心)과 예술 혼을 책은 그대로 재현해 놓았다.

▣현대불교
- 골마다 절터, 바위엔 불보살 -
경주 남산은 우리 나라 미술사학계의 대부 고유섭이 "한국 불교의 원류를 찾고자 한다면 경주 남산에 가 보아라"고 했을 정도로 우리 나라 불교 문화유산의 보고다.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編 圖書出版 民族文化 釜山廣域市 南區 大淵 1洞 1754-11號 전화 051)627-2366, 627-2367 / 핸드폰 018)516-2366 / 팩스 051)627-2368



◇사진은 허천석 作 '문수보살'.

KOBA, 불교예술품 들고 해외로

10월 2~6일 미국 산타모니카 시빅 오디토리움서 전시회

많은 외국인들은 불교 하면 티베트와 일본, 동남아 불교를 연상한다. 한국 불교는 아직도 관심 있는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국 불교 예술품의 해외 전시를 통해 한국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Korean Organization of Buddhist Artists(이하 KOBA). 현대불교신문사가 지난해 결성한 한국불교예술인 연합의 이름이다. 다양한 마케팅 채널을 활용해 우리 불교 예술품을 해외에 선보이고,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역할을 충실히 해내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

KOBA가 첫 전시를 10월 2일~6일 미국 산타모니카 시빅오디토리움(civic auditorium)에서 갖는다.

이번 전시는 1985년부터 특정 주제의 작품들을 선택해 아시안쇼, 도자기 페어, 골동품 쇼, 빈티지 쇼, 모더니즘 쇼 등 다양한 전시회를 추진하고 있는 'caskey & lees'의 주최로 열린다. 'caskey & lees'가 91년부터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작품을 국제적인 규모로 소개하는 기획전 'The Los-Angeles Arts of Asia and Oseania Show'에 '한국 불교 예술'이라는 주제로 참가하는 것. 이 전시에는 해외 유명 딜러와 갤러리 담당자들이 참관하며, 세계 65개 단체가 전시에 참여한다. 그동안 일부 한국의 골동품이 전시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한국 불교 예술품을 들고 전시장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불상·선화·전각·탑모형 등 20여점 첫선
한국불교문화의 아름다움 세계인과 나눠

전시에는 무형문화재 제108호 목조각장인 허길량씨의 '미륵반가사유상' 등 불상 작품을 비롯해 최점복씨의 불화, 송광무씨의 선화, 문현덕씨의 석가탑 금형 모형, 정병례씨의 전각, 홍승표씨의 금니고려불화 재현 작품 등 12인의 작가가 20여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KOBA의 이번 해외 전시는 우리의 수준 높은 불교문화 자산을 외국에 소개하고 한국불교의 위상을 한 단계 높임과 동시에, 현대불교신문사가 한국불교 예술 분야 해외정보 제공자로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leo@buddhapa.com



◇불화를 컬러이메징한 지갑.



◇전자목탁.



◇12간지 띠별 목걸이.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단청·불화·직지 등 불교 소재 '눈길'
전통문화에 현대감각 가미한 아이디어 상품 선보여

우리 전통문화가 관광상품이라는 옷을 입고, 대중에 다가간다.

문화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제5회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에 현대적인 감각을 우리 전통문화와 잘 배합시킨 다양한 아이디어 상품들이 선보여 눈길을 끈다.

이번 제5회 대회의 입상작을 살펴보면 한지 단청 십장생 천연염색 십이지신 등을 소재로 관광객들의 취향을 고려하면서도 한국의 이미지를 극대화시킨 작품들이 다수 선을 보였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전자목탁'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상품이다. 축소된 모형 목탁 공예품인 이 상품은 멜로디 재생장치를 내설하여 준비된 목탁채로 치면 실제의 목탁소리와 스님의 독경소리가 울리는 발상이 신선하다. 독경소리의 주인공은 경기도 양평 사나사 화암스님으로 벤처업체인 P&K TECH가 개발했다.

또 '십이지수호신상 염서'(장려상), 직지심체요절의 경구를 부분 인용해 염색고리 등으로 만든 직지를 이용한 신변 장신구'(특선), 단청과 불화 대동여지도 등을 이용한 '컬러이메이징 지갑'(입선), '12간지 띠별 목걸이 핸드폰 줄 등이 불교계에서도 눈여겨볼만 한 관광상품들이다.

한편 이번 대회의 대상은 '전통배 모형 키트'(박영종)가 차지했다.



◇전북 익산 왕궁리석탑에서 출토된 국보 123호 금강경 순금 경판.

신라문자 어떻게 생겼을까

경주박물관 특별전, 금강경 순금경판 등 전시

국립경주박물관이 16일~10월 20일까지 여는 '문자로 본 신라' 특별전은 고대 신라의 문자자료를 한 곳에 전시해 신라 특유의 절제되면서 자유분방한 필적을 느끼고, 다양한 문자생활을 살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번 전시는 국립박물관을 비롯한 대학교 및 공사립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라시대의 각종 문자 유물을 전시한다.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속유물이나 토기 등에 보이는 문자 관련 유물에서부터 절터나 건물지, 산성 등지에서 출토된 비석, 토기 칠기, 기와, 탑지 등 350여점을 시대별, 출토지, 성격별로 분류 전시하여 신라에서 문자를 쓰기 시작한 초기부터 전성기, 그리고 말기의 과정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특히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40여점의 목간(木簡. 나무조각에 쓴 일종의 문서)을 비롯해 지방민 통치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보물 516호 대구무술명오작비, 경주남산신성비 등의 유물이 탁본과 함께 전시된다.

또한 일부만 일반에 공개됐던 흥덕왕릉비편, 전북 익산 왕궁리석탑에서 출토된 금강경 순금경판(국보 제123호), 신라백지묵서대방광불화엄경(국보 제196호) 등도 전시되어, 신라의 불교가 각종 경판과 탑비 등에서 다양한 불교 문자 문화를 꽃피웠음을 살펴볼 수 있다. (054)740-7538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틱낫한 스님의 〈화〉는 매우 실용적인 책이다. 현대인은 모두 '화'로 인해 고통받고 있기에, 그것을 다스리는 처방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책의 첫 장에선 음식을 가려먹으라고 충고한다. 현대인들은 화가 든 음식을 먹고살기 때문에, 화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먹는 고기들은 대개 대규모 농장에서 사육된 것이고, 채소는 농약에 찌들어 있기가 쉽다. 비좁은 우리 속에 갇혀 자란 동물들은 움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미쳐있고, 농약에 중독된 식물들은 생명력을 잃고 있다. 그런 것을 먹으면 인체 내에 화와 좌절과 분노가 쌓이기 마련이다.

화는 습관적인 것이어서,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한 번 화가 나면, 묵은 화가 한꺼번에 폭발하는 것이다. 어두운 옛 기억이 줄줄이 떠오르면, 정말 참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일단 화가 나면 만사를 제치고 먼저 화의 불길부터 잡아야 한다. 스님은 화가 일어난 장소를 피해 산책하거나,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라고 권한다. 화를 치료하는 방법의 핵심은 '자각의 에너지'를 기르는 것이라고 스님은 강조한다. 화는 음식을 먹으면서 보채는 아기와 같기 때문에, 울음을 그치게 하려면 포근한 어머니의 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에너지는 놀라운 치유력을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부처의 에너지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스님의 지론이다. 내 안에 있는 부처님을 느끼기 위해선, 의식적인 호흡과 보행 명상이 손쉬운 방법이라고 권한다.

틱낫한의 '화' (2)

'화'란 쓰레기 버리지 말고 삭혀 자각에너지로 승화 내 몸 속 불성 발견 재료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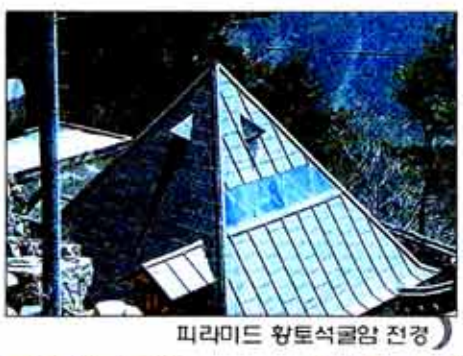
자각의 에너지는 우리를 현재의 순간에 충만하게 하고,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든다. 삶의 순간 순간에 현재를 깊이 자각하고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은 곧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련이 된다. 일상의 작은 일에 몰두하여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노라면 깨달음의 선물이 찾아온다는 것이다. 그 깨달음은 예컨대—스님이 운영하는 프랑스 플럼빌리지(자두마을)의 수도원 벽에 붙어있는 문구처럼—"나는 이미 도착하였다(I have arrived)"는 자각이다. 목표를 미래에 두고 현재를 희생하며 삶을 유보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 자리가 목적지이며 따라서 우리는 현재에 최선을 다해 존재의 꽃을 피워야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유기농법을 실천하는 스님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모았다가 썩혀 거름으로 만든다. 정신적인 유기농법도 마찬가지이다. '화'라는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푹 익혀 '자각의 에너지'를 기르는 거름으로 삼는 것이다. 이 책에는 단순히 '화'를 컨트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화'가 나면 그것을 한 번 다스려 봄으로써 내 안에 있는 '자각의 에너지' 곧 불성(佛性)을 발견해보라는 스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아픔의 증상이 있을 때가 곧 병의 원인을 정확히 포착하여 완치할 수 있는 찬스이다. 진흙에서 연꽃이 피듯이, 화가 날 때 그것을 잘 다스리는 것은 우리가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신의 현현(顯現)"이 되어보는 소중한 경험이 된다.

■문학평론가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피라미드황토석굴암

- 여타 찜질방이나 황토집과의 비교 할 수 없는 힘의 세계-



피라미드 황토석굴암 전경



피라미드안 거실 및 황토 돔의 구조

본심·본성이 살아 숨쉬는 황토 +
소나무 참나무 장작과 구들 황토방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구조물

피라미드 형태의 공간 구조물이 지구 방위의 남북 방향으로 정확히 배치되어지면 그 공간 구조물 내부의 특정지점 (바닥에서 곡지점 3분의 1지점)에 주로 미지의 에너지 공간이 형성되며 이 미지의 에너지에 의해서 피라미드 내부에는 여러가지 신비한 현상 (탈수 건조 현상 및 면도날 재생, 식물 생장 및 발아 촉진, 생체 치료 및 활성화 효과 등)이 발현

황토석굴암이란?

황토석굴암 생황토 40톤과 회오리방식의 구들방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번 불을 지피면 10일을 가는 난방, 여타 찜질방이나 비교할 수 없는 힘의 세계에서 내몸의건강과 정신의 평화를 위해 피라미드 반원구 황토 석굴암이 내뿜는 강력한 에너지의 비밀에 귀 귀울여 보자.

엄청난 우주의 기운과 지기가 내 몸을 휘돌아 정화하고 재 충전 시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피라미드황토석굴암 구조
• 크 기 : 지름 (내경) 380cm
• 벽두께 : 35-40cm • 높 이 : 210-270cm

피 라 황 토 시공 문의 : 황토 건축가 안 진 건 017-585-6045 011-9547-4741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재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본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투러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잘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편히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 마 당 長腦山蔘



틱낫한 스님 '삶과 깨달음의 노래'

군더더기 없는 언어의 결정. 그것이 시(詩)다. 버리고 버려서 마지막까지 남은, 다른 어떤 말로도 대체 불가능한 언어의 직조물이 바로 시인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틱낫한 스님이 40여년에 걸쳐 쓴 시 100여 편이 담긴 〈부디 나를 참 이름으로 불러다오〉(이현주 옮김, 두레)는 틱낫한 스님의 삶이 응축된 책이라 할 수 있겠다.

현재 국내 서점가에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틱낫한 스님은 누구인가. 평화운동가이자 난민공동체의 지도자인 틱낫한 스님은 베트남 왕조의 행정관료 가문에서 태어나 16세에 출가했다. 이름의 첫 글자 '틱(Thich)'은 석가모니의 석(釋)에 해당하는 베트남어고, 법명인 '낫한(Nhat Hanh)'은 일행(一行)을 뜻한다.

베트남 전쟁 당시 파리평화협상에 파견된 불교평화대표단의 단장이기도 했던 스님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반공의 입장에 서지도 않았다. 반전주의자인 스님은 결국 남베트남 정부(사이공 정부)와 북베트남 정부 양쪽의 미움을 받고 베트남에서 추방당하는 몸이 되었다.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되자 1968년 프랑스로 망명했다. 이후 수천 명에 달하는 베트남 난민을 구하기 위해 20만 달러를 모금해 800여 명의 보트 피플을 구조했으며, 프랑스 로테 가론 지역에 불교명상수련원 '플럼빌리지(자두마을)'를 세우고 봉사활동에 나섰다. 스님은 현재 미국 버몬트에 세운 '그린 마운틴 다르마 센터'와 플럼빌리지를 오가며 가르침을 펴고 있다.

시집은 2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는 '역사의 장(Historical dimension)'으로 반전시(反戰詩)가 대부분이다. 자신이 경험한 베트남 전쟁과 인간과 자연의 황폐화, 망명 생활에서 느낀 쓰라림 등이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시는 단순히 이런 고통스럽고 어두운 체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의 축복과 평화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바꾸어 놓고 있다.

부디 나를 참이름으로 불러다오

틱낫한 지음 / 이현주 옮김

40여년에 걸쳐 쓴 스님의 詩 100편

전쟁·인간·자연에 대한 통찰과 희망 표현

1965년 '사회봉사청년학교'에 속한 젊은이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목숨을 잃었을 때에도 증오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경계했다.

'저들이 산 같은 증오와 폭력으로 / 너를 쳐 쓰러뜨려도 / 구더기처럼 기어올라 / 네 몸을 갉아먹거나 / 팔다리를 자르고 / 내장을 꺼낸다 해도 / 아우야, 기억하거라 / 기억하거라 / 사람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권고 中)

2부 '궁극의 장(Ultimate dimension)'에는 '깨어있음', '마음 충만함' 등 스님의 깨달음이 여러 형태의 시로 표현되어 있다. 틱낫한 스님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도 미래도 아니요 '지금, 여기'에서 현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미래에 극락에 태어나기 위해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이 평화롭고 자비로우며 즐겁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나는 너를 버텨주고 / 너는 나를 버텨준다 / 너에게 평화를 주고자 나는 이 세상에 있고 / 나를 기쁘게 하고자 너는 이 세상에 있다' (너와 나 中)

시 마다 스님이 직접 쓴 시작 노트가 붙어 있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시란 본시 입으로 음미하게끔 만들어진 문학 장르다. 틱낫한 스님의 시 또한 노래로 만들어져 세계 곳곳에서 불려졌다.

출판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보성 선씨 종가의 아흔아홉 칸 저택.



◇일성 김씨 문충공 김종직 종가.

종갓집 생활·삶의 훈기 담아



명문종가를 찾아서 이연자 지음

이연자 한배달우리차문화원장이 펴낸 〈명문 종가를 찾아서〉(컬처라인)는 1년 6개월 동안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명문종가 16곳을 발품을 팔아가며 찾아낸 끝에 완성됐다. 전통의 맥을 올곧게 지켜나가고 있는 종갓집의 멋스러운 생활문화와 그 속에서 삶의 훈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답사기 형식으로 사진과 함께 담겨있다.

지은이의 눈에 비친 종가의 모습은 시대가 변하면서 차츰 변해가고 있었다. 의성 김씨 지촌 종가는 350년 된 종갓집을 전통 생활문화 체험장과 예술인들의 창작 공간으로 개방했고, 율곡 이이의 신주는 종손이 사는 아파트 서재에서 컴퓨터와 마주보면서 아침저녁으로 종손의 문안 인사를 받고 있었다. "아름다운 우리 전통을 편리하게 다듬어서 다음 세대로 물려줘야 할 텐데, 5백년 전 예법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답답한 일이다"는 경주 이씨 익재공파 청가공 종손의 말을 인용하며 천년을 이어온 종갓집이 앞으로도 천년을 이어가기 위해 변해야 할 올바른 방향도 제시하고 있다.

특히 편리한 현대 의례에 밀려 종갓집의 잔칫상과 차례상을 좀처럼 구경하기 어려운 요즘 종갓집 의례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글로 소개해 추석을 앞둔 시점에서 독자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설 것 같다. 값 1만8천원.

김주일 기자

한국사상과 시사 김용구 지음

탁월한 사상가 언설사상 뿌리 찾아



〈한국사상과 시사〉(불교춘추사)는 평생을 우리의 '말과 논의'에 대해 연구해 온 언론인 김용구 씨가 말, 논의, 언설, 언어 등에 대한 논문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어 낸 것이다. 특히 이 책은 표현과 정신의 문제에 천착한 우리 사상가들의 학문적 성과를 다루고 있다.

원효, 도선, 최치원, 이규보, 김시습, 이이, 한용운 등 탁월한 사상가들의 정신과 표현법 등을 통해 지혜로운 우리 문학의 광맥을 찾고 우리 민속과 언설사상의 뿌리를 찾는다. 이 책에 등장하는 '언론' '언설'이라는 용어는 불교용어로 원효와 최치원의 글에서 이미 등장했다는 것이 지은이의 설명이다. 이규보와 김시습, 이이, 한용운 등도 작가정신과 표현법 등 언설의 탐구에 매달린 경우다.

우리말의 길을 연 사상가로 지은이는 원효를 꼽는다. 원효는 그의 저서 〈금강삼매경론〉에서 '언어도(言語道)', '언로(言路)'라는 말의 길을 찾아 냈으며, 비로소 우리문화에서 '언로(말길)'이라는 표현이 탄생했다고 말한다. 또 도선은 불교적 '무기(無記)'를 지키면서 '무법지법(無法之法)', '무설지설(無說之說)'을 설파한 독특한 사례이나 그의 언어도단, 불립문자는 자체로 새로운 설(說)이라고 저자는 평가한다.

언어, 언설 등 수사법은 메소포타미아 신화, 함무라비 법전, 이집트 신화 등 이미 신화시대부터 꽃피웠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무명씨' 들이 지은 우리의 시조나 속담에서도 언설 사상이 녹아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은이 김용구 씨는 한국일보 논설위원과 고려대 석좌교수를 지냈다. 값 8천원.

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수화사랑 친구사랑 방해성 엮음

자원봉사자 위한 휴대용 수화집

청각장애인은 물론 수화를 배우려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휴대용 수화집 〈수화사랑 친구사랑〉(연화원)이 나왔다.

광림사 연화복지원 원장 해성 스님이 펴낸 이 책은 한글 지화부터 인사, 학교, 종교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수화를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았다. 또 청각장애인을 대할 때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청각장애인에 대한 에티켓'을 실었다.

해성 스님은 "언제 어느 때라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며 "청각장애인과 그 가족,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출간 의의를 밝히고 있다.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이 책은 현재 서울시 전지역의 구청과 동사무소 등 관공서에 배포됐으며, 개인은 연화원에서 무료로 받아 볼 수 있다. 02)2202-5831

밀교진언행의 의미·수행법 제시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 석법성·총지화 편역

〈어떻게 성불할 것인가?〉는 제목 그대로 깨달음의 길을 걷는 수행자들을 위한 수행 지침서다. 밀교의 진언행과 핵심 진언에 대한 의미와 공덕, 수행법 등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선종 중심의 한국 불교에서는 밀교를 터부시하거나 배척하는 경향이 짙지만, 역설적이게도 한국 불교에는 밀교적 요소가 들어와 접목되어 있다. 각종 의식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독송하는 많은 경전에도 밀교적 요소가 다분히 남아 있다. 불교 수행에 있어 진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 책은 〈신수대장경〉 권46에 수록되어 있는 논서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을 편역한 것이다. 〈현밀원통성불심요집〉은 한국 불교의식 경전의 대명사라 할 만한 〈천수경〉이 원문의 내용에 앞서 "정구업진언 수수리 마하수리…"의 진언으로 시작하여 진언으로 끝나는 비법(秘法)을 밝히고 있다. 값 8천원.

이은자 기자 eilee@buddhapia.com

불교만화이야기 두번째권 출간



불교만화 연구소의 불교만화포교지 〈불교만화이야기2〉가 나왔다.

이번 호에는 '사경기도'를 소재로 한 우학스님의 생활법문, 재미있는 불교설화 '물거품으로 만든 장신구', 만화로 읽는 벽화이야기 '이차돈', 만화로 풀어보는 불교교리 '사무량심' 등과 제1회 만화공모전 연꽃특별상 수상작 윤광미 학생의 '선물' 등이 담겨있다. 값 3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관심	법 상	무 한
2	화(Anger)	틱 낫 한	명진출판사
3	신묘장구대다라니강해	임 근 동	솔 바 람
4	달라이라마의 행복론	달라이라마	김 영 사
5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류 시 화	김 영 사
6	틱낫한의 평화로움	틱 낫 한	열 림 원
7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	김 용 옥	통 나 무
8	영가천도	우 룡	효 림
9	미오지간	성 운	불 광
10	꽃은 져도 향기는 그대로일세	명 정	예 문

도서 안내:(02)737-0695



인터넷 도서 주문
yosiamun.com
전화 : 02)737-0695 / 팩스 : 02)737-0696

중풍 귀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풍(風)의 치료법은 아직 확립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풍(風)! 예방이 제일입니다.

단, 2회 복용에 평생 뇌졸중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예로부터 전래되어온 체질개선요법에 의한 (뇌졸중 예방 식품요법)을 10여년전부터 실행하여 많은 분들께 복왕시켜 왔고 이와같은 식품요법을 실행하신 분들은 아직 단 한분도 발병한 사실이 없음을 확신하여 보급하게 되었습니다.
- 이런 증상이 뇌졸증(중풍)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즉, 갑작스러운 (두통), (마비), (저림), (심한 현기증), (구토), (눈의이상)등이 나타나면 뇌졸증(중풍)의 위험 신호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저희는 관계기관이 제조 영업하가를 받았으며 인체에 유해한 불법 건강식품이나 다단계판매, 허위과장 광고등 위법판매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께 효도선물로 최고 인기 식품입니다.』

· 본 식품요법 (1인 2회복용 : ₩120,000만원)이 귀하를 지켜드릴 것입니다.

"폴시노"는 뇌졸증 예방요법의 식품입니다.

본 식품요법은 일본의 규슈가고시마현 구니와께시 지방에서 시작되어(게이쇼엔) 양로원의 여러노인들이 비법을 증언하고 일본내에서 선풍적인 유행을 하였습니다. 이미 수만명의 사람들이 실험하였고, 일본 의학회와 국내 학회에도 소개된 바 있습니다. 사용하신분은 한사람도 뇌졸증으로 쓰러진 사람이 없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성분 : 란백액, 매실, 머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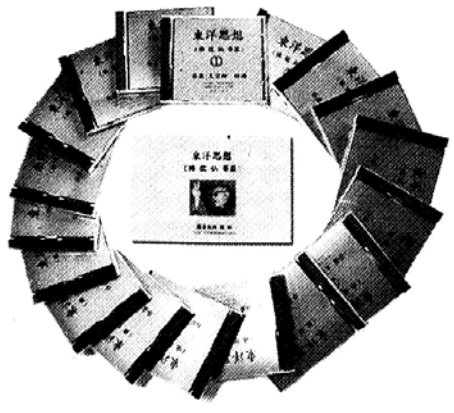
- 현대해상책임보험 1억 가입
- 복용 : 100일 후 발병시 1000% 보상

◐ 상담문의 ☎ (02)3437-8282 ◑

탄허대종사

동양사상특강CD안내

탄허 대종사의 깊고 넓고 높은 강의를 생생한 육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탄허대종사께서 1977년~1982년에 강의하신 내용을 정리해 18장의 CD에 담아 보급 합니다.



◈ 가 격 : 18장 1세트 126,000원(교재 1권 포함)
◈ 제작·보급 :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64-4
건대빌딩 본관 202호 교림출판사
◈ Tel 02)733-3334 / H·P 018)733-3334
02)733-3359
http: www.tanheo.com

밝은미소 · 건강한 마음 · 보람찬 인생
편안한 노후생활, 자연과 함께 여유로운 삶을 보낼수있는 곳
성라실버타운 (유료양로원)
▶경기도 가평소재

▶ 시설안내 ◀
- 숙 실 수 : 96실(2인 기준) • 동·층수 : A동, B동 - 지하 2층, 지상 4층
- 숙실평형 : 9.5평
- 부대시설 : 행사시설, 의료시설, 생활시설, 운동시설, 온천탕(시공중) 등.

[입주비용]

	구 분	입주보증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및 휴양입주	1실 1인	50,000,000	500,000	
	1실 2인	50,000,000	900,000	1인 25,000,000
	구 분	입주보증금	평생생활유지비	비 고
평생입주	1실 1인	50,000,000	46,000,000	96,000,000
	1실 2인	50,000,000	70,000,000	120,000,000
	구 분	입주헌납금	월생활유지비	비 고
입주금 헌납입주	1실 1인	70,000,000	없음	
	1실 2인	100,000,000	없음	

[입주상담 및 문의] 강선구 총무이사 011-9971-3743

"노후생활을 보람있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 이사장 석 정 화

※ 공양주, 행자스님 모십니다.

사회복지법인 성라원·성라실버타운
본부사무소 : 서울시 성북구 성북 2동 285번지
☎02)743-0294 / 743-4026
가평사무소 : 경기도 가평군 상면 봉수리 49-4번지
☎031)585-3323~5

금석문 탁본 자료집성 필요

돌이나 금속에 새겨진 글씨나 그림인 금석문은 우리 고대사 연구에서 필수적이다. 부족한 문헌 사료의 빈틈을 메워주며 당시의 제도와 사회상을 해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다. 〈한국금석전문〉(1984년)을 펴낸 적 있는 허흥식 교수(한국정신문화연구원)는 "금석문은 한국의 고대사와 중세사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소재"라고까지 평가한다.

고대 불교사 연구에서도 금석문은 거의 절대적 가치를 갖는다. "왕조 중심의 교훈성을 강조한 〈삼국사기〉나 〈고려사〉에는 불교 관련 기록이 간략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선사들의 행적을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비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고려 불교사 연구에서 금석문은 1차 사료나 마찬가지다." (이완우 대전대 교수)

탑비에 새겨진 글을 한 자 한 자 베끼면 오자(誤字)나 결자(缺字)가 생기기 쉽지만 탁본을 해 놓으면 그럴 염려가 없다. 또 아무리 읽기 어려운 금석문이라도 탁본을 해 놓고 보면 해독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실물이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삼국유사〉를 쓴 일연 스님의 부도비인 보각국사 탑비(보물 428호)가 벙어리 장갑 모양의 파편만 남아 있는데도 이를 통해 일연 스님의 행적을 알 수 있는 것은 옛 탁본의 사본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탁본은 글씨체뿐 아니라 크기나 모양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복원시 결정적 자료로도 쓰인다.

이완우 교수는 서예사나 조각, 문양 등 미술사적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비문에 새겨지는 문장은 대개 당대의 문장가가 작성하고, 글씨 또한 명필들이 쓰다 보니 서예사 연구 분야에서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금석문에 새겨진 여러 가지 문양이나 조각도 예술적 향기가 높은데, 추사 김정희의 글씨를 집자해서 만든 백양사의 '만암스님 추사집자비'나 선운사의 '백파대사 비문'이나 봉덕사 에밀레종의 비천상은 탁본 수집가들도 최고로 꼽는 예술품이다. 이 교수는 "지금까지는 비문 내용에만 관심이 있었으나 장식이나 문양 등에서도 전문적인 연구 성과가 나와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탁을 떠서 일반 연구자가 열람하고 연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덕대왕신종 비천상 탁본.



◇고려 인각사 일연선사비 탁본.

허흥식 교수는 "금석문에는 현대의 깊이 있는 안목으로 재구성하는 데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어서, 연구자의 식견과 각도에 따라서 확대하여 이용할 길이 넓게 열려 있다"며 "금석문 연구에서 사진보다 중요한 탁본의 원본을 화상으로 입력하여 입체적으로 대조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헌사료의 빈틈 보완… 고대사 연구 필수
예술·문화·사회상 주요 자료 구실도
문화재청 10년간 6천여건 영상DB화

그러나 금석문 탁본이 가지는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아직 체계적인 자료 집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제 침략기 조선총독부가 만든 〈조선금속총람〉이나 허흥식 교수가 편찬한 〈한국금석전문〉, 지관 스님(가산문화연구원)이 펴낸 〈역대고승비문〉 등 금석문 자료집이 있긴 하지만 모두 활자본 형태로 나온 것들이다.

조동원 교수(성균관대)가 편찬한 〈한국금석문대계〉가 금석문 탁본을 축소하여 수록하고 있지만 이 역시 내용 중심이다. 국내의 박물관이나 도서관에도 상당량의 탁본이 소장되어 있고, 한국사나 서예와 관련한 연구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장하고 있는 경우도 많지만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 된 실정이다.

이에 문화재청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금석문 자료 6천여 건을 영상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10년 동안 진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국립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실이 주축이 될 이 사업에는 탑이나 비석뿐 아니라 불상 광배의 조성기, 범종 명문과 문양, 암각화 등 금석문 자료가 총망라된다. 탁본과 사진은 물론 원문 검색까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술담당= **권형진 기자** jinny@buddhapia.com

"흥륜사지 현 경주공고 자리"

박홍국 위덕대 학예연구실장 '신라문화' 기고

국가 사적 15호로 지정된 흥륜사지는 과연 신라 최초의 사찰 흥륜사가 있던 곳일까, 신라 칠처가람(七處伽藍) 중 하나인 영묘사지일까?

박홍국 위덕대 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최근 발간된 〈신라문화 20집〉(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에 기고한 논문 '와전 자료를 통한 영묘사지와 흥륜사지의 위치 비정'을 통해 "현재 사적 15호로 지정된 흥륜사지는 영묘사지이며, 현재 위치에서 북쪽으로 500여m 떨어진 경주공고 자리가 흥륜사지"라는 주장을 내놓아 흥륜사 위치 문제를 둘러싼 학계의 논란이 또 한번 예상된다.





◇흥륜사지(사적 15호)에서 출토된 사명(寺名) 명문기와들. 음은 같지만 각각 '영묘사(靈廟寺 · 사진 왼쪽)' '대영묘사(大靈妙寺 · 오른쪽)'로 한자 표기가 다르다.

"寺名 명문 6세기무렵 암·수기와 출토
현재 '사적 15호 지정된 곳'은 영묘사지"

경주시 사정동 281-1번지 일대가 흥륜사지로 처음 알려진 것은 1910년대 일본인들이 경주지역의 절터를 조사하면서부터다. 그러나 1976년 '영묘사' 명(銘) 기와가 수습되면서 이 일대가 흥륜사지라는 학설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경주지역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 곳이 흥륜사가 아니라 영묘사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교미술사학계의 원로인 황수영 전 동국대 총장과 진홍섭 전 이화여대 박물관장은 "말사에서 건물을 보수하거나 중창할 때 본사에서 기와를 가져다 쓸 수 있으므로 흥륜사에서 영묘사라는 명문 기와가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의 흥륜사가 영묘사 터라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며 기존 '흥륜사 설'을 고수해 왔다.

박 실장이 주목한 것은 음(音)은 같지만 다른 한자로 표기된 명문기와다. 현재의 흥륜사지에서는 각각 '영묘사(靈廟寺)' '영묘사(靈妙寺)'라고 적힌 기와가 출토되고 있는데, 다른 절터에서는 이 같은 예를 찾아 볼 수 없다. '흥륜사'명 기와가 다른 절에서 출토된 적은 있지만 '황룡사(皇龍寺)'라는 한자 표기가 같다. 박 실장은 "이처럼 다양한 절 이름 명문기와야말로 이론의 여지없이 이 곳이 영묘사지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의 경주공고 자리를 흥륜사 터로 지목하는 근거는 무엇일까? 박 실장은 "경주공고 부근에서 발견되는 6세기 무렵 암·수키와는 여기가 진흥왕 5년(544)에 창건되었던 흥륜사지임을 의심할 수 없게 한다"고 강조했다.

영묘사는 7세기인 선덕여왕 4년(635)에 창건된 절이다.



불교사상 – 서양철학의 비교

김종욱 박사 '용수와 칸트' 출간

서울대 대학원 재학 시절부터 불교사상을 서양 철학과 접목시켜 불교의 현대적 의미를 밝히려는 작업을 해 온 김종욱 박사(동국대 강사)가 용수(150~250 추정)와 칸트(1724~1804)의 사상을 비교한 〈용수와 칸트〉(운주사)를 최근 펴냈다.

불교 사상을 서양 철학 혹은 철학자와 비교하려는 시도야 예전에도 있어왔지만 '대표 선수' 격인 두 사람을 직접 대면시켰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렇다고 섣불리 칸트의 이론으로 용수의 '공(空)' 사상을 재해석한다거나 용수의 틀 안에 칸트를 가둬놓지는 않는다.

김 박사가 비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용수와 칸트가 자신의 철학적 사유를 형성해 간 과정이다. 김 박사는 "용수와 칸트는, 실재론적 경향에 대한 비판을 자신의 사상적 출발점으로 삼아 인식의 한계를 밝히고 그것을 실천적으로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상호 유사성을 지닌다"는 것을 밝힌다. 물론 두 사람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실재론의 내용이나 인간이 인식에 한계를 가진다고 설정한 이유는 다르다. 칸트가 이론이성이 아닌 실천이성으로 인식의 한계를 극복한다면 용수는 자비와 방편력에 입각한 반야바라밀을 강조한다.

김 박사는 독창적인 주장을 펼치기 보다 '학습을 위한 비교'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말했다. 각자의 사상사에서 정점의 위치에 서 있는 두 사람의 비교를 통해 불교 사상의 특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불교 사상을 2천년 전에 머물러 있는 텍스트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를 설명하고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살아 있는 텍스트로 재해석하는 길이기도 하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中 취추바이의 대중노선 불교사상 영향 받은 것"

조현국 충북대 강사 발표 중국에 마르크스 엥겔스 저작을 최초로 번역 소개했고 1927~8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를 지낸 취추바이(瞿秋白, 1899~1935)가 청년 시절 불교사상을 접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1919년 5·4운동 이후 본격적인 마르크스주의자의 길을 걷고 나서는 불교 사상과 갈라섰다는 게 일반적 인식이다.

조현국씨(충북대 강사)는 8월 31일 열린 중국어문학연구회 67회 학술발표회에서 종래의 이 같은 시각을 부정했다. 조 씨는 '취추바이, 불교 사상의 영향'이란 주제 발표에서 "1920년대 이후에도 불교사상은 취추바이 사상 내에서 사멸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체적으로 마르크스주의를 수용하고 그의 독특한 '대중 노선'을 구상하게 된 원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지식인과 대중을 둘이 아니라고 본 취추바이의 대중노선은 프롤레타리아(당)를 중심에 놓으면서도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이론과는 달리 소수의 전위성보다는 대중의 능동성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을 물질적 생산력이나 사회의식의 변화가 아니라 러시아 군중의 '마음'에 내재하고 있는 혁명성이라고 한 부분이다.

조 씨는 "평범한 사람들의 개별적인 마음이 모여 러시아 사회 심리를 형성하여 혁명을 일구어 냈다고 생각한 대목은 바로 '진여(一)는 중생들의 마음(一切)에 있다'고 하는 〈대승기신론〉의 핵심 사상(一中一切, 一切中一)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우리 아이 핸드폰에 수능시험 때까지 기도 메시지 매일 뜬다."

대학입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

자녀들이 애쓰고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와 주기를 부처님께 애타게 기원하고 계시지요.
저희들도 한마음으로 기도성취를 이루시기 기원하는 바입니다.

사실, 공부에 너무 바쁜 수험생 자녀에게 잘되기를 바란다는 부모님들의 마음조차 표현하기 어려우시리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이같은 애틋한 마음을 저희들이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의 수능 성취를 위한 기도문을 댁의 자녀 핸드폰에 108회(매일 하루 3차례)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핸드폰 세대인 댁의 수험생 자녀들은 무의식 속에 부처님의 가피로 든든함을 느낄 것 입니다.
지금 연락주십시요.

수능 성취를 위한 기도문 핸드폰 발송 서비스

- 행사일정 : 2002년 10월 1일 – 2002년 11월 5일(36일간)
- 행사방법 : 하루 3회 수험생의 휴대폰에 축원문 발송(총 108회)
- 축원시간 : 오전 6시 / 정오 / 오후 6시
- 축원내용 : 시험무사성취와 합격기원문
  성취 기도문은 신청 불자의 원찰 주지스님께서 주신 내용과
  경전 속에 담긴 수능 성취에 관련된 부처님 말씀
- 동참문의 : (주)지도리 (02-725-9787)
- 접수기간 : 9월 1일 – 9월 28일
- 동 참 비 : 30,000원

※ 본 서비를 통해 조성된 동참금의 일부는
스님대상 무료 컴퓨터 교육사업을
진행하는 불교문화정보연구원의 기금으로 전달됩니다.



어려울 땐 팔자타령 하는데

내가 나를 움직이는 도리 알면 어떤 일 닥쳐도 당황치 않아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문 스님의 가르침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일체를 근본에 맡겨놓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팔자를 생각하게 되고, 나의 운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에 봉착하게 되더라도 일체에 걸리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십시오.

답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우연히 사는 것 같지만, 팔자 운명으로 인해 사는 거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아까 말을 잘못했다면 그 잘못한 게 지금 나한테 돌아올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침착하게 한 생각 해서 잘 말하고 잘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 도리를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해서 내 앞에 닥쳐오는 것은, 팔자 운명도 아니고 그대로 그냥 자신의 탓입니다. 팔자 운명이 어디 붙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돌 하나 풀 한 포기도 다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우리 인생살이도 쉴 사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 팔자니 운명이니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만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을 잘못하고 행동을 잘못하고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계산을 하라는 게 아니닙니다. 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귀 열고 있죠, 발 움직거리죠, 냄새 맡죠, 다 이렇게 뚫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스쳐 가는 대로 앞뒤를 보고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연기법이며 그대로 공법이며 그대로 세상 법이예요.

우리는 살아오면 습을 놓질 못해요. 그 습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게 지금도 그렇게들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왔으니까, 못한다 한다가 너무나 많고 또 알면서도 그대로 그냥 행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실천을 한번 해볼 생각도 안하고 말입니다.

나는 지금 인생살이에 극치적으로 들어가는 말을 하는 겁니다. 천차만별의 그 광대한 법은 누가 죽는다 안 죽는다, 굶어 죽는다 잘 먹고 산다를 떠나서 지구를 집을 삼아 살고 있는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웬만치 납득하고 이해하기 이전에 진짜로 내가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구나, 살리는구나, 그리고 형성시켰다는 걸 아신다면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내가 그토록 알고 믿고 당당하니까 어떤 게 온다 하더라도 뭐 당황할 것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꼭 잘되 게만 하는 것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잘되고 못되고 양 갈래 길을 다 자기 한손에 쥐어야만이 그게 부처님의 공법이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지구라는 집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물에 죽고 불에 죽고 세계가 극란을 겪었지만 지금은 사람들 마음에 의해서, 심성에 의해서 모든 게 전멸할 수도 있고 전부 살릴 수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세세생생 불국토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문제

진정한 부모의 도리

문 예전에 저는 자식에 대한 집착으로 자식과 나를 다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때는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다만 부모로서 당연히 자식이 보다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뿐이라 생각하고 온갖 일에 다 참견하고 신경 쓰는 것이 관심인 줄만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자식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저의 모습을 보며 반성하기도 하고 그런 집착을 놓기 위해 많이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공부를 5년 째 해 나가고 있는데도 그 마음을 다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의 근본을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어떻게 잡고 나가야 남아있는 마음들까지도 다 놓아 자식에게 조차도 여여할 수 있을지 가르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 내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우리가 언제 적의 부모 자식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의 세계는 그 세계대로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신경 쓰실 게 없습니다. 자기 살 궁리는 자기들이 하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부모가 계시니까 그렇지 자기네들이 위급하면 위급한 대로 또 먹고살게끔 마음을 쓰게 돼 있습니다. 스스로 찾아 먹는다구요.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을 겉으로 막으면 더 자꾸 달아나니까 안에다 일임시켜 놓고 나면 나도 아주 편안하면서 그쪽은 그쪽대로 점차적으로 마음의 에너지가 자꾸 같이 섞여서 들아가게 되니까 저절로 깨끗하게 닦아져요. 그러니까 내팽개치는 것이 오히려 자식들한테는 잘되는 법이죠. 육신을 붙들려고 하고 사랑으로 붙들게 되면 더욱 더 마음이 어둠컴컴해지고 방황하게 됩니다. 부모가 방황하면 자식도 방황하게 되고, 그래서 유전이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억겁 광년의 횟수를 줄일 수도 있고 또 눈 깜짝할 사이에 늘일 수도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팽개치면 팽개치는 대로 소멸된다 이겁니다. 즉 말하자면 업보가 사그라진다고 할까요?

그런데 그 엄청난 소용돌이로 내가 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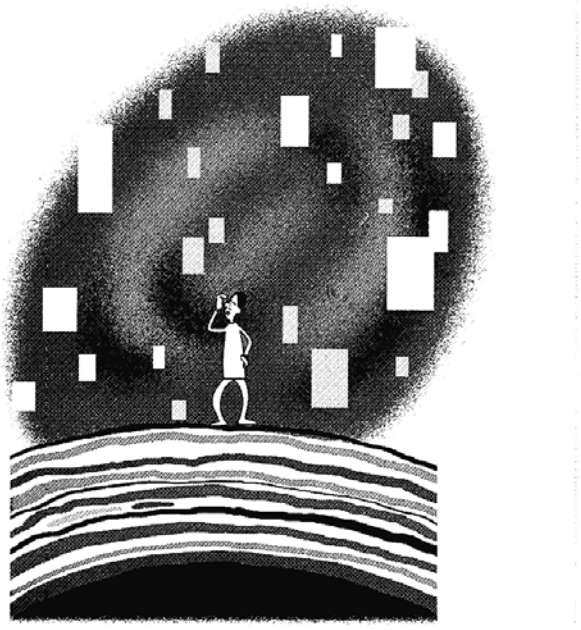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화를 내지 않으려면

문 저는 평소에 화를 많이 내는 성격입니다. 옳고 그르다는 분별이 많아서기도 하지만 그게 습관이 되어서 그런지 그냥 조그마한 일에도 벌컥 화부터 내기가 일쑤여서 어떤 때는 굉장히 심한 자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몸에 돌이 들어와 담석증이 되었는데 굉장한 고통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에 아무리 집착을 안하려고 해도 떨쳐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또 화가 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내지 않고 이 고통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 주인공은 안에 있는 거지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안으로만 들여야 됩니다. 안으로 들일 때는 항상, 화난 것도 당신이 화나게 한 거고, 또 일을 하게 하는 것도 당신이 일 하게 하는 거고, 이 세상에 나게 한 것도 당신이 나게 한 것이라는 걸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일거일동 모두, 즉 누가 따귀를 때려도 내가 있으니까 따귀를 맞았지 내가 없었더라면 따귀를 맞을 리가 없지 않나. 당신의 손을 빌려서 이것도 당신이 한 것이지 왔고 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한마디에 확대가 됐다가 말 한마디에 그것이 다 사그라지고 '에이,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그랬어!' 그러면서 악수하고 술 한잔 마시고 이러는 게 다 부처님 법이지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 참구해 보시면 구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이것저것이 다 자기 불성의 자리에서 이끌어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리라 봅니다.

내 의식 조복 받으려면

문 항상 바른 길을 일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마음공부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항상 한마음 주인공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만 어떤 일을 맞닥뜨렸을 때 드는 생각이나 가만히 있다가도 불현듯이 올라오는 생각들을 보면, 내 속에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까 하는 놀라움과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갖가지로 올라오는 의식들이 다 하나로 들아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되놓고 가고는 있습니다만 철저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지러운 생각들에 휩싸여 버릴 때도 많습니다. 내 속의 수많은 의식들을 어떻게 다 한마음으로 조복 받을 수가 있을까요?

답 우리가 나름대로 사느라고 열심히 살아도 산다는 것이 그저 그렇고, 죽었다가 또 태어난다 하더라도 차원이 그렇게밖에 못 됐으면 그 차원대로니까 모습을 자기 맘대로 못 해가지고 나오고, 사는 것도 마음대로 못살고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 죽고,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커녕 내 속에 있는 중생들도, 자기 심부름을 계속 해줬는데 그 중생들을 제도를 못하는 겁니다. 이익되게 못 해주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자기라는 체를 유지시켜 일생을 내내 갖다가 살면서, 전후사 온갖 군데를 세심하게 다 맡아서 일을 해준 놈도 좀 승진이 돼야 될 텐데 승진을 도무지 못했단 말이죠. 따지고 보면 마음 하나가 오직 이 모든 의식 절차를 다 해서 끌고 다닌다고 봐야 아닌데 말입니다. 자유인이 되려면 주인공에다 몰락 놔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근본입니다. 근본의 주인공이 텅 비었으면서도 말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니 이건 켜진다 꺼진다 하는 게 없는 자가발전소가 이 안에 있다는 말이나 같습니다. 그러면 이 자가발전소를 항상 안으로 두면 항상 볼이 켜져 있기 때문에 꺼졌다 켜졌다 이런 말을 할 것도 없이 아무 소리가 없는 거죠. 그대로 거기서 밝으니까요. 그럼으로써 나는 맘대로 아무 데고 갈 수도 있는 거죠. 허나 자가발전소에 불이 안 켜졌을 때, 안으로 두지 않았을 때, 바깥으로 두었을 때는 불이 안으로 꺼져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하게 되고 화도 내게 되고 천방지축이 되죠, 깜깜하니까요. 그런 거와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맡겨서 안으로만 넣고 주인공을 놓치지 마세요. 자기가 원인인데 자기를 못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나깨나 일을 하나 항상 놓치지 마세요. 아픈 것도 주인공이, 당신이 해결하시오 하고 맡기고요. 모든 걸 처리해가면서 가는 겁니다. 당신이 해결하라 그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해결하라고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렇게 믿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주인공의 묘용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아시고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자식 집착 놓으려면

겉으로 막으면 더 달아나니 편안하고 지혜롭게 이끌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죠. 예를 들어서 진짜로 나를 믿는다면, 각자 나를 믿는다면 거기에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배출돼 나오기 때문에 내 육체로서의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할 게 요만큼도 없어요.

나라의 걱정도, 하늘이 무너질까 하는 걱정도, 지구의 막이 터져서, 즉 말하자면 오존층이 파괴돼서 다 죽는다 하더라도 아무 걱정이 없어요. 물론 그런 힘이 있어야 아무 걱정이 없겠죠. 아무 걱정이 없는 반면에 그것이 다 대치가 되는 것이니 그토록 묘한 마음의 법칙을 다 시험해 보시고 알 수 있으려면 먼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 한 발 걸어 들어갈 때는 반드시 내 부(父)가 있어야 내가 잡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즉 말하자면 아주 짧게 눈 깜짝할 사이, 그런 사이에 붙어 있는 나의 부,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탁 결부되어 있는데도 그 결부돼 있다는 것을 못 믿는 겁니다. 결부돼서 아주 직접적으로 붙어있는 걸 못 믿고, 자기가 그저 손가락 하나 놀리는 일거일동까지도 자기 몸에서 움죽거리고 보고하는 그걸 못 믿는 겁니다. 각자 보는 거죠, 자기를 빼놓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세하게 무한의 우주적인 문제, 그 소용돌이로 내가 들어가서 배우려면 반드시 거기 안에서 인도하는 길잡

모르고 자(子)가 그쪽으로 가도 간 줄 모르고 이러고 살죠, 항상 자는 부에게 넘나들고 부는 자에게 넘나들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는 합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넘나들어도 자기가 모르니까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깁니다.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돼요.

이 말을 꼭 염두에 둬서 가정도 나도 다 편안하고 지혜롭게 이끌 수 있도록 그 내면의 힘을 기르세요.

내 생각과 주인공의 뜻

문 주인공은 모든 것이 포함돼 있는 자리이지만 처음 공부를 할 때는 완전히 믿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내 생각이로구나' 할 때가 있고 '아, 주인공이 하는 거로구나'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사량인 줄은 알지만 내 생각이라는 것과 주인공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지요. 주인공의 뜻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자기가 지금 말을 하게 하고 듣게 하고 움죽거리게 하는 장본인이 누구입니까? 그걸 믿어라 이겁니다. 미묘하게 자기를 움죽거리게 하고, 그러면서도 전 우주를 싸고 있는 자기의 그 부(父)를,

그러니까 본래 부는 자에게로 자는 부에게로 이렇게 넘나드는데 그걸 모르고 들 사니까 이걸 다시 발견해주기 위해서 지금 무조건 우리 모두에게는 부가 있으니 자는 꼭 그 자리를 믿고 감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요구를 할 것이 있어도 거기에다 요구를 하고, 병이 나더라도 그 근본부의 자리를 관해서 낫게 하고 모든 걸 거기에다 하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부(父)에다 일임을 했는데도 안됐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도 '부가 실험을 하는 거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부가 '요놈이 내가 그러는 줄을 아는구나!' 이럽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만 그 대목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정이 풀리는 거라 이 소립니다.

의정을 빨리 푸는 방법이 '바로 주인공 당신이 그랬구나!' 그러면 '아이구, 이게 발견이 됐구나. 그렇게 잘 아는구나!' 그러구선 자꾸자꾸 해보다가 나중에는 '그래! 네가 나 있는 줄 이제 확실히 아는구나!' 한다면 그때부터는 그 부를 확실히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주장자입니다. 그러므로 붙든 놈이나 붙잡힌 놈이나 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게 주장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자기와 둘 아

조그만 일에도 벌컥 화가

일거일동 모두 자신이 한 일 내 탓으로 돌리고 맡겨놓아야 주인공의 묘용 느낄 수 있어

않은가 하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모든 걸 그 자리에 돌린다면 화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남의 것을 탐할 것도 없고, 가질 것도 없고, 내놓을 것도 없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하고 자기가 텅 비면서도 우뚝섰고, 우뚝 섰으면서도 텅 비었고, 이게 전체를 한데 똘똘 뭉치는 공부란 말입니다.

선(禪)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주인공에다가, 그릇도 없고 붙을 데도 없는 주인공에다가 모든 걸 몰락 놔버렸을 때, 홀연히 내가 솟아오를 수 있다는 얘깁니다. 화낼 것도 없습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찰나의 생활에서 뭐 취할 게 있다고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이 모습으로 세세생생이 이어지는 것도 되겠죠. 그렇게 믿지 않는다면 홀랑 벗을 수가 없습니다.

몸 속에 있는 의식들도 공부하기 전에는 다 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해나가면 다 한데 합쳐서 공생이 되고, 이쪽에서 이쪽을 치면 이쪽이 막고, 저쪽에서 저쪽을 치면 저쪽이 막고, 예를 들어 이 지구가 돌아가는 데 나쁜 게 들어온다 하면 들어오지 못하고 딴 데로 돌게 하고 그 자리를 못 들어오게 하고 이러듯이 사람의 몸에도 모든 의식들이 다 세포에 있으면서 막는 겁니다. 딴 세균이 들어오면 막고 또 거기에 절충이 잘되는 세균

☞ 18면으로 계속

☞ 17면에서 계속

이 있으면 들어오게 하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그렇게 올바르게 이 공부를 안하고 못한다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의식들도 폭바로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그냥, 자기 마음에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의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해보면 더럽고 깨끗한 것도 알고, 잘못되고 잘된 것도 알고, 슬기롭게 하는 것도 알고, 지극하고 선한 것도 알고 악한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있는 대로 그냥 죽든지 살든지 그 한 군데에다가만 믿고 몰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의식들도 하나하나 자꾸자꾸 깨우쳐지게끔 이끌어지죠.

마음으로는 천리를 가도 만리를 가도 걸림이 없는데 마음이 몸을 끌고 다니려고 하니깐 걸림이 그렇게 많은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인공이라는 자기 불성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놈이 너를 지금 끌고 다니는 거고 리드하고 가는 거다. 믿고 모든 것을 거기다 놔라. 거기다 놓고 굴려라. 놓기만 하고 가는 게 아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면 감사하게 놓고, 또 안 되는 게 있으면 되게 하는 것도 그 자리라 하고 돌려서 놓고, 자꾸자꾸 이렇게 해야 더 이해가 가고, 그렇게 마음공부를 하다보면 지나가다가 돌 한 짝을 발로 찼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스승인 줄을 알게 되고, 돌하고도 둘이 아닌 줄을 알도록 자꾸 그렇게 공부를 시켜주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다는 것을 믿으시고 꾸준히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밝게 안 보여…

문 스님, 저는 스물 아홉 살의 청년입니다. 사회초년생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이기심이나 뻔뻔함, 일반적인 견전한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보고 사회생활에 혐오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직장을 그만두고 칩거중입니다. 진정 이러한 곳에 저를 묻고 살기에는 정말 마음고생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들 적응하며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이런 세상의 작태들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고 삶이 구차하게만 느껴지는 걸까요? 이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하는 게 인간의 업일까요? 아니면 저만의 업일까요? 그렇다고 제 자신이 정말 깨끗한 인간이라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 대해 밝은 면이 보이지 않으니 막막하군요. 이런 게 세상이려니 하고 두 눈을 질끈 감고 그냥 살아야 하는 걸까요?

답 누구나가 다 세상이 흔쾌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 초년생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저것 부당한 것이 많겠지만 세월이 지나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모두들 모르고서 업식에 놀아나며 사는 모습에 애틋한 정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사람이 없으면 부처가 없고, 부처가 없으면 사람이 없다고 한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업식으로 뭉쳐진 중생들이 아니라면 우리가 움죽거릴 수가 없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부를 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을테니 말입니다. 그러니 중생과 부처가 어디 둘이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구더기의 마음을 먹었거나 짐승의 마음을 먹었다면, 지각이 없고 마음이 넓지 못해서 조그마한 소견으로 들입다 싸우고 증오하고, 사랑한답시고 남을 죽이고 그렇게들 살게 되겠죠.

세상의 부모들을 보십시오. 부모가 되려고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과 같이 전부, 티끌만큼도 남기지 않고 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보살로서 응할 수가 있고, 천백억화신으로서 들고 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냥 어버이가 되려고 애쓰지도 말고, 어버이가 안되려고 애쓰지도 말고 자식이 부모에게 다기대고 사는 그 믿음, 부모가 다 줄 수 있는 그 마음, 자비, 이런 것이 똘똘 뭉쳐서 그냥 오가면서 구르고 굴러서,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핵이 되고, 여러분의 불기둥이 되며, 그게 여러분의 불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뱃속에, 오장육부 세포에 들어 있는 업식으로 뭉쳐진 그 중생들이 아무리 거기다 대고 쪼아도, 어떠한 액난이라든가, 어떠한 업이라든가, 어떠한 병고라든가, 가난이라든가, 어떠한 것이 오더라도 속지 마시고, 그것은 내가 전자에 살 때 선과 악을 지은 업식으로써 모두 나에게 뭉쳐진 것이니까, 내 거기 속아서는 안된다 하고 어떠한 걸로 보이더라도, 어떠한 말이 들리더라도, 어떠한 생각이 나더라도, 무엇이든지 주인공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주인공만이 감사할 수 있고,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다 하고 관하는 겁니다.

또 주인공만이 나를 이끌어서 세세생생에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보립을 한다면, 그러고 뭉쳐 놓는다면, 과거 카셋트에 녹음했던 노래가 다 없어져도 현재에 넣는 새 노래가 또 들어가서 담기는 거나 같게 됩니다. 과거에 지은 인연이며 생각의 고리들을 녹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또 놓으면 또 없어지고, 항상 그릇은 비어 있어서 무엇이든지, 우주 삼라만상에 어떠한 거든지 다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고, 다 내뇌줘도 줄지 않는 그런 원통력을 스스로 얻어야 참인간으로 사는 본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의 주인공이 내 주인공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잘 끌고 다닐 거다 하고 믿고 맡겨놓을 때, 그리고 아주 속상해서 골이 보기 싫더라도 좋은 말을 해주고 부드러운 말을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어야 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데로 이끌어 준다면 따뜻한 데로 고이기 마련이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자리를 해준다면 바로 시원한 데로 앉을 것이고, 그러니까 언젠가는 모든 것이 다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내가 바뀌니까 그대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멋진 수행처가 될 수 있도록 내게 주어진 이 직장이라는 공부의 재료를 가지고 만가지 맛을 내서 융통성있게 자유자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남편이 술 많이 먹는데…

문 남편이 술을 아주 많이 먹습니다.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나가서는 상사들 눈치보랴 사는 것이 오죽 고달프면 저러겠나 싶어 많이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지나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선원을 알게 되어 이렇게 다니다 보니 그것이 자기가 그러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의식들이 난동을 부리는 거라 생각하니 더 진작에 마음을 내주지 못한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관하여 건강한 모습을 찾게끔 해주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답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기운이 세고 건강했어요. 그런데 회사를 경영하다가 아마 반 이상 잘못됐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될대로 돼라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될대로 돼라 이러고 술 마시고 이리저리 다니고 이러다가 자기 생각 자체가 그만 자기 몸뚱이의 의식들이 생각한 대로 그냥 막 곤드레만드레가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속에서 자기 소임 맡은 것을 제대로 해나가지 않는 거죠. 이쪽에서 술을 먹으니까 그쪽에서도 술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생들에게도 술을 먹이는 거죠?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요 입만 빌리고 식도만 빌려서 말입니다. 그러니 식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다 그냥 먹게 되고 위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먹게 되고 소장 대장 방광 뭐 간 쓸개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전부 다 먹게 되죠. 다 먹게 되니까 서로 다 취하는 거예요. 취해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보는 그 모습들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자기를 버려가더니 얼마 안 있다가 쇼크를 받아 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다 산다를 떠나서 자기를 자기가 지켜나가려면 자기 한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이 몸이 뭐냐 하면 혹성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기가 내 국토예요. 여러분의 국토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수화풍으로 바탕이 돼서 그 국토 안에 내 중생들이 많이 살고 있단 말입니다. 지구 안의 사람들처럼, 은하계의 별처럼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국토를 올바로 지키려면 한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서 망했다 하더라도 허허 하고 빙긋이 웃고 말입니다. '허, 이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사람이 나왔으면 사는 수가 있는 거지 뭘 그래!' 하고선 탁 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여한 마음, 그것이 살리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이 저리지 않게, 저 의식들이 다 한마음으로 돌아가게 이끌어,' 하고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그냥 믿고서 지켜보는 겁니다.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간다면 그 달구지의 짐이 말하자면 자기 과거의 짐인 셈이죠. 그래, 그 짐을 다 실었거든요. 그런데 달구지를 치는 거예요. 몸뚱이를 치는 거죠. 소를 쳐야할 건데 자꾸 달구지를 치는 거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달구질 친다고 해서 과거가 없어집니까, 소가 갑니까? 구르지를 못하고 달구지만 부서지죠.

그런 거와 같이 모두 자기 안에 자기 씨가 있고, 그 소는 바로 안에 있으니 소를 쳐야지 내 몸뚱이가 나라고 하고 나를 자꾸 볶아대면 달구지가 망가질 뿐이라는 것을 아시고 남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그 몸뚱이가 하는 것을 탓하고 그 몸뚱이를 막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마음의 근본과 통신하여 모든 것을 인의롭게 해나가라는 말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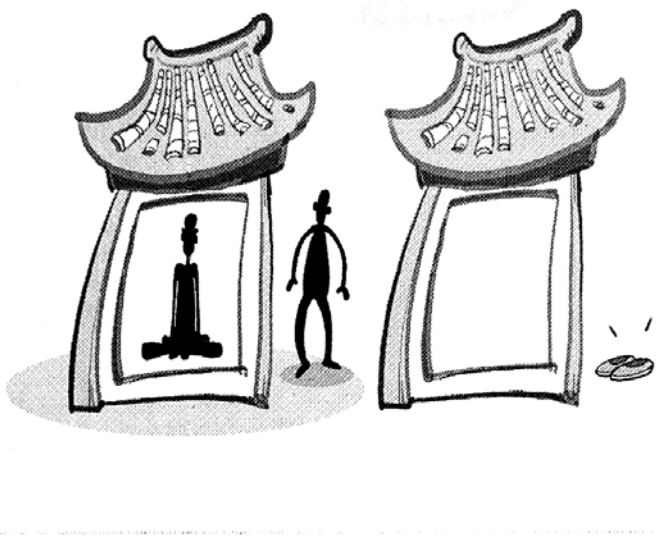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세상을 밝게 살아가려면

부드러운 말과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둘 아니게 본다면 사회가 멋진 수행처

남편 건강 찾아주고 싶어

'하늘이 무너져 망한다 해도 솟을 구멍은 있겠지' 하고 탁 놓을 수 있는 믿음 필요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심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불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 · 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양의학에 약재로 쓰는 나무의 액기스로 만든
대나무수액 시트
(우리대나무죽초시트)

발에 붙이면 건강해 집니다
마디식물대나무가
관절(마디)를 돕는다
발바닥은 인체반사구의
집합소 죽초가 목초보다
성분이 강하다
※ 불자님께 사은 선물
100매 구입시 W90,000
숯팔지 9미리 단주증정 (판매가 W45,000)
수량한정품
(보석같이 단단한 비장탄으로 깎은 수가공품)
(병을 고치려면 먼저독을 빼라 : 책증정)
숯을 전문연구개발하는
한국목탄연구소 02)925-0300
송금 조흥은행 359-03-004847

萬里四柱특강
- 변만리 선생 직강 및 약력
日刊 社會日報 주필, 月刊 陰陽과 韓方 社長
社會團體 韓國陰陽研究會長
현대 삼성 대우 롯데 선경 두산 동부 삼미 등
국내외 은행 및 400여처에서 동양철학과 건강관리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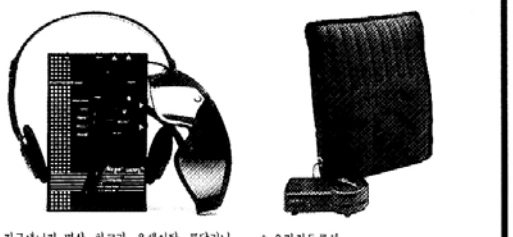
만리사주의 좋은점
시중의 중국사주는 10년을 공부해도 미완성이고, 어렵기만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주의 기본인 오행과 상생 상극을 글자대로 풀이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사주의 오행과 상생 상극, 격국과 신살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진리와 상생 위주로 사주와 운세를 종횡 무진으로 분석 판단하였습니다.
사주 공부가 어려우십니까? 만리사주를 배워보십시오.
40년 강의 경력과 노하우를 초보자도 알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주는 매우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학문입니다.
정확하게 핵심을 배워나간다면, 결코 어려운 학문은 아닙니다.

중요 목차 및 내용
- 육신 - 인물, 인격, 환경, 운명을 판단한다
- 왕쇠강약
- 부귀빈천의 사주
- 육친관계 보는법
- 궁합 보는 법
- 택일 하는 법
- 적성 직업 보는 법
- 인생의 대항로 대운 보는 법
- 12운성과 성격 보는 법
- 일년신수를 척척 보는 법
- 운명의 격동기 보는 법
- 당면문제 감정법 - 주택문제, 진학과 고시문제, 기억문제, 재판과 형사문제, 결혼과 이혼문제 외 다수

교재(5권) + 강의 테이프(총 60개) = 85만원
스님 및 포교사 할인판매 (만세력 프로그램 50% 할인 판매 함)
문 의 : **016-460-2378** (담당자 직통)
상세한 안내서와 견본테이프 무료 우송함
판매처 : 도서출판 한국음양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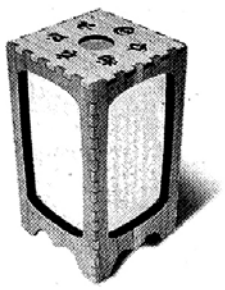
승복, 법복안내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여 항상 처음 이라는 자세로 변함없이 제품 생산 · 연구에 임하는 저희 업체에서는 부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고급 재질에 세련된 디자인으로서 저렴한 가격으로 스님 및 봉자님들을 모시고저 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많은 지도편달 바라며, 최선을 다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 에동승복 직원일동 -

바지 적삼 조끼 ■ 구김없이 세탁이 용이한 재질 W130,000 ■ 순면(무늬있는 먹물) W130,000
■ 마 W150,000
■ 모달사 W150,000
■ 모직 W130,000
두루막 ■ 마 W130,000 ■ 모달사 W140,000 ■ 모직 W120,000
중방 ■ 마 W130,000 ■ 모달사 W130,000 ■ 모직 W110,000
조끼 몸빼 W50,000
셔츠 라운드 차이나 W30,000
※ 장삼, 가사, 비단 및 기타의류는 맞춤주문 받습니다.
해동승복
대구 고속터미널 옆 동부정류장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 4동 399-1
TEL : 053)741-8131
FAX : 053)741-8132
H.P : 011)549-8130
※ 지역 대리점 모집

유체이탈, 쿤달리니 각성을 위한
"무시간" 상태경험
세계 최초 빛과 소리 에너지 전수법 -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
메가플러스 기본사양 / 강력한 효과를 위한 옵션

지구에너지 명상, 차크라, 유체이탈, 문달리니, 미간과 백회 차크라개발 에너지자이지, 기타 학습과 창의력 수면등 21개 프로그램 내장
(기본사양 본체, 녹색광안경, 헤드폰, 사용책자등/미국 마이크로펄싱)
* 오라진동루신 (미국 오라시스템사/중국OEM)
* 광안경(빨간색, 청색, 보라색, 순백색 /미국 마이크로펄싱)
* 다이내믹 고급 헤드폰 (미국 마이크로펄싱)
세계 유일한 듀얼 바이놀비트 시스템
* 메가플러스 명상기는 6개의 상쇠주파수를 동시에 전달시켜 주는 듀얼바이놀비트 시스템을 도입하여 완벽한 이완과 무시간 상태를 가능케 하는 가장 진보된 빛과 소리 기기입니다.
* 듀얼바이놀비트는 6개 상쇠주파수의 배합과 배치에 따라서 그 에너지 수준이 바뀌며, 빛과 소리 프로그래머의 체험을 말이나 문자가 아닌 에너지체로 전수시키는 방식입니다.
* 메가플러스의 빛과 소리 그리고 오라쿠선의 진동을 수동적으로 느끼고 즐기기만 하면 되며, 동시에 사고, 감정, 육체적 반응을 관조할 수 있어 빠른 시간 내에 무시간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기타 15~120분까지 시간조절가능, 5개론 변형(45개 프로그램 가능), 학습 및 창의력, 피로회복과 재충전, 불면증 용도로도 가능합니다.
※ 전화주시면 자세한 카다로그를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마인드테크 : (02) 888-2142

마하몰이 추천하는 추석선물

클릭! 한가위 준비 끝


◇반야심경등


◇보원향세트


◇해탈전경륜


◇매화석단주

한가위를 맞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 마련에 고심하고 있을 불자들에게 불교용품전문쇼핑몰 '마하몰'이 추천하는 상품을 소개한다. 인터넷으로 발품들이지 않고도 품격 있는 선물을 마련해보자.

스님들께는 너무 크거나 현란하지 않으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선물이 좋다.

사방에 사천왕상을 조각한 '사천왕등(燈)'과 반야심경을 새겨 넣은 '반야심경등'은 은은한 불빛에 조각을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실내 장식용으로도 좋다. 사천왕등 5만5천원, 반야심경등 5만원.

자단향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보원향, 만복침향 그리고 향꽃이가 오동나무 상자에 들어 있는 선물세트다. 6만원.

염주는 사부대중 모두에게 친숙한 불교용품이다. 까칠까칠한 갈색의 색감을 지닌 매화석으로 만든 단주는 9천원이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핸드폰에 불교의 향기를 더할 수 있는 만(卍)자 핸드폰 줄이나 핸드폰 목걸이, 안전운전을 기원하는 연꽃 차걸이 장식품은 저렴하면서도 불자임을 나타내줄 수 있는 상품이다. 4천원~7천원.

온 가족이 둘러 앉아 먹을 수 있는 전통한과도 좋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전문가

스님 화려하지 않은 마음의 선물을

재가자 신행생활에 필요한 용품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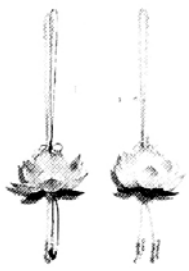
김연식 씨가 만든 정통 한과로 쑥·흑임자·땅콩·감자유과 등이 있다. 가격은 크기에 따라 3만원에서 10만원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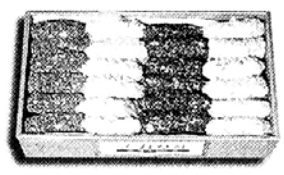
수험생이 있는 가정이라면 건강향기방석이나 기(氣)베개 등 수험생의 집중력을 높이고 피로를 풀어줄 수 있는 제품이 알맞다. 건강향기방석은 약초의 향기가 기분을 상쾌하게 하며 졸음방지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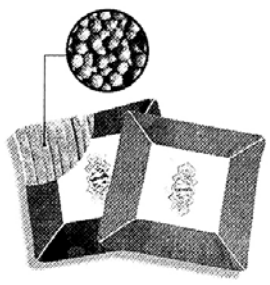
행운을 빌어주는 '순금아기부처카드'는 '달마', '연꽃', '일주문동자' 등의 캐릭터가 새겨져 있어 수험생 선물로 많이 판매된다. 카드는 1만 5천원, 목재 케이스에 포장된 것은 2만5천원이다.

문의는 홈페이지(www.mahamall.co.kr)나 전화(02-732-1520)를 이용하면 된다.

여성 담당=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연꽃 차걸이


◇산촌유과


◇건강 향기방석


◇순금연꽃카드



주부 신행담

내 삶에 주어진 인연 上

김필연 (불교여성개발원 복지위원장)

나는 어릴 때부터 절에 가는 것을 좋아했다.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부처님이 누구인지 잘 알지 못했지만, 삶이 힘겹게 느껴질 때면 마음의 안식을 찾아 절에 갔다. 절에 가면 언제나 부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는 듯 했다.

하지만 항상 내 뇌리를 떠나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면서도 왜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까?" 이런 의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 수덕사 견성암을 찾아갔다. 주지스님을 만나 뵙고 사람들은 의미 없이도 육 강의를 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죄를 지은 아이들에게 어떤 강의를 해야 하나, 무조건 선입견을 가졌다. 그러나 그들을 만나보니 다들 착하게 보이고 환경이 나빠서 죄를 짓게 되었고 전생의 업과 현재의 악연으로 연결되어서 수용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신교육 강의 중 어떤 수용자와 인연이 되어서 7년째 교화를 하고 있다. 이 수용자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녔다고 하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책 속에 있으니 공부를 하라

어떤 수용자와 인연 … 7년째 교도소 교화

대입검정고시합격 소식에 감격의 눈물

그냥 살아가는지, 아니면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무엇인지를 여쭈었다. 또한 나도 출가를 하면 안되겠느냐고 말씀드렸더니 가만히 듣고 계시던 스님께서 아가씨는 사회에 미련이 많으니 빨리 결혼이나 하라고 하셨다. 결혼을 해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고, 혼자 살아가면 무언가 부족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이해가 안되었지만 현실은 어쩔 수 없었다.

몇 년 후 좋은 인연이 나타나 결혼해 아들 하나를 두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 결혼을 해서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무언가 보람 있는 생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김천소년교도소에 정신교육 강의를 하고 있다. 이 수용자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까지만 학교를 다녔다고 하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책 속에 있으니 공부를 하라고 하여 4년 만에 대입검정고시까지 합격하여 합격증을 나에게 보내왔다.

나는 너무나 반가워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이 세상에 이보다 더 보람있는 일이 어디에 있을까? 지금은 원주교도소에 있다. 가끔 면회를 갔다오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모든 것이 전생의 업이라고 생각하니 정말로 세상을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홍서원에도 중생을 다 건지라고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무연고자를 아무도 찾아주지 않고 가정과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이들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그들을 보살펴주어야 하지 않는가? 그들이 나에게 주어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김천, 원주 교도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 (계속)

KOREA JODONG-JONG BUDDHISM HEADQUATERS · 한국조동종총본산 · 우리는불교공동체

서울市龍山區孝昌洞5-152
三角山元曉寺.효창공원후문
電話 02) 704 - 8065, 713 - 0475
FAX 02) 704 - 8064
홈페이지 www.jodong.org.kr

正法眼藏 正傳列世祖師奉供 入宗告由戒壇

韓國曹洞宗總本山創宗宣布文

-조계종과 조동종은 선종양대산맥이다-

海音騰了禪師·傳法表信偈
騰騰任運妙心宗
了了靈明自性通
海印發光含萬有
音聲如幻悟眞空

불기 2546년 9월 5일. 삼각산 원효사에서 한국조동종총본산 창종위원회는 정법안장(正法眼藏)정전열세조사(正傳列世祖師) 봉공(奉供). 입종고유계단(入宗告由戒壇)을 개설하고, 불기 2545년 9월 4일. 수미산문(須彌山門)의 조정(祖庭)인 중국 운거산 진여사(雲居山眞如寺)에서 조동종 49세로부터 전수한 제 50세(금선학봉)의 사법(嗣法) 계승 절차에 따라 단절되었던 조동선맥(曹洞禪脈)을 복원하고 한국조동종총본산 창종을 선포하였다. 이고유계단은 비구삼의(比丘三義)와 높은 법계를 지닌 수승한 사문들의 입종예우로 동반 50세의 원사(遠嗣)를 청하고, 51세 입실(入室)수계법요를 조동가풍현리(曹洞家風玄理)인 정편오위(正偏五位)와 조동 49세 사장(師將) 해음등료(海音騰了)선사의 전법표신게송(傳法表信偈頌)을 수지독송하고, 입종, 입실자등이 수단입보(收單入譜)된 조동종정전법계보(曹洞宗正傳法系譜) 및 계접(戒牒)을 배포했다.

석가세존께서 정법안장(正法眼藏)과 열반묘심(涅槃妙心)의 법을 가섭존자(迦葉尊者)에게 부촉(付囑)한 이래, 보리달마(菩提達磨)께서 동토(東土)에 도래하여 숭산소림사(嵩山少林寺)에서 구년면벽(九年面壁)을 마치고 선종(禪宗)이 개창(開創)되니 사(師)는 西天 28조, 동토(東土) 초조(初祖)이시다.

불입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의 종지(宗旨)가 발상지로부터 중국에 처음 전래되어 이조혜가(二祖慧可)에게 전법부촉하고, 삼조승찬(三祖僧璨)→사조도신(四祖道信)→오조홍인(五祖弘忍)→육조혜능(六祖慧能)으로 계승되었으며, 육조후대 법손들에 의해 선가오종(禪家五宗)이 창종되었다.

①육조의 상수제자(上首弟子)인 청원행사(靑原行思)하 석두희천(石頭希遷)→약산유엄(藥山惟儼)→운암담성(雲巖曇成)의 법을이어 6세손 동산양개(洞山良价)는 조동종(曹洞宗)을, ②남악(南嶽)하 마조(馬祖)→백장(百丈)→황벽(黃蘗)의 법을이어 6세손 임제의현(臨濟義玄)은 임제종(臨濟宗)을, ③남악하 마조→백장의 법을이어 5세손 위산영우(潙山靈祐)는 위앙종(潙仰宗)을, ④청원하 석두→천황(天皇)→용담(龍潭)→덕산(德山)→설봉(雪峰)의 법을이어 8세손 운문문언(雲門文偃)은 운문종(雲門宗)을, ⑤청원하 석두→천황→용담→덕산→설봉→현사(玄沙)→지장(地藏)의 법을이어 10세손 법안문익(法眼文益)은 법안종(法眼宗)을 창종하였다. 이로서 정법안장의 선종시대가 열리고 일화오엽(一花五葉 : 달마에언) 정법유방(正法流芳) 선풍(禪風)이 크게 떨치기 시작했다.

조계종(曹溪宗)과 조동종(曹洞宗)은 선종양대산맥으로 조계종은 南嶽하 馬祖→百丈→黃蘗→臨濟→興化→南院→風穴→首山→汾陽→慈明→楊岐→白雲→五祖→圓悟→虎丘→應庵→破庵→及庵→石屋→太古의 법계순으로 臨濟宗을 거쳐 내려온 南嶽派禪脈이고 韓國曹洞宗은 靑原하 石頭→藥山→雲巖→洞山良价→曹山本寂→雲居道膺→同安道丕→同安觀志→梁山緣觀→大陽警玄→投子義靑→芙蓉道楷→丹霞子淳→眞歇淸了→天童宗珏→雪竇智鑑→天童如淨→鹿門自覺→靑草辨→大明僧寶→玉山師體→雪巖慧滿→萬松行秀→雪庭福裕→靈隱文泰→還源裕過→淳拙文才→松庭子儼→凝然了改→俱空契斌→無方可從→月舟文載→水山宗鏡→廓山常忠→無明慧經→永覺元賢→爲霖道霈→恒濤大心→遍照興隆→淸凉法源→東陽界初→道源一信→繼雲鼎鞳→增輝新灼→圓智通完→能持天性→雲程兼忍→奇量徹繁→妙蓮地華→鼎峰耀成→虛雲古岩→傳士復湛→海音騰了의 법계순으로 내려온 靑原派禪脈으로 서천(西天) 86세, 동토(東土) 59세, 조동(曹洞) 49세이다.

나말여초(羅末麗初)에 신라입당승(新羅入唐僧)들이 열개(列開)한 구산선문(九山禪門) 중 맨마지막에 개산(931년)한 황해도해주의 수미산(須彌山) 광조사(廣照寺)가 조동선문(曹洞禪門)으로 조동종 제2조 운거도응(雲居道膺)선사 회하(會下)에 참학심인(參學心印)한 고려 이엄진철(利嚴眞徹)선사가 개조(開祖)이시다.

당대 운거도응선사의 회상에는 입당승중사무외대사(四無畏大師)라 일컷는 형미(逈微), 경유(敬猷), 여엄(麗嚴), 운주(雲住), 혜(慧), 소산광인(疎山匡仁)의 제자 경보(慶甫)등이 있었다.

이엄진철선사는 처광(處光)도인(道忍)등 다섯제자와 조동선풍을 선양하였다.

고려조의 교세쇠미(敎勢衰微)로 선맥은 명멸되었으나 고려조의 일연(一然), 이조의 설잠(雪岑), 매월당 김시습 등이 저술한 조동선의 현리(玄理)인 정편오위(正偏五位)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등의 전적(典籍)은 조선말 한용운(韓龍雲)선사대까지 이어오고있다.

임제의 대혜종고(大慧宗杲)선사의 간화선(看話禪)과 10세기 경 같은 시기에 태동한 조동종의 굉지정각(宏智正覺)선사의 묵조선(默照禪)은 조계·조동종의 양대선풍(兩大禪風)이자 원오극근(圓悟克勤)선사의 벽암록(碧巖錄)과 조동종 만송행수(萬松行秀)선사의 종용록(從容錄)은 양대선적(兩大禪籍)이다. 천칠백공안은 양대선맥조사들이 일궈낸 일대장관으로 조계종(임제)를 빼고 조동종을 말할 수 없고, 조동종을 빼고 조계종을 말할수 없다. 한국선종사에 일천여년간 단절된 조동선맥의 실종은 간화선(看話禪)만존속되고 조동선(曹洞禪, 묵조선)을 폄하해왔다. 이제 본종은 전래된 조동종명(曹洞宗名)을 공칭하고 종헌(宗憲)을 제정하여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하고 혜명(慧命)을 사속(嗣續)하여 정혜쌍수(定慧雙修)와 이사무애(理事無碍) 선교병립(禪敎竝立)의 교의(敎義)를 실천할것이며, 조동선의 특장인 순선(純禪) 생활선풍(生活禪風)을 이르켜 대승불교(大乘佛敎)의 성불도생(成佛度生)에 기여하려한다.

한국조동종은 불기 2545년 5월 4일, 수미산(須彌山)의 조정(祖庭)인 중국, 운거산진여사(雲居山眞如寺)에서 조동종제 49세 해음등료(海音騰了)선사를 사장(師將)으로 사법계승(嗣法繼承)한 제50세 금선학봉(今禪鶴峰)으로 하여금 단절된 조동선맥을 복원하고 한국조동종총본산창종을 선포한다. 창종대의 세수(世數)는 서천(西天) 87세 동토(東土) 60세, 조동(曹洞) 50세부터 기산(起算)한다.

證 明
一誠衍心 중국운거산진여사 방장

師 將
海音騰了 조동종주 · 조동제 49세

●창종위원장
금선학봉(今禪鶴峰) 50세. 총무원장

●창종위원
월전금당 (月田金堂) 조동선학원.개강주
달제지운 (怛帝智雲) 양평추읍산금강사
실상자원 (實相慈元) 서울우면산보광사
덕운정민 (德雲正敏) 부산해운대폭포사
고경수경 (古鏡修鏡) 서산상왕산지장사
남당효진 (南堂曉眞) 남해망치산도강암
청원석룡 (靑原石龍) 계룡산대원선원
서광청산 (瑞光靑山) 제천용두산옥룡사
도림청월 (道林靑月) 정선법보선원
묵조도인 (默照道忍) 아산모산금강선원
일우법경 (日佑法鏡) 일산금당선원
법상영공 (法相永空) 김해시산정암사
법성태영 (法性泰榮) 남한산수인정사
법천청운 (法泉淸雲) 진주금옥사
일탄행호 (日呑行昊) 삼각산원효사
보현일현 (普賢日賢) 삼각산원효사
보광일도 (普光日度) 포항천광선원
무착등흥 (無塵騰興) 논산극락선원.비구니
문수보성 (文殊寶聖) 논산극락선원.비구니
일허법정 (日虛法頂) 온양안심사
정원태허 (靜園太虛) 서울중랑구선은사
선행선혜 (善行宣慧) 횡성죽림산해심사
원담혜심 (圓潭慧心) 조동선학원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구인 · 구직 규격 50.000원 / 일반업체 규격 7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737-8881 (代)
· FAX : 02) 737-0697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전북 부안 변산반도
063)583-7281
063)583-7284

사무도 함께 보실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2)487-8500
02)475-8600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스님을 모십니다
(공기 맑고 숲이있는 조용한 도량입니다)
053)585-0450

제의식, 불공 등 임시로 스님 필요한 곳은 연락 바랍니다
055) 387-0361
016) 428-6665

행자 및 수행하실 분
위빠싸나 참선수행
(불가기공, 도가기공, 양생기공)
051)264-9621
011)577-7600

기도스님과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관음도량 기도 공부
수양하실분
011)855-1116
055)552-7979

♣보리수♣
취급 품목 | 각종 수입향 염주 불교악세사리 광약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 80호
전화 : 778-5345
팩 스 : 777-1917
핸드폰 : 017-231-5345

심야전기 온돌
▸전기온돌은 우리전통의 온돌방식을 심야전기를 이용하여 현대화한 바닥 난방방식으로 따끈하게 데운 방바닥의 열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유지합니다.
▸보일러실이 필요없고, 난방비는 기름값의 30%
● 축열식 전기 온수기
● 축열식 전기 보일러
● 축열식 전기 온풍기
● 원적외선 전기 온풍기
● 온수식 온돌 판넬
설계시공 A/S 상담
환전승인업체
남강기전 02) 338-0400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후원회 모집안내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은 2002년 8월 5일(2개월 과정)부터 개강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 포교 활동과 지역사회복지·보건을 위한 전문간병인 양성교육기관으로, 본 이념에 뜻을 같이 하고자하는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제 2기 수강생을 수시 접수 합
후원회 법보시 입금계좌번호
▸대구은행 006-05-003306-1 ▸조흥은행 802-04-483739 (자비간병인 교육대학)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2동 531 ●전화 : 053-255-7573, 7583
대한불교조계종 자비간병인 교육대학장 합장

동성불교사
개금·천불·범종·동불전문
代表 李相萬 법명:보환
TEL : 031)575-2532
FAX : 031)575-2647
자 택 : 031)563-8733
031)563-8771
H·P : 011)255-328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 경북 경주
054)748-3530

사찰건립에 도움을 주실 분 전화주십시오
● 절지을 땅(안동시 임야) 3000평 있습니다.
● 절건립에 동참하실 스님 또는 보시, 불사, 시주하실 분을 기다립니다.
● 절건립을 도와주실(부수,미장공)기타 처사, 보살(공양주)께서도 전화주십시오
천불사 승려일동 드림
054)856-4804

천도의식·불공 안택 등
임시로 스님이 필요한 곳은 연락바랍니다
055)336-5691

비구니 스님이 될 사람을 모집합니다
행자교육 3년이 지나야 스님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격 : 중학교 졸업자 이상
▷나 이 : 40대 미만
대한불교조계종 충남 청양군 운박산 몽정사
041)942-1525
011)9820-5666

◇ 구운 마늘환 ◇
- 100% 토종 육쪽 마늘 -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효능
- 심한피로 / 정력강화
- 간기능 획기적 개선
- 혈압/혈당치를 낮추고 장 변비 개선
- 손발냉증, 피부 고와짐
- 감기에 강한 체질로
동양물산 080-375-7575

사 찰 안 내
● 위치 : 남양주시
● 대지 : 65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90평
● 양도 : 10억
● 역사깊은 전통사찰임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7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양도 : 10억
● 산세좋고 계곡좋음 차량진입 가능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2) 561-7791/011)530-1975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분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 및 천도재 등 각종 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41)571-1112~3
016)9414-1525

포교원 안내
● 인천 부평구청 전철역 5분거리 4층 건물 중 (3층) 34평
● 법당, 주방, 주지실, 화장실 별도
● 삼존불, 지장보살, 신중탱화 영단, 앰프시설 불기 일체
● 전세 2000만원, 월 15만원 시설비 : 1200만원(답사후 절충가능)
032)521-1717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 대지 : 300평, 법당 8평, 요사채 40평
● 가액 : 1억 7천만원
055)744-2167
011)541-8420

사찰(급)안내
● 위치 : 서울 고찰
● 구교지임대 : 약 700평
● 법당 : 35평 ● 요사 : 40평
● 가액 : 5억
※ 전국 사찰 임지 양도 양수 하실 분 전화상담 환영 부전스님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역학 수강생 모집
■ 과목 : 사주, 작명, 신수, 궁합, 택일, 육효, 대정작괘법 관상, 풍수지리
■ 기간 : 수시모집
■ 강사 : 30년간 청운역학원을 경영하고 있는 청운 엄운문선생이 직접 강의합니다.
※ 교재는 이석영선생저서 사주첩경으로 강의합니다.
저 서 명학비해격국용신론을 위시로 30여권을 저술 하였음
안국동 한국일보옆 청운역학원 02)723-7449/011)9638-822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 산내면
● 대지 : 39,000평
● 법당 : 15평(창건 50년)
● 요사채 : 20평
● 가액 : 1억 2천
※경주 건천인터체인지에서 30분거리
※버스도로에서 3km산속에 위치
● 위치 : 사천 곤양
● 대지 : 약 7,500평
● 법당 : 24평 ● 삼성각 : 8평
● 요사채 : 40평 ● 주지실 : 17평
● 가액 : 3억 5천
※ 곤양 IC에서 10Km(교통편리)
※ 종교용지 878평, 완벽한 풍수
부산 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 컨설팅(양도, 인수허실 스님 상담환영, 절대 보안유지)
佛國불사 018-563-9575 (홈페이지 www.pungsu-serve.com)

포교당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방학동 761 강북 중심상가(신동아A.P.T) 단지 옆 아파트 밀집지역
● 건평 : 4층건물에 3층 35평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80만원
● 시설 : 삼존불, 신중, 지장, 탱화모심 특 A급, 스님해외발령
02)955-6411
011)289-0476

사찰부지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아래 명당 자리 도로에서 200m안 골
● 부지 : 175평(하천 부지 임야 220평 사용)
● 가액 : 3500만원
● 특징 : 진입로 有, 터정리 완료 시내에서 10분거리 암자나 산당 터 최적지
033)553-6860
011)368-7653

사찰(급)안내
● 위치 : 심천포 앞바다가 멀리서 희미 보이고 좌청룡 우백호가 뚜렷하고 약수물이 많이 나오는 청정도량임
● 부지 : 약 3000평(준능림지) 중
● 법당 : 27평, 요사채 : 약 50평(스라브)
● 주지실 : 12평, 삼성각 : 16평(목조)
● 가액 : 3억 7천만원
※ 복지시설도 하기 좋은 산세좋은 도량 임대형차량 진입 됨(주차장 약 200평)
016)207-5600

사찰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전통한옥사찰 최고요지
● 대지 : 78평, 건평 60평, 중 대중전 23평 석자 삼신불 후불옥금탱화 100평, 칠성 독금탱화 60평, 신중독금탱화 60평
● 홍송 삼단 법단 특급시설일체
● 큰방 2개 별채 방2개
● 주지실 : 12평, 삼성각 16평(목조)
● 가액 : 3억 7천만원
● 즉시법회 창건을 원하시는 스님 비구니 스님 보살님께서는 연락바람 팀사 후 결정
011)650-8481
063)285-6464

역학풍수지리강좌
■ 역학 : 사주초급, 중급, 고급반 대운과 용신법
■ 양택 : 풍수 인테리어, 음양오행, 길흉화복법
■ 음택 : 패철법, 실전감정법, 명당답사
본협회의 서적과 패철 교보문고, 영풍문고 전찬 판매 중
자격증, 회원증 발부 오전, 오후반 수시 모집 中
각 시 도 지부모집 http://www.ps21c.com
사단법인한국자연지리협회
☎ (02)929-1188, 922-1553
지하철 1호선 제기역 1번 출구 바로 앞 금성빌딩 2층 203

사 찰 안 내 - 포교당 -
• 위치 : 진주지역
• 법 당 : 15평
• 요 사 : 38평
• 부 지 : 466평
• 가 액 : 2억 5천
• 위치 : 부산
• 법 당 : 23평
• 요 사 : 50평
• 부 지 : 166평
• 가 액 : 3억7천
• 위치 : 인천지역
• 법 당 및 요사 : 120평
• 임대료 : 6000/150
• 시설비 : 1억 2천 사용 (시설비 절충가능)
즉시 법회 가능, 시설특급
※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 998-1994/011) 713-5634

사찰안내
● 위치 : 남원시 소재
● 대지 : 120평(실사용 200평 이상)
● 법당 : 약 30평, 요사채
(스님전용방 3칸, 욕실 1칸, 신도방 3칸) 공양실 1동(공양주 방 1칸)
아담한 사찰 (비구 비구니스님 적합함)
● 주차장 완비 ● 가액 : 7천5백만원
016)850-8778

포교당 안내
● 의치 : 경남 김해시 내동 3층 건물 중 3층 '신축' (법당자리)
● 건평 : 60평
● 보증금 : 4000만원
월세 : 40만원
전세가능 가액 : 7000만원
현장 방문 후 가액 조절
017)845-7090

포교원(급)안내
● 위치 : 김해 최고 요지
● 법당, 삼존불, 지장, 산신, 용왕, 지장 소불108불, 영가단, 후불흙탱화, 신중탱화, 지장탱화, 산신탱화, 용왕탱화
● 평수 : 3층, 50평 방 3개, 주방, 샤워실, 주차장완비
● 가액 : 전세 3천만원, 월 47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 2000만원
017)556-5691

포교당 안내
● 위치 : 동작구 사당동 (7호선 남성역 1번출구에서 약 500 m)
● 평수 : 약 35평
● 특징 : 아미타 주불, 신중탱화 모셔져있음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 답사 후 결정
02)598-1326

탈 종 공 고
○ 종 단 : 미륵 용화종 ○ 사찰명 : 방생사
○ 법 명 : 성 공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2002.9.2부로 탈종을 공고 합니다.
미륵 용화종 총무원장 법하

권대창불교건축 권대창목재
• 사찰대웅전-건축
• 고건축 시공
• 문화재 복원개보수 업체
• 한옥(전통한식)
• 황토방 시공
• 불사하실 스님 상담환영
공장 054) 781-4989
H P 016)768-4324
011) 246-2210
• 태백산(울진, 봉화)지역의 적송 춘양목
▲연목 : 12자 ~ 24자까지 5치 ~ 8치
▲원목 : 9자 : 1자 - 2자 2치, 12자 : 1자 - 2치
▲기둥 : 18자 : 1자 - 1자 8치
▲도리 : 20자 : 1자 - 1자 8치, 24자 : 1자 - 7치
▲보감 : 24자, 30자, 36자, 42자 : 1자 ~ 2자까지
(주)대창종합개발 이중봉 합장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도봉구 도봉동 소재 6층 건물 2층
● 건평 : 110평, 법당 : 70평
● 방 3개, 주방, 식당, 세면실 완비
● 가액 : 9000만원, 월 180만원
시설비 : 5000만원
02)3494-6441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태백시 태백산 下
● 대지 : 86평 건물 입법당 요사채
● 산신각 약사전 용왕각 지장전 각 별도로 되있음
● 가액 : 9500만원
● 특징 : 도로변 명당터, 건물뒤 동굴이 있어 여름 잔바람 1위
033)553-6870
018)762-0134

포교당안내
● 위치 : 대전시 서구 도마동 2층 복채 40평
● 방 2개, 화장실 2개, 부엌 1개 법당, 상담실, 공양간
● 가액 : 보증금 3000만원 월 15만원
● 시설물 : 석가모니일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불기 목기 연등 기타 살림도구 일체
● 권리금 400만원, 가격절충
016)294-5264

사찰안내
●위치 : 충남 덕산 옆
●평수 : 법당 관음전 7평 임법당 30평(목조 새건축)단청완료
●대지 : 640평
●70년 전통의 물좋고 산세수려, 포장도로 완료, 최신식 시설 완비
●가액 : 1억 8천만원
011)401-5206
041)337-1206

易 수강생 모집
무료공개강좌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듣기만 해도 암기 됨, 감명비법공개
◆ 주야,주말반 : 초보에서 전문까지
◆ 특강반 (법당·포교원운영·스님·법사)
◆ 사주로 영가찾는 법 등
◆ 개운법, 영가·조상천도 상담환영
☎ 02)2236-2284 (2,6호선 신당역)

사찰안내
●위치 : 함남 함양군 안의면 부근
●건물 : 최신건물로 대지 100평 건물 30평 텃밭 500평 임법당 법당 방 2개 욕실 2 주방 1 난방심야전기
●가액 : 1억 2천(절충가능)
011)429-6059
032)876-2248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갈담리
● 법당 : 40평, 3존불(3.5자) 후불 탱화, 신중, 산신, 칠성, 독성탱화, 다다미 마루, 방2칸, 부엌 1칸
● 가액 : 5천만원(상담절충가능)
011-735-9178

사찰부지안내
● 서울 관악산 10,000평
● 용도 : 사찰 및 복지시설
● 평당 : 25만원
● 경기도 이천 땅 5천평
● 평당 2만원
011)241-0408

사찰 안내
●위치 : 노원구 수락산 부근 전철역에서 3분거리
●부지 : 약 320평
●평수 : 건물 45평 법당 20평 방 3개 차량 주차 10대
●가액 : 2억 5천만원
011)9756-4845

토굴 안내
● 위치 : 안동시 시청에서 5분거리
● 평수 : 20평, 방3개, 주방, 거실, 욕실(기와집)
● 특징 : 삼면이 산으로 되어있음 수행처 및 절집 가능
● 주차 : 바로 집앞 120평
● 텃밭 : 150평(일년도지 5만원)
● 가액 : 전세 6백(시설비 약간)
054)855-0109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 160평
● 법당 : 목조 20평 단청필
● 요사채 : 20평 1동, 10평 1동
● 가액 : 7천만원(전세 가함)
● 주지스님 급한사정으로 구입가양도
055)973-2269

연꽃 그림에 부처님 말씀을 담아드립니다.
한지에 수묵담채화(미표구)
크기 : 소·중·대·특대 병풍 부채
각종 보시용 · 선물용 · 봉안식용
전화주문후 계좌송금 확인 즉시 작업착수 등기 송달
● 입금계좌 : 우체국 703496-02-083632
● 견본참조 : www.jeongpung.co.kr
연꽃 053)381-5698
화가 018)588-569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고삼면 소재
● 부지 : 80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신축)
● 가액 : 4억 4천만원
● 특징 : 천년고찰터에 신축으로 조성된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위치 : 충북 괴산군 청안면 소재
● 부지 : 약 500평(종교용지)
● 법당 : 30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60평
● 가액 : 3억원
● 특징 : 신라시대동불(보물급)이 있는 사찰로 포교와 기도도량으로 좋습니다.
▷ 사찰, 절터, 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좋은 인연됩시다 -
동진불사
서울 ☎ 02)326-1060
대구 ☎ 053)754-0454
H·P 018)689-0455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광양읍 위치 서산사
● 법당 : 30평
● 요사채: 25평(2동)
● 대지, 임야 : 5000평
● 가액 : 1억9천(가액조정가능)
● 만약 증축시 70평 가능함
011)9457-6954

사찰 안내
● 대지 : 192평
● 요사채 : 70평, 법당 : 20평
● 방 6개, 욕실 2개
● 주방 3개, 거실 3개
● 법당 단청했음, 미륵부처님 모셨음, 산세 수려함, 큰스님 병환으로 급매
● 입진장 앞이 보이고 자유로 앞에 있음
● 가액 : 3억 2천, 답사후 결정
031)952-7905

사찰 안내
●위치 : 계룡신도시 아파트 3만세대 밀집지역
●대지 : 150평
●건평 : 99평(법당, 요사, 식당) 3층건물
●특징 : 현재법당 불사 중 심야보일러
●가액 : 3억 1천만원
011)436-7529

토굴(터)안내
● 위치 : 경북 봉화군 춘양면 백두대간, 산세좋고 전망좋은
● 밭1991평, 터정리 완료 (불사가능)
● 토굴은 블럭으로 조성
● 방 1, 부엌 1(재래식)
● 가액 : 5천만원
011)9542-2537

사찰양도안내
• 부지(종교용지) : 2013坪 • 法堂 : 13평
• 요사채 : 20坪 • 매가 : 8억 5천만원 • 위치 : 서해안
• 특징 : 1. 1400년된 전통사찰(사지)
2. 마이여래불(지방문화재로 지정 조성연대 고려말로 추정)
3. 암반약수(수량풍부) 4. 자동차 진입 가능
5. 천혜의 자연 경관과 우람한 바위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으며 좌청용 우백호가 뚜렷한 대찰터임
6. 지방 문화재 보전 사업비 지원 사찰임
사찰정보센터 : 금강기획 02)736-3578~9 011)789-2255

남 활법사·지부장모집 여
교육기간
• 정규반 - 16주(1주 3시간)총 48시간 • 속성반 - 4박 5일(1일 8시간) 총40시간
교육후 필기외 실기시험을 통과하여 합격의 자격증을 부여합니다. 속식제공(단 1명이라도 교육함)
교육내용
1. 활법기초이론(해부학, 생리학) 2. 활법교정술(경추, 흉추, 요추) 3. 스포츠 마사지교육 4. 기공술 6. 운동회복법(저항운동법) 9. 내장부활운동법 10. 발관리교육
※ 한번회원이 되면 평생회원이 되며 3개월에 한번씩 세미나를 개최함.
※ 중국안마(추나)자격 취득 : 12월 10일 출발 7박 8일간. (현재 접수 중)
※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서 우송해드립니다.
세계건강활법협회 본부인수원 054)855-6461 02)2212-8815, 011)522-1122
http://www.hwalbup.or.kr E-mail wooh57kr@yahoo.co.kr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합천 삼가
● 법당: 25평, 요사 : 30평, 20평
● 특징 : 용왕당 자연수
● 대지 : 250평
● 가액 : 답사 후 절충
016)421-9154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도원동
● 건물 : 3층 건물 2층(40평)
● 석가모니불, 소불 108불 지장, 신중탱화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50만원)
● 시설비 : 2000만원(절충가능) 보광사
053)636-9306
011)9598-4193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부지 : 2000평
● 대지 : 420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5평
● 가액 : 2억 5천만원
● 전세 : 5000만원
016)868-5517

사찰안내
● 위치 : 평택시 지산동 우곡마을
● 대지 : 임법당(한옥) 약 70평
● 특징 : 뒤에 산이 있고 산밑에 위치 아미타불과 양계보살 모셔져 있음
● 월세 : 500만원 월 25만원
017)201-1794
031)667-3007

사찰 안내
● 위치 : 서부 경남
● 평수 : 총 210평
● 법당 : 20평 요사 : 15평
● 화장실, 수세식, 목욕탕
● 주차완비 국도에서 300m
● 주지스님 이동시에 축원카드 등 일체를 일임 함
017)552-7350

포교당 안내
● 삼존불 후불 신중 지장 산신 칠성탱화
● 3층건물에 2층 20평 법당15평 스님방 5평 주방시설완비
● 수원역5분거리 수원도청입구 대로변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35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9)319-5954
02)388-1597

불교 이래서 좋다

정혜경 성북노인복지관 간호사

"함께하는 삶의 기쁨 느껴"



불교와 내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갔던 진각종 심인당은 내 유년시절의 놀이터였다. 마음껏 뛰놀며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었던 그곳. 그곳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언제나 포근하고 넉넉한 공간이었다.

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고민의 순간도 있었다.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천태종 등 헤아릴 수도 없이 나누어진 불교 종단 때문이었다. 부처님의 법을 따르고 부처님의 법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왜 나누어져 화합하지 못할까. 이것은 늘 나를 따라다니면 의문이었다.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 동안에는 남모를 고민을 하며 밤을 새운 적도 많았다. 자타불이, 너와 내가 없다더니 현실은 그와 정반대이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발버둥쳤다.

이런 나에게 한 가닥 광명이 비쳐왔다. 그것은 푸른 눈을 가진 미국인 현각스님이 쓴 〈만행〉. 천주교와 불교, 예수와 부처, 서양과 동양을 넘어서서 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 스님의 질문은 내 방황을 잠재우는 계기가 됐다.

조계종, 진각종의 나눔이 중요하지 않구나. 불교와 천주교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구나. 결국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 참 불제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한때의 방황은 방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불교는 이웃종교들을 비방하거나 외면하지 않는다. 불자들은 신념이 다른 사람들과 싸우지 않는다. 불교는 이웃과 사이좋게 살아가는 종교인 것이다. 이런 불교의 너그러운 포용성은 내 삶의 중요한 방향타다. 일상의 바쁜 와중에도 내가 괴로울 때 남의 괴로움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기쁠 때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 때문이다.

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인기'

부산→ 양정, 서울→ 목동, 청주→ 디지털 상담실 대표적

"저는 고3 수험생인데…, 날이 갈수록 야한 생각이 많이 나서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에는 자위인지 몽정인지 모를 정도였어요. 미치겠습니다. 어떡하지요?" 도와주세요!"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상담실 게시판에서)



◇지난 8월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이 마련한 '또래상담' 프로그램. 참가한 청소년들이 '난 이런 사람이예요'란 주제로 자신의 이야기를 발표하고 있다.

성문제부터 대인관계, 학업진로, 학교 부적응 문제까지. 청소년들의 고민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상담실이 올 상반기 상담건수 334건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학업 및 진로고민 112건(33.5%), 성·이성 문제 103건(30.8%), 학교부적응 85건(25.4%), 기타 34건(10.3%)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고민을 속 시원히 풀어주고 있는 불교계 청소년시설의 상담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표적 시설 3곳을 소개한다.

●부산 양정청소년수련관: 10월 5일부터 12월까지 '학업중단 청소년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교 중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 프로그램은 집단상담, 적성·진로 탐색 캠프 등 다양하게 진행된다. 또 말 못할 사연을 연극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도 있다. '청소년 심리극'으로 사이코드라마 기법을 이용한 이 프로그램은 매년 분기별로 실하는데, 특히 성·이성, 집안 문제 등 주제별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밖에도 수련관 상담실은 전화 온라인 등을 통한 개인 및 집단 상담 활동을 비롯해 MBTI(성격유형), 학습습관, 진로, 적성 등의 심리검사, 청소년 성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상담시간은 매주 월~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51)868-0950

●서울 목동청소년수련관: 매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학습방법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학습방법의 어려운 문제들을 자신이 직접 파악하고, 알맞은 구체적인 학습방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월 1일에 문을 연다. 또 이성관계, 성 문제 등에서 겪는 어려움을 '또래집단' 속에서 해결하려는 '청소년집단상담' 프로그램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 이밖에 자녀의 성격이나 습관 등의 바른 이해를 위한 '부모역할 훈련', 타인과 원활한 관계 형성을 위한 '자기표현 훈련' 등의 프로그램이 각각 진행된다. (02)2646-8341

●청주 관음사 부설 디지털청소년 열린 상담실: 99년 10월에 문을 연 사이버 청소년상담실로 소년소녀가장 및 결손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컴퓨터 강좌, 음악 감상법, 방과후 공부방 등을 연중 계속 운영, 청소년 종합 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043)257-0807

청소년 심리극, 사이버 상담 등 진행
학업 · 진로고민 상담건수 가장 많아

청소년 담당=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대불청 서울지구, 청년대회 개최

170명 참가…거리캠페인 등 대중포교의 장 마련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지구장 조영규)는 8일 서울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서 제16차 대불청 서울지구 불교청년대회를 열었다.

'청년불자 서원이 시민과 함께 하는 실천으로'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대회는 봉은사, 화계사, 도선사, 구룡사, 용화사 등 서울지구 산하 9개 지회 청년회 회원 170여명이 참석, 청년불자 화합의 한마당을 펼쳤다.

길상사 청년회 회원의 수계법회를 시작으로 열린 서울지구 불청대회에서는 보시행과 자리이타 행의 마음을 실천하는 장기기증 및 장묘문화개선 캠페인을 비롯해 연꽃 컵등 만들기, 부처님 수인 그리기, 불(佛)자 써보기, 풍물패의 문화공연 등 거리포교행사가 인사동 남인사동 마당에서 다채롭게 진행됐다. 특히 길상사에서 종로, 인사동까지 벌인 '북한산살리기 거리캠페인' 활동에서 서울지구 청년회 회원들은 거리 시민들에게 북한산 국립공원 관통터널의 불합리한 점을 홍보하는 등 청년불자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함께 사회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대중적 포교운동의 장을 마련했다.



◇8일 청년불자들이 종로 및 인사동 일대에서 '북한산 살리기 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대불청 서울지구 조영규 회장은 "믿음과 수행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신행동체(信行同體)의 청년불자상 모색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 사회문제에까지 앞장서는 청년불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소년 단신

비로자나協, '수요 영화감상회'
25일까지 아리랑아트홀

비로자나 청소년협회(회장 혜명)는 매주 수요일 오후 2·4시부터 미아리 소극장 아리랑아트홀에서 중고생 1백50명을 대상으로 '수요 무료 영화 감상회'를 연다. 11일은 블레이드2, 오션스이레븐, 18일은 몬스터주식회사, 레지던트 이블, 25일은 해적 디스코왕 되다. 긴급조치 19호 등이 상연된다. 건전한 취미활동 유도를 목적으로 마련되는 이번 행사는 참여 청소년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 후속 상영 작품을 결정한다. (02)942-0636

담배를 끊읍시다

여성 흡연

1. 태아의 발육 부진 야기

태아의 발육 정도를 나타내는 가장 좋은 지표는 태아의 체중. 일반적으로 임신한 여성이 담배를 피우는 경우, 태아의 체중이 평균 500g 정도 감소한다. 이러한 태아의 저체중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첫째, 담배 연기 속에 있는 니코틴이 태반 혈관을 수축시켜 태아의 발육에 필요한 산소의 공급을 제한하기 때문이고 둘째, 담배 연기 속에 들어있는 일산화탄소(CO)가 혈액 내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빈혈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2. 유아 행동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

펜실베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임신 중의 흡연이 태아에게 산소 공급 결핍을 가져와 태아의 행동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연구 발표했다. 이 연구는 임신 기간 동안 흡연한 여성의 자녀는 비흡연 여성의 자녀보다 독서 능력은 3~4%, 주의력은 2% 뒤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3. 미숙아 출산 가능성이 높아진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영양분이 태아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태아가 영양실조에 걸릴 확률이 높다. 일산화탄소가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과 강력히 결합되어 산소 부족 현상을 일으키고, 혈관 내막의 기능을 약화시켜서 미숙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아진다.

태아 발육 · 정신 발달 등에 지장 줘

네티즌 불교동아리 순례

달마가 영어를 만났을 때

소임 선택 글 올리고 공부 점검도…

불교도 알고 영어도 배우고 싶으면 다음넷의 '달마가 영어를 만났을 때'라는 카페를 가보자.

'달마가 영어를 만났을 때'(cafe.daum.net/ebuddha·이하 달마카페)'는 정혜스님(옥천사)을 지도법사로 성철큰스님의 능엄회상과 불교영어 공부를 하는 모임이다. 20대 초반에서 50대에 이르는 회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나이에 상관없이 함께 공부해가는 도반으로 다양한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달마가 영어를 만났을 때' 초기 화면.

용상방코너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경전연구회, 달마염불회, 불교영어회화, 토요정진 등 24가지 소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관련된 글을 올리도록 한다. 자기가 맡은 소임에 관한 글을 올리면서 자신의 공부에 대한 점검도 해나갈 수 있어 회원들의 참여도가 높다. 소임선택을 어려워하는 회원은 토요정진을 선택하게 하여 능엄경 독송을 몇 번 했는지, 참선을 얼마만큼 했는가를 정혜스님에게 점검을 받고 공부에 매진하는 계기가 된다.

숭산배짱회화 코너는 자신이 알고 있는 영어에 대한 글을 올리며 영어도 공부하고 불교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그밖에 소모임으로 능엄장학회가 있는데, 능엄장학회는 옥천사 어린이들에 대한 장학금 마련과 모임의 회비, 매년 2월의 능엄주 천독회 정기모임에 쓰는 경비마련으로 운영되고 있다.

초심자들에게는 조금 다가가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대승의 보살도를 배우고 실천하는 대승보살로서 수행과 전법을 병행하고 싶다면 달마카페로 여행을 떠나보는 것이 어떨까.

이한길 기자 sunggak@buddhapia.com

현대불교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기사제보 · 구독 · 광고 문의 및 신청

충북지사
043-258-3282 / 011-459-3282
부산지사
051-463-5331 / 011-737-5481
대구지사
053-768-8008 / 016-813-8008
광주지사
062-375-9986 / 016-602-7544
강릉지사
033-643-5599 / 018-236-5589
전북지사
063-255-2274 / 011-9644-4579
인천지사
032-937-5679 / 019-688-8151
밀양지국
055-353-1196 / 017-650-1196
영주지국
054-634-3429 / 011-9373-3778

손누비 공개 강좌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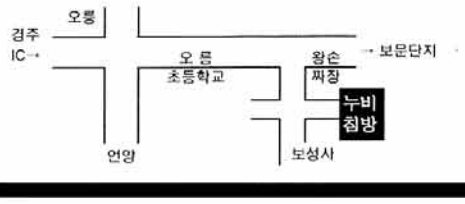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 김해자 선생님의 공방에서는 이번 10월에 승복조끼를 시작으로 승복 손누비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대비하여 따뜻한 솜누비 옷하나 가지고 싶은 분들, 정성을 다하여 존경하는 스님에게 보시하시고 싶은 보살님들, 단순한 누비작업을 통하여 스스로 인욕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고 싶으신 분들, 화두쌍수의 의미를 두고 누비삼매에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손누비 강좌에 오셔서 뜻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 일 시 : 2002년 10월 2일 ~ 10월 5일 (4회 연속)
❖ 시 간 : 오전 10시 ~ 오후 7시까지
❖ 대 상 : 10월 2일 – 일반신도
10월 3일 – 일반신도
10월 4일 – 비구니스님
10월 5일 – 비구스님
❖ 장 소 : 경북 경주시 탑동 637-1번지
중요무형문화재 제 107호 누비장 김해자 누비공방
❖ 참가인원 : 하루 30명
❖ 준비재료 : 겉감-습물염색한 명주, 안감-목초액 염색한 명주
❖ 재 료 비 : 小 – 210,000 , 中 – 235,000 , 大 – 260,000
❖ 식 대 : 10,000원
❖ 모집기간 : 2002년 9월 31일까지 선착순 접수
❖ 계좌번호 : 농협 749-02-456047 김 해 자
자세한 내용은 경주 가공방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54-775-2631, e-mail : nuby107@yahoo.co.kr)

불기 2546(2002년) 9월
김해자 침장

❖ 약 도



경명주사로 직접 제작한 불서화의 대가

태광 선사의 행운의 달마 길상도



▷백련달마 팔문 제수부 ▷12띠 수복 달마
▷달마 백복도 ▷금분 법자 달마(쓰상제) ▷청자 반야 심경

* 각종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모전, 한국예술상, 대상 및 수상다수, 추천작가 및 초대작가.
* 현, UN IAEWP 한국대표부 문화예술 전문위원.
* 현, 사단법인 대한불교 선각종 문화국장.
* 현, 한국어린이 보호재단 득심사 후원회장

불사 주문 신청 : 농 협 100116-52-074406 양 태 선
전 화 : 02)839-7829

판매금액의 일부는 사단법인 한국어린이보호재단 심장병 어린이 돕기에 기증합니다.

退 퇴 魔 마

앗! 아이들이 위험해요

혹시 여러분의 아이들은 이런증세를 보이지 않습니까?

- 간질병환자 처럼 발작을 일으킨다.
- 생후 12개월이 지나도 걸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
- 아이의 눈동자가 가끔 사시가 된다.
- 아이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왔다갔다 흔들린다.
-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말을 배우는 속도가 현저하게 늦는다.
- 가끔가다 경기를 자주 일으킨다.
- 아이의 몸이 사지가 뒤틀린다.
- 아이가 울때 울음소리가 아이 울울소리가 아닌것 같다.
- 아이의 목소리가 가성이 나온다.
- 고개를 앞뒤로 꾸벅이거나 좌우로 흔든다.
- 집중력이 부족하여 한군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 시도 때도 없이 꾸벅꾸벅 졸음이 온다.

이런 증세를 보이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도 병원에서 뚜렷한 병명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아이가 지능이 떨어진다 잘 알 수 없으니 큰병원에 가보라 등의 말을 해 주며 약을 지어 줍니다. 그러나 그 약은 대부분 어른이 상용해도 몸에 해로운 신경 안정제 입니다만 아무리 먹어도 상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태어날때 완벽한 영체를 형성하여 다른 영들의 침입을 받지 않으나 편하게 살려는 부모와 의사들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져 배를 가르고 집게로 아이를 뱃속에서 끄집어 내는 임신중절수술을 하고 때로는 아이가 크게 충격을 받아 영체가 깨어져 나쁜 영들의 침입을 받습니다.

위의 증세를 보이는 아이들은 이미 다른 영에 침입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은 자라면서 이상성격자가 되거나 신기를 보이면서 하는 일마다 되는 것이 없으며 온갖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아이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요.

중생구제와 포교의 일환으로 도심에 정욱사 포교원을 개원하신 정욱스님이 여러분에 아이들을 마군으로부터 구제해 주실 것입니다.

초월견성하신 정욱스님이 퇴마술로써 불과 30분안에 여러분들의 아이들이 모든 영가를 물리치고 정상적인 아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외에도 신이 들려 정신이상증세나 이상성격이 나타나는 자나 중풍, 암, 전신마비, 신체일부마비, 디스크, 골프병등 각종질병을 가진 분들을 기적의 포기 회생술로써 구제하여 드릴것 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7-16
정 욱 사 02)382-2217, 017)217-2219
주지 : 정욱스님

무주상보시 불자4명 수상


◇정련 스님


◇일광 스님


◇일정 스님


◇오선옥 씨

국무총리상 정련·일광스님 복지부장관상 일정스님·오선옥씨

태풍 루사 피해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어느 해보다 움츠러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묵묵히 자비행을 실천해온 불자들의 선행이 밝혀져 명절 밑을 훈훈하게 하고 있다.

그 주인공들은 정련 스님(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위원장)과 일광 스님(서울 일광사 조실), 일정 스님(보령 천수암 주지)과 오선옥 씨(40, 강릉자비원 과장). 이들의 자비행은 지난 7일 서울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제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및 전국사회복지전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각각 수상함으로써 드러나게 됐다.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정련 스님은 부산 몰운대 복지관을 운영하는 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전력을 다한 것이 이번 수상의 계기가 됐다. 또한 스님은 1997년 어린이 유아포교로 제9회 포교대상을 받았으며, 현재는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위원장을 역임하며 민족간 동질성 회복에 힘을 쏟고 있다.

일광 스님은 1961년부터 어려운 절 살림에도 불구하고 절에 들어온 보시물은 사부대중의 것이라는 일념으로 가난하고 병든 사람에게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왔다. 또한 일반인들은 접근하기를 꺼리는 나병환자나 정신병 환자는 물론 산간 오지의 독거노인까지 찾아가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태풍으로 고통을 받는 태백시 철암동을 직접 방문, 백미 1000kg, 의복 1000여점, 생필품 1000여점 등을 기탁하기도 했다.

일정 스님 또한 15년 전부터 천수암이라는 조그만 사찰에서 수행하면서 장학사업과 독거노인 돕기, 무료급식을 실시해왔다. 스님은 공부는 하고 싶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자칫 배움의 기회를 잃을 뻔 한 초·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 현재도 50여명이 스님의 도움을 받을 정도.

또한 독거노인 70-80명에게 쌀 등 생활용품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주 수요일 대천역 광장에서 노숙자나 노인들을 위해 무료급식도 해 오고 있다.

오선옥 강릉 자비원과장은 20살 되던 해, 텔레비전에서 당시 홍제동 영아원 원장이었던 진철 스님의 활동이 소개되는 것을 보고 아동복지사업에 뛰어들었다. 88년부터 91년까지 아동복지시설인 영아원에서 자원봉사를 했으며, 91년부터 강릉자비원(원장 최승준)에서 보육사로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특히 오과장은 불심이 돈독해 항시 자비원에 마련된 법당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불을 올려, 정서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김철우·남동우 기자

"자신을 보배처럼 아끼라"
월운스님 한양대서 강연



봉선사 조실 월운스님(동국대 역경원장)이, 한양대가 개설한 '뉴밀레니엄 시대의 인간학' 과목의 첫 번째 강사로 초청돼 강연했다.

12일 강좌에서 '21세기 청년들의 사명과 역할' 주제로 강연한 월운스님은 200여명의 한양대 학생들과 함께 21세기 한국불교는 청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놓고 열띤 문답을 전개했다. "부처님은 인간행복이 자기 자신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가르친 분"이라고 운을 뗀 월운스님은 "21세기도 부처님의 깨달음대로 자업자득의 도리를 따라 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스님은 "남의 불행에 눈감고 나 자신을 관대하게 대하는 마음을 버리고 나 자신을 보배처럼 아끼라"고 법문했다.

강유신 기자

인각사 인근 군위 화북댐 예정지
수은등 중금속 다량검출

군위 인각사 인근 3km 지점에 건설예정인 화북댐 예정지 상류가 중금속으로 심하게 오염됐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9일 화북댐 예정지 상류 토양에서 '이따이 이따이병'을 일으키는 카드뮴과 '미나마타 병'의 원인이었던 수은이 함께 다량으로 검출됐다며 주변 토양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자체분석결과 카드뮴이 3.4ppm, 구리가 49ppm 검출돼 농수산물 재배를 제한하는 오염기준에 근접해있고 비소는 790ppm으로 기준치를 50배나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화북댐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김재경 기자



구룡사 '9·11테러' 1주기 추모법회

원주 구룡사(주지 원행)는 10일 9·11테러 1주기를 맞아 주한미군 캠프롱부대 군장병 및 가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법회를 열고 테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교구본사 환경위 구성 본격화

해인·봉선사 이어 통도·불국사도 결의
조계종 '위원회령' 개정…10월에 워크숍

최근 자연및 수행환경 수호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교구본사 환경위원회'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인사와 봉선사가 교구 내에서 발생한 환경현안 해결을 위해 환경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 것에 뒤를 이어 8월 28일 법주사, 12일 통도사와 불국사가 교구 본말사 주지스님회의를 통해 환경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또한 제주 관음사 역시 환경위원회 설치를 적극 검토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22일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가 환경침해 사안에 대한 성명서 채택과 교구본사환경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데 이어, 조계종 환경위원회도 9일 회의에서 '조계종 환경위원회 령' 개정 및 교구본사 환경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이미 구성된 해인사 환경위원회의 사례를 참조, 재가 전문가와 지역환경단체 임원, 지역주민이 참가하는 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에 보고하는 것을 각 교구본사에 하달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스님과 전문가, 교계단체가 참여하는 불교환경워크숍을 10월 중순경에 개최하기로 의결했다.

강유신 기자



◇7일 개관식을 가진 내원시니어클럽에서 정련스님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노년의 삶 더 풍요롭게"
'내원 시니어클럽' 개관
50세이상자 경험·기술 사회환원

사회복지법인 내원(이사장 정련스님)의 노인복지활동이 7일 내원시니어클럽 거관으로 본격화됐다.

이사장 정련스님, 부산시청 노인복지계 손기수 계장을 비롯 실무자들과 관내 노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개관식에서 정련스님은 "점차 늘어가는 노령인구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경제 자립도를 높여 노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으로 중노년층의 경제사회활동을 돕는 비영리 노인복지기관인 내원 시니어클럽은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경험과 기술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벌이게 된다.

사업은 크게 소득형, 교육보상형, 기타 지원사업으로 나눠 진행되며 작물 재배 및 판매사업, 주말농장 및 농업 현장 학습장 운영, 떡방앗간 운영, 택배 및 용역 사업, 노인전용 전화상담실 운영, 야생화 안내 설명 사업, 야생화초 가꾸기, 중노년층 동아리 활동 지원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진행된다.

(051)244-6700 부산=천미희 기자

목탁소리 종무원부터 신도등록을

김 재 경 (취재1부 차장)

조계종이 최근 신도교육 강화를 통한 신도등록 배가에 매진하고 있는 가운데, 주무 기관인 포교원이 종무원들의 신도등록과 사찰 신행활동을 내부적으로 촉구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포교원에 따르면 총무원과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종사자 75명 가운데 21%인 16명이 신도등록을 하지 않았고, 신도등록을 한 종무원 가운데 88%인 66명이 올해 교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사정은 불교단체나 불교언론에 종사하는 불자들에게도 별반 다를 바 없다. '나름대로 불교를 공부하고 인연있는 사찰을 참배하면 됐지, 구지 재적사찰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는 원론적인 생각에서다. 아마 신도등록 캠페인을 애써 외면하는 대부분의 신도들 역시 이러한 '신도관'에 젖어있을 것이다. 여기에 신도등록 사업의 함정이 있다.

조계종에 등록한 신도수는 지난달 말까지 모두 25만여명. 조계종의 신도등록사업은 사업 주체인 중앙 종무원들에게 마저 실효성이 없을 정도로 실패한 종책인 것일까. 포교원 관계자는 대부분 신규 종무원들이 신도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직원 채용시 신도등록이 주요 사정 항목인 점을 생각할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조계종이 지난 6년간 추진해온 신도등록 사업은 해마다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신도등록 폐지론'에 부딪치며 굴곡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조계종은 재적사찰 갖기 운동, 신도등록 홍보강화, 신도등록 우수 사찰 포상, 미비한 사찰의 종정감사 강화, 인사고과 반영 등을 실현하겠다며 여전히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사업의 당위성을 설득력있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중앙종무기관과 사찰, 불교단체 등 재가 종무원들의 솔선수범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중로구 평창동 45번지
☎ 02)396-2736 · HP 016)228-2358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bokbat@kornet.net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부산 구룡사근처 공원내 청소차 세차장 백지화

부산 구룡사 인근에 들어서기로 했던 청소차 주차장과 세차장 건립이 백지화되면서 사찰 수행환경은 물론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보장되게 됐다.

사찰이 위치한 근린공원내에 들어서기로 했던 청소차 주차장과 세차장은 땅 소유주인 (주) 청미산업이 건립취소를 밝힘으로써 최근 일단락됐다.

구룡사 선원장 도오스님은 "대체부지를 협의하에 확보하기로 해 차고지 건립이 취소되었다"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대가야 사이버박물관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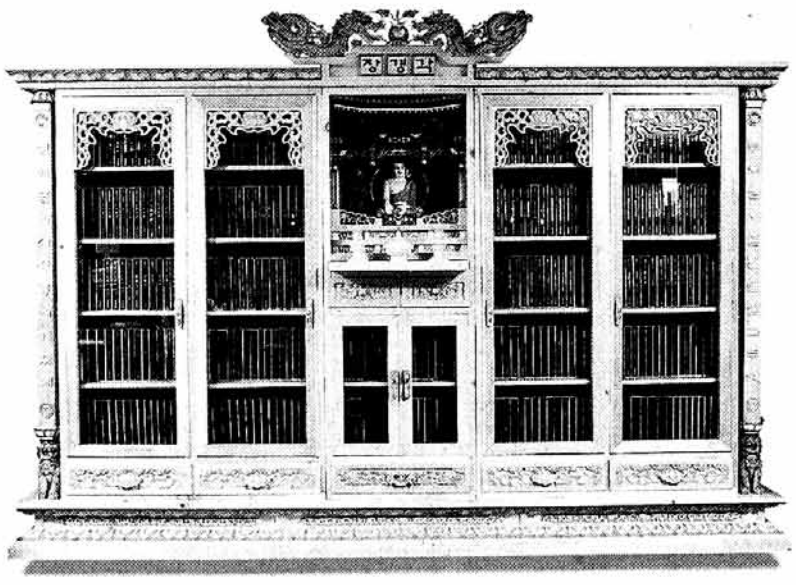
5세기경 경북 고령지방 대가야인들의 고대문화와 사회상을 보여주는 사이버 박물관(www.daegaya.net)이 개관됐다. 고령군이 최근 개설한 이 박물관은 인도를 통해 직접 불교를 받아들인 '불교 남방전래설'을 입체화면으로 확인 할 수 있다.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7년만에 318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합시다.



▌『한글대장경』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 화 : 02-737-8881, 02-722-4162 팩 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聖寶
가정에 봉안하면 家寶
읽고 마음 밝히면 法寶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 입니다.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닫집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찬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용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부다피아카드로 봉인불사를..

현대불교신문사와 외환은행의 제휴카드인 부다피아 외환비자카드 신청 실적으로 사찰에 한글대장경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사찰신도가 부다피아외환비자카드에 500명이 가입하면 한글대장경1질 (4백77만원)을 봉안할 수 있습니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

불교계 수해복구 지원 잇달아

교구본사주지련 의연금 · 생필품 전달
미타사, 산사음악회 비용으로 이재민 지원
"동안거전 복구됐으면" 백장암 스님 발 '동동'

수해지역에 불교계의 자비 손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조계, 천태, 진각종 사회복지재단이 태풍피해지역에서 대대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각 사찰과 불교계 단체들의 성금 및 복구지원도 늘어 수마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수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피해사찰들도 적극적인 불사모연을 통한 복구작업에 나서고 있다.

태풍 '루사'로 인해 큰 피해를 본 남원 실상사 선방 백장암은 동안거 이전까지 복구를 한다는 계획에 따라 불자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백장암은 법당에 토사가 밀려들고 선원 벽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컸다.

선원장 연관스님은 "이번 동안거 결제를 시작으로 3년 결사를 준비중"이라며 "동안거 전에 복구될 수 있도록 불자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11-670-9064

범종단적인 성금답지와 자원봉사 활동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조계종 본사주지연합회(회장 법장)는 11일 속초시청에 300만원의 수재의연금과 쌀 50가마, 라면 50상자, 강릉시청에 쌀 40가마, 강릉 자비원에 200만원, 강릉의 한 불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했다. 충북 음성의 미타사도 산사음악회를 취소하고 음악회 비용 1천만 원으로 쌀과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이재민 지원 생필품을 구입, 1일 충북도청에 기탁했다.

이밖에 월정사와 2군사령부가 14일과 11일, 원주 법승사와 무열대 중문 앞 공터에서 수재민돕기 바자회를 열어 성금을 마련했다.

13일 동국대 교수와 석림회 스님 50여명이 김천 청암사에서 사찰복구 지원활동을 벌였으며, 동화사 봉황자원봉사단을 비롯한 산하 9개 단체 40여명은 8일 7백7십여만원 상당의 구호품 지원과 함께 김천시 부항면 일대에서 수해복구 자원봉사에 나섰다. 맑고향기롭게 대구모임도 김천시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영남불교대학 15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10일 충북 영동 용산면 지역에서 빨래, 가구 씻기, 고추밭 정리 등의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부산 보현의 집 43명의 봉사자들도 8일 산청군 생초면을 찾아 태풍으로 인한 과수원, 버섯농장 등의 피해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예산 수덕사 신도 120여명과 선재동자원도 각각 강릉 수해현장에서 수해복구 작업에 동참했다.

한편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에 소재한 건봉사는 13일 현재 진입로가 모두 끊겨 10일째 고립돼 있다. 현재 뇌종부대가 병력과 장비를 투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산세가 험해 한동안 고립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건봉사는 부도전 경내가 유실되고, 대웅전에 토사가 유입됐으며, 종각 원적암 화장실 축대가 붕괴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총무원이 1일부터 도금한 수재민 돕기 성금접수에는 12일 현재 126개 사찰 및 개인 단체가 참여하여 1억6백만 원을 모금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계종은 접수기간을 2주 연장해 9월 말까지 접수한다. (02)735-5864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a.com

김태복사건 탄원서
불교계, 공정판결 촉구

조계종은 김태복 육군 소장 재판의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3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조계종은 탄원서를 통해 "군사재판이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진행과 군의 입장에 부합하는 증인들의 증언만을 채택하는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재판이 진행됐다"며 공명정대한 판결을 촉구했다.

탄원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 종회의장 지하 · 포교원장 도영 · 교육원장 무비 스님 등 80여중진스님들의 연서가 첨부됐다. 박봉영 기자

동국대 불교병원 27일 준공식

법당·장례식장도…최첨단 시설·무균병동 자랑

동국대(총장 송석구)는 27일 오후 2시 동국대 의대 · 한의대 부속 불교병원 준공식을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병원현장에서 봉행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홍국, 설운도, 송대관, 장미화, 이은하 등 불자연예인들이 출연해 축하공연을 펼친다.

이날 준공식을 갖는 동국대 불교병원은 3만여평 부지에 건평 2만7천평의 지하2층 지상 12층 규모로 외래진료동, 입원병동, 중앙지원동, 장례동 등 4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불교의 사법인을 의미하는 뜻에서 설계됐다. 특히 외래진료동은 4층으로 불교의 실천적 원리인 '사성제'를 뜻하며, 입원병동은 12층으로 12연기, 주 출입구 열주기둥은 8개로서 8정도를 의미한다.

최창선 건설본부장은 "국내 최고 병원들의 단점을 보완한 최첨단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며 "특히 모든 검사는 전자동화시스템으로 이루어져 검사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환자중심의 동선배치로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또 최 본부장은 "수술대 천장에 설치된 무영등에 특수 카메라를 장착해 주요 수술장면은 의과대학생들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통해 보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급성백혈병과 장기이식환자 등 특수질환자들을 위한 무균병동도 최초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외래병동 5층에는 3백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강당을 비롯해, 세미나실 등도 갖춰져 있다. 또 불교병원의 취지에 맞게 장례식장과 외래병동에 15평 규모의 법당도 마련해 놓았다.

김주일 기자



◇창원대 불교학생회 동아리방의 훼손된 불상의 모습.

창원大서 훼불사건
불교동아리 불상 파손

창원대 불교학생회(회장 정지은 · 사회학과2)에서 불상 훼불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9월 4일 오후 11시 동아리방을 찾은 대불련 산해원지부장 최정민(창원대 행정학과3) 씨가 동아리방에 봉안된 불상의 목과 왼쪽 손목이 절단된 것을 처음 발견했다.

이에 따라 창원대 불교학생회는 5일 불교학생회실에서 '훼불 사건 임시대책위원회' 구성, 오는 18일 창원대 총학생회, 대불련 부산 · 경남지부가 참여하는 '훼불사건 참회 가두대행진'을 학내에서 벌이기로 했다.

김철우 기자

'50대는 불교를, 40대는 천주교를, 10대는 개신교를 선호한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은기수 박사는 11일 통계청이 주최한 한국의 인구와 주택 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불교는 주로 부산과 대구, 경남, 경북지방 등에 분포돼 있으며 5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50대=불교, 40대=천주교, 10대=개신교
은기수박사, 연령별 종교선호도 조사

은 박사의 연령별 '선호 종교' 분석결과 불교는 50대(34.9%)에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나 개신교는 19세 미만(23.0%), 천주교는 40대(7.6%)가 가장 많았다. 7~19세의 연령층에서는 개신교(23.0%)가 불교(17.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그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불교의 비중이 다른 종교보다 높았다.

지난 85년부터 95년까지 10년간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 신자의 비율이 높아지는 '과점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종교인구도 크게(7% 가량) 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85년 종교별 인구 비율이 불교 20.1%, 개신교 14.5%, 천주교 4.2%였으나 95년에는 불교 23.3%, 개신교 17.7%, 천주교 6.0%로 높아졌다. 반면, 무종교인의 비율은 같은 기간 59.0%에서 51.7%로 낮아졌고 여자 역시 50.8%에서 43.2%로 줄었다.

김재경 기자

한국불교국제화 잰걸음

참여불교재가연대 '협력위' 발족

최근 한국불교의 국제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불교재가연대가 국제협력위원회를 발족, 한국 참여불교운동을 세계에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재가연대(상임대표 박광서)는 한국 참여불교운동을 세계에 알리고 국제연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제협력위원회를 11일 구성하고 위원장에 코리아타임즈 김창영 논설위원을 선출했다. <관련 인터뷰 4면>

국제협력위는 10월부터 △인도 등 해외불교 지원 사업 △국제불교 네트워킹 사업 △세계 참여불교 지도자와의 만남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국제협력위원회는 10월 20일 인도 우다프레데시 주에서 YBS 주최로 열리는 석가족 2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수계법회 지원을 시작으로 메인뿌리 주와 칸노 주 등에 불자들을 위한 종교시설과 복지시설 건립 사업에 대한 사업자금도 지원한다. 인도 지원을 위한 후원금도 현재 2억여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와 함께 베트남 미얀마 등 종교의 자유가 없고 빈곤 문제가 심각한 불교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사정이 파악되는 대로 티베트불교권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한다.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도 올해 말까지 조사를 완료, 2003년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강유신 기자



"죽음 준비해요" 13일 경기도 고양시에 개원한 국내최대규모 납골추모사찰 해인사 미타원 개원식에 참가한 스님들이 관에 직접 들어가는 죽음체험행사를 가졌다. 이날 개원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 · 포교원장 도영 · 종회의장 지하 · 동국대 前교수 인환 · 해인사 주지 세민 스님, 한화갑 민주당 대표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고양=고영배기자

포교원, "위덕대 군승파견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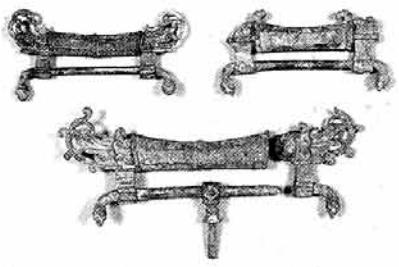
불교의식 · 수계절차 등 조계종과 큰 차"

조계종 포교원이 위덕대를 군승파견학교로, 진각종을 군승지정종단으로 선정하기 어렵다는 공문을 12일 진각종에 발송했다.

포교원은 공문에서 "지난 30년간 군포교 일선에서 통일적으로 진행된 전통불교의식과 군승파견 수계절차에 대한 양 종단 간 교육과정의 차이가 커 군승파견이 불가함을 인지해 달라"고 회신했다.

이에 앞서 11일 제154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 지광스님의 '진각종 군승파견요구에 대한 종단적 입장'에 대한 질의에 대해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논산훈련소 입소대대 법당지원에 4억원 내놓았으니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사람이 부족하다고 머리 기른 사람들과 합하면 조계종의 정체성을 찾기가 힘들다. 진각종과는 협의할 상대가 아니다"고 강력히 반대했다.

김원우 기자



◇최근 보존처리를 끝내고 공개된 한천사 출토 금동자물쇠 3점.

한천사 출토 금동자물쇠
보존처리로 제모습 찾아

경북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이 소장 중인 보물 1141호 한천사 출토 금동자물쇠 3점이 제 모습을 되찾았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부식이 진행되고 있던 금동자물쇠 3점을 9개월 동안 보존처리한 끝에 11일 공개했다. 보존처리 결과 금동비녀처럼 보이던 연꽃 봉오리 모양의 문양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자물쇠 3점은 지난 89년 한천사 경내에서 청동반자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성분 검사 결과 구리와 주석, 납 등으로 만들었음이 새로 확인됐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져 그 예가 드물 뿐 아니라 문양이 아름다워 미술사적으로도 중요한 자료다.

권형진 기자

당신의 전생을 보여드립니다





당신의 슬픔과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당신의 전생에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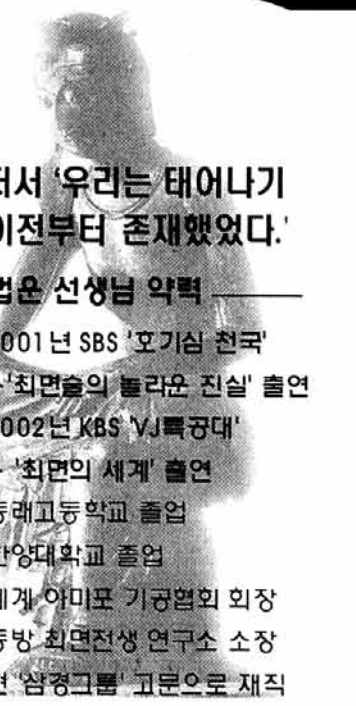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최면전생 특강 내용

(1) 최면으로 하는 제령 천도(天道) -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영가(靈魂)나 빙의령(憑依靈)이 영계로 떠나가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하는 기법
(2) 전생퇴행 최면 - 무의식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전생의 사건과 경험들을 재생시켜서 보게하는 기법
(3) 원격 제령 최면
제 3자가 최면에 들어 원하는 사람의 몸속에 있는 영가를 천도 하는 기법. 최면 당사자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볼수 있음.
(4) 최면 파동요법
사람이나 영가는 저마다 고유한 주파수(영파(靈波))를 가지고 있는데 영혼파동기법으로 그사이클에 초점을 맞추어 영가(靈魂)를 불러내어 제령 천도하는 기법. 영가가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떠나 가는 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기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일주일 과정)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었다.'

법윤 선생님 약력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동래고등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졸업
세계 아미표 기공협회 회장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동 방 최 면 전 생 연 구 소

◆ 문 의 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

폐사지를 찾아서

장지현의 **잊혀진가람 탐험**

양주 회암사터 <하>



발굴寺址 10만여평 자연 불교역사박물관



◇경기도 박물관이 580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회암사터를 발굴하고 있다. 경기도는 발굴이 끝나면 전시관을 지어 유물을 전시하는 등 발굴현장을 관광자원화할 계획이다. 사진=고영배 기자



◇97년 가을, 산불로 파괴됐다가 복원된 선각왕사비(보물 제387호).

폐사지에도 신도가 있다. 때맞춰 찾지 않으면 심신이 불안하여 기다리는 이 없어도 문득 찾아가 불제자의 예를 갖추는 이들이 있다. 양주 회암사터는 언제 찾아가도 몇 사람의 순례자들이 눈에 띈다. 어깨를 스친 적 없어 인연을 물을 수 없고, 등록된 명부도 없어 도반의 미소를 건넬 수 없다. 회암사터는 그런 곳이다. 등록조차 되지 않은 신도들이 찾아가 불전(佛錢) 대신 들꽃 한줌 올리고 그리움과 희망을 함께 공양하는 그런 곳이다.

◇회암사터 여덟단지중 6단지에 위치한 서승당 구들터. 우리나라 최대의 것으로 완벽한 형태를 간직하고 있다.



서승당 구들장 최대·완벽…고건축학계 주목

거대한 맷돌·정료대 당시 살림살이 짐작케

못내 미덥지 않은듯 회암사터 허리 긴 부도탑은 하대석마다 천마들을 수놓아 무심히 윤회의 원을 그리고 있다. 화려한 무차대회(無遮大會)중에 절대의 후원자였던 문정왕후가 죽자 급기야 제주도로 유배 가 목사 변협에게 죽임을 당한 보우의 운명과 함께 회암사의 운명도 그렇게 불길에 휩싸인 채 무상의 강물 속에 가라앉게 되었다.

회암사터 여덟 단지는 모두 구획을 다시 긋고 칸칸이 주초를 되돌려 놓았다. 경기도가 2008년까지 580억원을 들여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거듭 태어나게 할 회암사터는 그 기대만큼이나 주목받는 유적들이 화려하다. 6단지에 위치한 서승당 구들터는 우리나라 최대의 것이다. 경남 하동 칠불사 아자방(亞字房) 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완벽한 것으로 고건축학계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한 것이다. 구들이 무엇인가. 구들은 세상을 따뜻이 덥히는 것이다. 한 때 역사의 아랫목을 따뜻이 덥히며 고해의 살림살이에 온기를 느끼게 했던 회암사지 구들터는 이제 온전히 형체를 간직한 채 또 다시 역사의 안방에 군불을 지필 그 날을 고대하고 있다. 구들은 우리민족의 원초적 문화유산이다. 중국 동북부의 '캉(炕)' 보다도, 로마시대 목욕물을 덥히면 '하이퍼코스트' 보다도 한반도 함북 땅 웅기 지방 움집터 구들이 훨씬 오래전의 일이고 정교했던 것이다.



◇회암사터에서 발굴된 유물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백자(白瓷)동자상, 불두(佛頭), 용두머리.

회암사터는 현보산 아트막한 계곡에 천수답 같은 토단을 쌓아 조성되었는데 북서쪽, 북동쪽에서 내려오는 계곡의 물을 사역 내로 끌어들여 지상으로 흐르게 하는 자연 친화적 조경을 연출하였던 것이다. 261칸의 한 칸 처마 끝에 노닐던 목어들이 그 비늘을 씻었을 법 한 이 집수로의 물은 6단지부터는 지하로 연결된 배수로로 길을 돌려 사지의 수맥을 풍요롭게 하였다. 그 기능이 참으로 완벽하고 치밀하여 옛 사람들의 손재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3단지 동쪽 끝에는 거대한 석조와 함께 맷돌(경기도 민속문화재 1호) 2기가 노출되어 있다. 맷돌은 소가 멍에를 지고 나락을 태질하던 것이다. 어깨가 부르트도록 회암사 대중을 위해 맷돌을 돌리던 농우(農牛)는 지금쯤 그 복업 공덕으로 어느 절 대중이 되었을 것인가. 2천여 권속들이 한꺼번에 식사를 하였다는 회암사 살림살이는 보통을 넘었을 것이다. 이 무렵 전국을 지나는 승려들에게 어느 절 수좌냐고 물으면 한결같이 회암사 사문이라고 하였다는 말은 빈 말은 아니었던 듯 하다.

회암사터는 볼 밝힌 그 때도 밝았고, 불꺼진 그 뒤에도 환하다. 각 단지마다 1개소 내지 3개소의 정료대가 있어 현보산 청솔들의 송진을 긁어 불을 밝힌 회암사의 야경은 궁궐의 안마당 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으리라. 불 꺼져 싸늘히 식은 회암사터 정료대 위 초가을 햇살이 눈부시다. 태조 이성계가 자식들의 왕권다툼에 밀려 회암사에서 회한의 나날을 보낼 때도 현보산 능선의 일월성신들은 한없이 속수를 밝혔으리라.

태조 이성계는 비록 대궐은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으나 또 다른 대궐인 회암사를 중창하고 부처님전에 귀의하였다. 궁궐의 모양을 본 떠 지은 회암사터는 왕실의 흔적을 곳곳에 남기고 있다. 2단지 계단 정면의 태극문양도 그렇고, 드넓은 터의 장려한 석축들, 무수한 파편으로 출토되는 청기와들, 532개나 되는 주춧돌만 보아도 그 품격을 짐작케 한다. 조선은 숭유배불을 국시로 하였지만 실은 외유내불(外儒內佛)을 통치이념으로 한 국가였다. 태조 이성계는 물론, 태종의 둘째 아들 효령대군도 회암사에서 불법을 닦았고, 성종과 명종 때도 불심 깊은 왕실 보살들이 회암사를 빈번히 왕래하였다. 아무래도 이 나라는 불법의 나라인 것을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는 서까래 세 개를 지고 무너지는 집에서 나오는 현몽을 받으면서 알아차렸을 것이다.

제주도로 끌려간 보우스님이 봉귀의 객이 되고 회암사가 유생들에게 유린되어 역사의 어둠 속으로 사라진지 300여년 뒤 회암사는 또다시 유생들에게 혈저히 유린당하는 수모를 겪는다. 광주사람 이응준(李膺峻)이 심화상의 부도와 비를 제거하고 선조의 묘택으로 삼고자 술사인 조대진이라는 사람에게 속아 유물을 훼손한 것이다. 이 일은 7년 뒤인 1828년(순조28) 세상에 알려져 이응준과 조대진은 섬으로 유배가고, 그 해 절터 복쪽 현보산 중턱에 오늘의 절 이름을 이은 회암사가 다시 세워지게 됐다. 이 때 망가졌던 삼사의 부도와 비도 능선 위에 다시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 수난 과정에서 지공선사와 무학대사 부도비 몸돌은 영 복구되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는 것이다.

경기도가 수립한 회암사터 종합정비계획에 따르면 토지매입비 2백44억원, 발굴조사비 44억원, 전시관 건립비 1백억원 등을 들여 회암사터 발굴 현장을 관광자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존하는 사찰도 아닌 폐사지 발굴에 이와 같은 공력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 그래도 이 나라가 불법의 가치를 알고 문화재에 안목이 있는 나라임을 엿보게 한다. 회암사터의 발굴은 폐사지 정책의 전형이 되어야 할 것 같다. 우선 주변 경관을 해치는 레미콘 공장과 섬유공장 등의 이전 및 철거는 시급한 것이고 가건물인 전시관과 교육장은 제대로 지어져야 한다. 보광전 · 정청 · 서방장 · 사문 · 정문 등에 대한 복원 계획을 취소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섣부른 복원은 원형 훼손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기도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불교계도 회암사터의 발굴과 역사적 가치에 관심을 갖고 발굴작업의 앞뒤에 주인된 지분으로 참여해야 한다. 절을 짓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라 발굴하는 것도 불사이다. 그리하여 경기도박물관에 임시로 옮겨진 선각왕사비도 불교박물관으로 되돌려줄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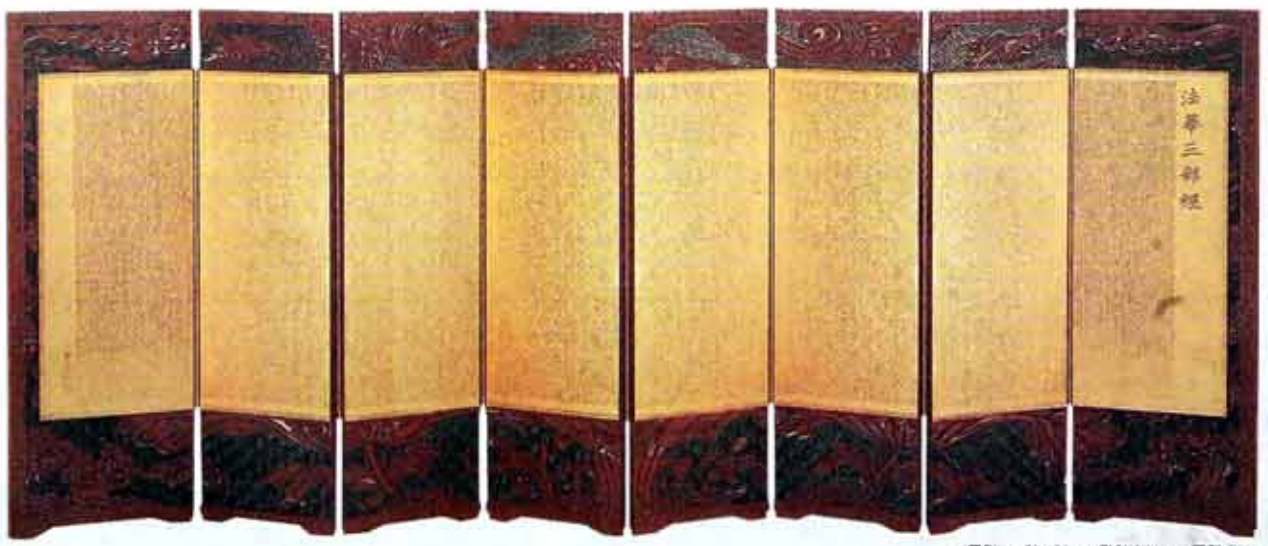
<시인 · 진각복지재단 사무처장>

다음은 안성 봉업사 터 편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 조각 병풍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 조각 병풍 특징

- 법화삼부경(무량의경 3품, 묘법연화경 28품, 불설관보현보살행법경 1품)8만위에 또렷이읽을수 있도록 4천여자를 8폭 금속활동판 양각으로 새겨서, 그위에 순금으로 도금하여 조성한 웅장하고 장엄한 토품(성품)입니다.
- 법화경의 공덕을 아시는 스님과 불자님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 본 병풍은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수 있도록 오랜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되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하였으며, 본 병풍의 소장자는 그 이름을 금속판에 새기어 순금으로 도금한후 병풍뒷면에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 본 병풍은 한품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와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불량율이 높아, 일년에 10품정도밖에 조성치 못하고 있습니다.
- 필요하신 분에게는 본 병풍의 카다로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규격>높이:152cm, 길이:366cm 무게:70kg




법 당


요 사 채


거실, 안방


제사, 차례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031)334-9490, 334-9491

야간:031)706-3060

경기도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